

碩士學位論文

1920년대 소설에 나타난 빈궁 양상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崔喜貞

2010年 2月

# 1920년대 소설에 나타난 빈궁 양상 연구

指導教授 文 聖 淑

崔 喜 貞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년 2월

崔喜貞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심사위원장 : \_\_\_\_\_ (인)

위 원 : \_\_\_\_\_ (인)

위 원 : \_\_\_\_\_ (인)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0년 2월

# Study on the Poverty Aspect Having Been Shown in 1920's Novel

Hui-Jeong Choe  
(Supervised by professor Seong-Suk M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0.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committee, Mun, Seong-suk, Prof. of Korean education  
An, Seong-su, Prof. of Korean education  
Kim, Dong-yun, Prof. of Korean education

Korean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 1920년대 소설에 나타난 빈궁 양상 연구

崔 喜 貞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文 聖 淑

이 연구는 192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 중 김동인·염상섭·현진건·최서해의 작품에 나타난 ‘빈궁’의 양상을 분석하여, 당대 사회의 빈궁 문제가 이들 작가의 작품에 하나의 모티프로 수용되는 양상을 살피고, 작품 간의 상호관련성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본론이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연구는 각 장마다 서로 다른 방법을 도입하는 다원주의적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 분석의 효율성과 종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 시기의 소설에 빈궁 문제가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배경을 문학·사상적 배경과 사회·역사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실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 민족의 빈궁한 현실과 3·1운동의 성과가 빈궁 모티프의 형성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L. 골드만의 소설사회학 이론을 따라 김동인·염상섭·현진건·최서해의 대표작에 나타난 빈궁 모티프의 양상을 분석하였고, 각 작가의 작품이 보여준 공통의 특질을 일반화하여 정리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골드만의 소설사회학 이론과 상호 텍스트성 이론에 따라 이들 작품 간의 상호 관련성을 ‘빈궁한 민족현실’과 ‘희생자 모티프’의 형상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였다.



## 목 차

### <국문 초록>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의의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 방법과 한계	6
II. 빈궁 모티프의 수용 배경	11
1. 문학·사상적 배경	12
2. 사회·역사적 배경	17
III. 빈궁 모티프의 수용 양상	26
1. 김동인 : 빈궁 인식과 패배주의적 대응 방식	27
2. 염상섭 : 민족의 빈궁 현실과 지식인의 자아각성	39
3. 현진건 : 빈궁 해결의 주체와 민중의 발견	52
4. 최서해 : 현실부정과 자연발생적 투쟁의 옹호	66
IV. 빈궁 모티프의 상호 텍스트적 대화	78
1. 민족적 빈궁의 형상화	78
2. 수난과 희생의 서사	82
V. 결론	85
※ 참고문헌	88
※ Abstract	93

# I. 서론

## 1. 연구 목적과 의의

이 연구는 192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 중 김동인·염상섭·현진건·최서해의 작품에 나타난 빈궁의 양상을 분석하여, 당대 사회의 빈궁 문제가 이들 작가의 작품에 하나의 모티프<sup>1)</sup>로 수용되는 양상을 살피고, 작품 간의 상호관련성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이들 작가의 작품을 개관해보면, 이전 시기의 작품과는 같은 것으로 묶일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그것은 이들의 주된 관심이 내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문제보다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향하고 있으며, 그 문제 중 하나로 ‘궁핍한 민족현실’을 지목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을 따라 이 연구에서는 작가의 개성과 작품의 미학성이라는 문학 자체의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작품 간의 상호관련성을 해명함으로써, 문학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1920년대 문학이 이룬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는 소설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sup>2)</sup>는 오아(John Orr)의 진술은 소설과 사회의 관련성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소설이 사회 현실을 초월할 수 없는 인간, 역사 속 인간의 삶을 다루는 이상, 소설과 사회·역사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련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작품 안에 형상화되게 마련이다. ‘빈궁’은 본래 사회학의 용어이고, 그것이 당시 ‘집단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하나의 모티프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만큼 이 연구는 반영론<sup>3)</sup>을 전제로 한다. 특히 문학과 사회를 동형의 구조로 파악하려는 입장에

1) 문학 속에 반복해서 자주 나타나는 한 요소, 이를 테면 어떤 유형의 사건이나 기법, 공식, 되풀이되는 이미지라든가 인물의 성격과 같은 것을 흔히 모티프(motif)라고 한다. 이러한 문학의 모티프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비평의 방법을 ‘문학 주제학’ 또는 ‘주제 비평’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로 한 시대의 작품 속에 특정한 모티프나 테마의 반영 양상을 고찰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혀 나갔다. 이 연구의 의도가 1920년대 한국 문학의 유력한 모티프로 자리 잡았던 ‘빈궁’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연구 역시 ‘문학 주제학’의 영역에 포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M. H. 아브람스(1981), 『문학연구사전』, 최상규 역(1997), 보성출판사, p.174 참조.

2) John Orr(1980), 『Tragic Realism and Modern Society』, p.3. : 정덕훈(1982), 『최학송 작품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p.44에서 재인용.



서, 당대 사회의 빈궁 문제가 작품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 맥락을 살피는 준거로 ‘빈궁 문제’를 채택한 이유는 그 문제가 당대 우리 민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자 문제적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문학이 ‘빈궁 문학’<sup>4)</sup>이라 불릴 만큼 그 문제를 취재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빈궁 문제는 당시의 사회구조적 문제들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난제였다. 이 같은 문제가 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작가의 현실인식이 현저해지고, 그 정신적 깊이가 진솔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1920년대 사회적 난제로서의 ‘빈궁’은 이 시기의 문학이 지닌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들 작품이 지닌 개성과 미학성을 문학작품 상호간의 관련 속에 수렴하여 조명하는 이유는 이제까지의 문학사가 문예사조 또는 동인지 중심으로 기술되어, 문학작품 상호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는 다소 미흡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개별 작가와 작품 연구를 통해 그것이 지닌 개성과 미학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다양한 방면에서 풍부하게 이루어졌으나, 사조나 동인지를 망라하여 1920년대 문학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작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미력이나마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확인해보고 그것을 보완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빈궁 문제’라는 ① 사회적 맥락 안에서 ② 작품 자체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③ 1920년대 문학작품 상호 간의 관련

3) 3·1운동 이후, 식민지 한국 사회의 작가들은 피폐한 민족현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민족의 문제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들은 문학 창조의 시계를 사회적 수준으로 확장하게 되고, 3·1운동의 실패를 극복하려는 민족문학의 성격을 지닌 작품을 창작하는 데 골몰하게 된다. 이 시기의 문학은 이러한 작가의식의 산물로, 당대 민족현실을 창작의 시발점으로 삼아, 그에 대응하려는 작가의 의식을 작품의 주제로 형상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시기의 문학을 사회학적 측면에서 조명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4) ‘빈궁 문학’, ‘빈궁 소설’이라는 용어는 회월 박영희가 그의 평론 「문예 운동의 방향 전환」, 「과거의 빈궁 소설, 극도에 이른 생활난만을 유출하는 자연생장적 소설」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였으나, 문학사에서는 1949년 백철의 『조선 신문학 사조사』(현대편)에서 처음으로 사용된다. 백철은 “제재성으로 보면 신경향과 문학은 하나의 빈궁소설이다.”라고 하여, 빈궁 문학이 소설의 제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춘호는 빈궁 문학에 관한 백철과 조연현, 김우종의 견해를 종합하여, 그것을 빈곤한 현실 생활을 제재로 하여 그것을 시종여일하게 추구해나간 비극적인 문학이라 규정하기도 하였다. 신춘호(1973), 「한국 빈궁문학의 두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68-269 참조.



성을 규명하려는 의도를 지니므로, 이 연구의 의의도 대략 세 가지로 간추려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이 연구는 당대 사회의 시대적·역사적 과제였던 빈궁 문제가 작품에 수용된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1920년대 민족현실을 발견하고, 당대 민족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현실인식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이를 통해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하여 소설의 의미를 심화·확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설을 비롯한 서사적 예술에서 의미란 “작가가 창조하는 허구적 세계와 이해 가능한 우주인 ‘현실의(real)’ 세계에 존재하는 관계의 기능”<sup>5)</sup>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빈궁 모티프의 수용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개별 작가와 작품을 분석한 것이므로, 작품이 지닌 구조와 미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를 대표하면서 사조와 동인지를 달리하는 작가 김동인·염상섭·현진건·최서해 작품의 상호 관련성을 추적함으로써, 1920년대 문학작품의 대화적 관계를 밝히는 데 일조하고, 기존 문학사와 개별 작가 및 작품 연구의 가능성을 넓히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검토

1920년대 소설의 빈궁 양상을 고찰한 연구는 대개 문학사적인 견지에서의 논의와 개별 작가의 현실인식을 고찰하는 연구를 통해 개괄적으로 다루어지거나, 학술지상에 발표된 소논문의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이 시기의 소설을 대상으로 빈궁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화될 수 있었다. 이렇게 축적되어 온 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빈궁 문학, 농민 문학 등의 범주를 설정하여 통시적·공시적 방법 및 러시아·일본 문학과 비교 문학적 방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6)</sup> 그러나 아직까지 이

5) R. 솔즈·R. 켈로그 저(2001), 임병권 역, 『서사의 본질』, 예림기획, p.113.

와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되거나 그 성과가 풍성하게 누적되었다고 평가하기에 모자란 면이 없지 않음을 부기해둔다.

이 연구의 논제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해보면, 먼저 문학사적인 견지에서는 1920년대 소설을 개관하는 데 있어 취재(取材)적 차원의 특성으로 빈궁 문제를 지목하거나 문학사를 검토하기 위한 배경의 차원에서 언급할 뿐, 그 이상의 논의는 진행시키지 않았다. 다만 이재선은 『한국현대소설사』의 「궁핍한 시대와 가난의 생태학」이라는 항목에서, 1920년대 소설을 당대 사회의 빈궁 문제와 관련하여 조명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sup>7)</sup>

학술지상에 발표된 소논문들은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논의를 펼치기보다는 특정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선별하여 그것이 지닌 독자적 특성을 개괄하는 데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서종택<sup>8)</sup>은 1920년대와 1930년대 현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빈궁 문제였음을 지적하고, 하층민의 삶에 작가적 책임을 부과하여 일관되게 식민지 사회의 참담한 현실을 형상화한 작가로 최서해와 김유정을 들었다. 그는 이들의 작품 속에 당대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작품에 형상화된 작가의 현실 수용 태도를 고찰하였다.

이재선<sup>9)</sup>은 1920년대 소설의 리얼리즘에서 가장 현저하게 다루어진 체제가 물질적, 정신적 빈궁의 문제이고, 이것이 당대 거의 모든 작가의 작품에 수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빈궁’에 대한 작가의 반응 양상을 삶의 보편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태도와 식민지 상황과 결부된 병리 현상으로 인식하는 태도, 계급 이념에 따라 해석하는 태도로 나누고, 이러한 태도들이 융합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김동인과 나도향, 현진건, 최서해를 각각의 관점에 대응되는 작가로 들어, 해당 관점에 따라 이들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현길연<sup>10)</sup>은 소설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는 일이 현실 탐구의 과제이고, 소설이

6) 조남철(1985), 「1920년대 농민문학연구: 프롤레타리아 농민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통일문제연구소.  
류양선(1994), 『한국 농민문학 연구: 식민지 시대』, 서광학술자료사.  
조정래(1998), 『한국 근대사와 농민 소설』, 국학자료원.  
신춘호(2004), 『한국 농민소설 연구』, 집문당.

7) 이재선(1982),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8) 서종택(1976), 「궁핍화시대의 현실과 작품변용: 최서해, 김유정의 현실 수용의 문제」, 어문논집 제17회.

9) 이재선(1978), 「현대소설과 가난의 리얼리즘: 192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제4권.

현실을 수용한다는 것은 작품 구조 속에 현실의 구조를 용해시켜 놓았을 때 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1920년대 한국 사회와 소설의 심층 구조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김동인의 「감자」, 현진건의 「피아노」, 「B사감과 러브레터」, 「할머니의 죽음」의 내적 구조를 분석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식민통치에 따른 폐쇄성과 경제적 궁핍에 한정하지 않고, 그것이 지닌 또 다른 사회적 의미를 제시하는데 주력하였다.

신언철<sup>11)</sup>은 1920년대 시대적 현상으로서의 ‘빈궁’이 동시대 작가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이자, 작품의 중요한 소재로 묘사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사회학적 술어인 빈궁 문제를 일관되게 다루고 있는 작가로 최서해를 들어, 역사적 현장 속의 빈궁과 그의 작품에 그려진 빈궁의 구조를 살폈다. 또한 최서해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작품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하고자 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박홍배<sup>12)</sup>는 ‘빈궁’이 1920년대와 1930년대 한국 문학의 중심 테마였고, 궁핍한 시대 현실과 리얼리즘의 영향으로 빈궁문학이 성립될 수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특히 농민의 궁핍한 삶을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가 중 김동인, 채만식, 현진건, 최서해, 김유정, 김정한, 이기영의 작품을 선별하여, 빈궁에 대한 인식과 대응 양식에 따라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논제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는 신춘호<sup>13)</sup>의 「한국 빈궁문학의 두 양상」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신춘호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산발적으로 언급된 ‘빈궁문학’의 개념을 종합하여 재정의하고,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초기의 빈궁소설을 사실적인 빈궁 문학과 자연발생적인 계급적 빈궁 문학, 목적의식적인 계급적 빈궁 문학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한국의 빈궁소설과 러시아·프랑스·중국 리얼리즘 문학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임종국<sup>14)</sup>의 『한국문학의 민중사』는 광복 이전의 작품들을 민중문학의 관점

10) 현길연(1984), 「1920년대 한국소설의 구조: 동인·빙허의 단편 구조와 그 사회」, 한국언어문학 제23집.

11) 신언철(1985), 「일제하 한국 빈궁문학에 관한 연구」, 공주교육대학 논문집 제21호.

12) 박홍배(1989), 「한국 빈궁문학 연구: 1920년대와 1930년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 제9집.

13) 신춘호(1973), 「한국 빈궁문학의 두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으로 조명하여 빈궁 문학에 관한 논의를 겸하고 있다. 특히 식민지 시대의 억압 받는 여성의 삶과 그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분석하고, 이 시기 빈궁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와 작품을 연계하여 제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임동휘<sup>15)</sup>는 빈궁 문학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한국 현대문학의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을 전제로, 그것의 서사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빈궁 문체에 천착했던 작가로 최서해, 현진건, 김유정을 지목하고, 이들의 작품을 빈궁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그 대응 양상에 따라 반항성, 체념, 해학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같은 작품의 성격이 작가에게 가해진 환경론적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 특이하다. 특정 연구의 성과만을 두고 본다면 그 장단점이 부각될 수 있겠으나, 이들 연구자들의 성과와 업적은 이 연구의 귀중한 바탕이 되어주었다.

### 3. 연구 방법과 한계

이 연구는 1920년대 소설가들 중에서도 김동인·염상섭·현진건·최서해의 작품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소설은 서로 다른 미학과 작가의식의 소산 이면서,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소설이 맺는 관계를 이 시기의 다른 어떤 작품들 보다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나도향, 이기영 등의 소설 역시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들의 작품에 주목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작품 세계가 현실 세계와 맺고 있는 양상이 김동인, 염상섭, 현진건, 최서해의 경우와 중복되는 측면이 많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이기영의 진면목은 「고향」(1933)이 발표되는,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이들 작가의 작품에서 빈궁 모티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14) 임종국(1991), 『한국문학의 민중사』, 지리산.

15) 임동휘(2003), 「빈궁소설의 서사적 특징 연구: 최서해, 현진건, 김유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살피려는 의도를 지니므로, 그들의 작품 중에서도 당대 사회의 빈궁 문제가 에피소드 형식으로 삽입되어 있는 작품은 배제하였고, 그 문제를 다루는 데 비교적 충실한 작품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듯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나,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작가의 현실인식이나 태도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모된 양상을 보이는 작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서로 다른 방법을 도입하는 다원주의적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 분석의 효율성과 종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특정 시대의 역사적 제약성이 문학의 사회성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김윤식의 견해<sup>16)</sup>로 미루어볼 때, 이 시기 소설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에는 마땅히 1920년대 식민지 한국 사회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이 시기의 소설에 빈궁 문제가 보편적으로 수용된 배경을 문학·사상적 배경과 사회·역사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의 첫 번째 절에서는 이 시기의 소설이 빈궁문제에 주목하게 된 문학·사상적 배경으로 서구의 다양한 사상·사조의 유입, 그 중에서도 사실주의의 유입과 프로문학의 등장을 주목하여, 그로 인한 우리 문학의 변화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한국 근대문학을 형성하는 데 있어 사실주의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사실주의에 더 큰 비중을 두어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 두 번째 절에서는 이 시기의 빈궁 문제가 작품에 반영된 사회·역사적 배경으로 3·1운동을 지목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허용되어 일어나게 된 변화를 문학사적인 측면에서 조명하여 3·1운동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일제 강점 이후 점차 보편화되었던 빈궁 문제를, 당시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와 사설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 시기의 빈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1920년대 문학작품에 수용되는 양상을 검토해보았다.

제3장에서는 김동인, 염상섭, 현진건, 최서해 작품에 나타난 빈궁의 양상을 개별 작품의 독자적 특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골드만(Lucien Goldmann)의 소설사회학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이론은 ‘구조발생론적 분석 방법’을

16) 김윤식(1976), 『한국현대문학사』, 일지사, p.71.



소설이라는 장르에 적용시켜 얻은 이론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가 말하는 ‘구조’란 인간과 관계된 사실들은 언제나 실제적, 이론적, 감성적 성격을 띠는 전체적 의미 구조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의 구조를 가리키며, 여기서 ‘발생론적’이란 그 구조가 사회학적으로 해명될 수 있다는 뜻을 지닌다.<sup>17)</sup> 골드만의 구조발생론적 분석에서 ‘인간과 관련된 사실을 다루는 전체적 의미구조(세계관)’가 사회학적으로 해명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그것과 사회 구조가 서로 대응 관계에 있거나 그렇게 인지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비록 이 같은 관계가 소설 분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난점이 있으나, 골드만은 이러한 한계를 수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즉 작품이 나타내는 세계관 대신 소설 작품을 구성하는 두 요소 즉 개인과 그를 둘러싼 세계가 맺는 구조와 자본주의 경제의 교환 구조 사이의 상동 관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바꾸어, 소설이라는 상상적 세계의 구조와 실제 사회 구조 사이에 상동관계 내지는 의미 있는 연관 관계가 발견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sup>18)</sup>

이 같은 이론적 바탕과 제2장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20년대 한국 사회와 문학 사이에는 뚜렷한 상동관계가 존재하고, 이 연구의 대상인 작품들이 모두 리얼리즘 계열에 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골드만의 소설사회학 이론은 이들 작품을 분석하는, 더욱 적절한 방법론이 될 수 있어 보인다. 특히 “시장을 위한 생산에서

17) Lucien Goldmann(1964), 『*The Hidden God*』, p.9. : 김성기(1984), 「1970년대 한국소설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일고찰」,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에서 재인용.

18) Lucien Goldmann(1977),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조경숙 역(1982), 청하, pp.35-36. 이와 관련하여 김성기는 위 논문에서 골드만이 작품을 작가 개인이 아닌 사회집단과 연관시키는 이유가 ‘작품과 집단 사이의 상동관계’를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고립된 개인만으로는 총체적으로 구조화된 하나의 세계관을 정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작가와 그가 속한 사회 집단을 사고의 제구조면에서 결합시키는 유기적 연결이 존재하며, 이러한 연결의 존재가 작품의 여러 요소와 그 총체 사이의 관계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작품과 집단 사이의 상동 관계 형성되는 이유가 ‘한 사회 집단의 정신 구조(세계관)’가 작가라는 집단적 주체에 의해 언어로써 작품에 표현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사회 집단은 하나의 구조화 과정을 형성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구성원들이 의식 속에 있는 어떤 종류의 감성적, 지성적, 실천적 경향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그들과 자연의 관계, 그들 상호 간의 인간관계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일관된 해답을 주려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한 사회 집단의 정신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을 창조하는 주체가 집단적 주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적 주체에 의해 생산된 작품을 분석할 때는 언제나 한 사회 집단과 연관을 지어야만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골드만의 문학사회학을 소설 분석에 적용하였을 때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골드만이 문제 삼은 유형의 소설에 있어, 작품 창조에 의한 ‘세계관’의 형상화 문제가 문학사회학 일반의 경우처럼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점이다. 소설에서는 의식적으로 옹호 받는 세계관이 부재하므로, 골드만의 소설사회학 이론은 작품이 나타내는 세계관이 아니라 소설 작품을 구성하는 두 요소, 즉 개인과 그를 둘러싼 세계가 맺는 구조와 자본주의 경제의 교환 구조 사이의 상동 관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같은 논문, pp.13-25 참조.

태어난 개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일상생활을 문학적 차원으로 바꿔놓은 것”<sup>19)</sup> 이 ‘소설의 형식’이라는 골드만의 정의에 따르면, 그의 방법론은 속화된 인물과 일상생활을 중시했던 근대 리얼리즘 소설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참다운 문학은 시대의 폭력과 사회의 타락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건강한 민중 생활과 올바른 역사 진행에 이바지해야 한다.”<sup>20)</sup>는 골드만의 이론적 지향점과, 민족 현실과 민족 문제 해결을 중시했던 1920년대 한국 작가들의 의식 사이에 상통하는 측면이 있음을 상기할 때, 그의 이론은 이들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이들 작품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골드만의 소설사회학 이론은 같은 시기, 같은 사회에서 생산된 이들 작품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론적 바탕이 되어주었다. 문학의 구조와 그 문학이 생산된 사회 구조 사이에 상동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1920년대 작품들이 보여주는 해당 사회의 구조적 측면은 이들 작품의 상호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드만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넓은 의미의 상호텍스트성 이론’으로 이들 작품의 상호관련성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상호텍스트성이란 바흐친(Mikhail Bakhtin)이 처음으로 제기한 대화주의를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와 켈러(Jonathan Culler)가 본격적으로 작품 간의 대화성 이론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존재하는 유기적 관련성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크리스테바와 켈러, 주네트(G rard Genette)의 상호텍스트성 이론을 바탕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sup>21)</sup>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의 분석은 위에서 제기한 작가들의 작품 분석 결과를

19) Lucien Goldmann(1975), 『Towards a Sociology of the Novel』, p.1. : 이선영 편(1990),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삼화사, p.72에서 재인용.

20) 같은 책, p.74에서 재인용.

21) 이와 관련하여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어느 한 담론이 화자(작가)나 청자(독자), 또는 다른 담론과 갖는 상호 관련성을 크게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로 나누어, 전자는 담론이 화자와 청자가 맺는 관계를 가리키고, 후자(後者)는 담론이 그 이전이나 동시대의 다른 담론과 맺는 관계를 가리킨다고 정의하였고, 이러한 담론의 수직적 관계를 가리키기 위해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한편 제라르 주네트는 이 개념을 크리스테바보다 좀 더 넓게 파악하여, 개별적인 텍스트보다는 그가 말하는 ‘원텍스트’, 즉 장르나 주제학처럼 개별적인 텍스트의 성격을 규정짓는 일련의 범주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통(通)텍스트성’의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 통텍스트성이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한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와 연결시켜주는 모든 관계를 지칭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을 지칭한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상호텍스트성은 한 텍스트가 속해 있는 문화의 맥락에서 그것을 이해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상호텍스트성을 파악하려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가 조너선 켈러이다. 김옥동(2008), 『포스트모더니즘』, 민



중심으로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피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과 사회를 동형 구조로 파악하는 반영론 중심의 연구이므로 작품 분석에 있어 구체화되어야 할 여러 측면들이 사소하게 다루어지거나 도외시된 면이 없지 않음은 이 연구가 지닌 분명한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폭 넓지 못한 연구 범위는 이 연구가 지닌 또 다른 약점 중 하나임을 부기해둔다.



---

음사, pp.179-211 참조.

## II. 빈궁 모티프의 수용 배경

1920년대 한국소설은 가난한 인물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며, 또한 그들의 궁핍하고 비참한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물론 이전 시기의 소설 역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다루고는 있으나,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못 가진 자'들은 대개 '가진 자'의 부덕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된 인물이거나 가난을 숭고한 미덕으로 초월하는, 청빈한 인물로 그려졌기 때문에, 이 시기의 작가들은 당대 궁핍한 현실을 작품 속 '문제적 현실'로 다루지 않았다.<sup>22)</sup> 결국 이전 시기의 소설에서 다룬 가난은 '못 가진 자'의 미덕과 정신적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일 뿐, 작중인물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삶의 조건으로 형상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 같은 문학의 작위성과 교훈성을 탈피하여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존중하고 그 현실과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자아의 모습을 실증적으로 그려내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문학이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민족 개념을 일깨워준 3·1운동과 서구의 다양한 사상·사조의 유입으로 당대 작가들이 민족 현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나타난 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제의 수탈 정책으로 대다수의 한국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되거나 토지로부터 분리된 현실은 서구에서 유입된 사실주의를 토착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sup>23)</sup> 이러한 다양한 계기들은 문학이 당대의 '궁핍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또 이 시기에 등장한 프로문학의 영향으로, 작가들은 자신이 소속된 계층을 뛰어넘어 사회적·민족적 차원에서 빈궁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에 실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1920년대 문학이 빈궁 문제를 수용하게 된 배

22) 1920년대 이전의 소설들은 교훈적인 성격이 강하였고, 작중인물과 배경 역시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했다. 특히 권선징악의 주제를 다루는 작품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이 선·악의 개념과 결부되어 나타나며, 어김없이 '가진 자'에 대한 '못 가진 자'의 승리로 귀결되기 마련이었다. 이재선(1982), 앞의 책, pp.223-224 참조.

23) 1920년대 식민지시대는 서구의 리얼리즘 문학이 성립될 수 있었던 제요건과는 이질적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착취와 궁핍화된 사회 현실의 반영을 통하여 한국적 리얼리즘의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신언철(1992), 「한국근대리얼리즘의 전개양상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0 참조.

경은 ① 3·1운동, ② 빈궁의 보편화 현상, ③ 사실주의의 유입, ④ 프로문학<sup>24)</sup>의 등장으로 간추려진다. 이 장에서는 다시 ①과 ②를 사회·역사적 배경, ③과 ④를 문학·사상적 배경으로 구분하여, 이 시기의 문학이 빈궁 문제를 수용하게 된 배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문학·사상적 배경

서구의 사상과 사조가 유입될 당시의 한국 사회는 그러한 사상이 성숙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시민사회가 형성되거나 자본주의, 실증주의, 자연과학 등이 발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궁핍화의 도정에 놓인, 한국의 기형적 상황은 이 시기에 유입된 사실주의와 사회주의 사상 및 그 문학 형식을 토착화시켰고, 그 사상과 문학이 1920년대는 물론 그 이후의 식민지 시대를 풍미하게 만들었다.

일제강점의, 기형적 민족 현실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는 극히 드물었다. 당대 작가들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이들의 문학적 관심은 자연히 절박한 시대현실에 집중되었고, 그것의 작품화를 시대의 요구이자 작가의 사명으로 여겼던 그들의 의식 세계는 필연적으로 사실주의, 사회주의 문학과 접맥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25)</sup> 이에 따라 이 시기의 문학은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빈궁의 참상을 고발하고 이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24) 프로문학은 사회주의문학의 일종으로, 여기서 사회주의문학이란 사회주의에 의한 인간해방 운동을 내세우고 사회주의의 도래를 추구하는 문학 전체를 가리킨다. 이를 한국문학사에 적용하면, 1920년대 초의 '민중예술', 1923년경부터 1937~8년경까지 한국문단을 풍미했던 '경향문학', '프롤레타리아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해방 직후의 '좌익문학', 4·19 이후의 '리얼리즘론'이나 '참여문학론', 그리고 1980년대에 등장한 '민중문학', '노동문학' 등이 대체로 사회주의문학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것은 문학의 극단적 개성 추구로 인해 공적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인간의 감정을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에서 오는 개인의 비탄과 절규, 허무와 염세를 부정하며, 그로 인한 현실 변혁 에너지의 상실과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것을 찬양하는 태도를 거부한다. 반면에 문학의 공적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여 당대 사회와 현실의 참모습을 제시하고 사회 개혁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역동적인 문학을 추구한다. 이러한 사회주의문학의 일반적인 특성은 한국 프로문학의 지향 및 특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장사익 외(1996), 『문예사조』, 새문사, pp.146-149 참조. 김윤식·정호웅(2008),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pp.123-127 참조.

25) 조진기(1989), 『한국근대리얼리즘소설 연구』, 새문사, pp.66-71 참조.

즉 암담한 민족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던, 이 시기의 작가들이 그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사실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빈궁 문학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이 시기의 문학이 빈궁 문제에 주목하게 된 배경을 사실주의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실주의는 일상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문학 사상 및 방법을 가리킨다. 특히 문예사조로서의 사실주의는 아우얼바하(E. Auerbach)가 지적한 대로, 일상적 현실을 심각하게 다루고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의 넓은 인간 집단의 삶을 자주 그린다.<sup>26)</sup> 이러한 까닭에 이 시기의 사실주의 문학은 전인구의 7, 8할이 세궁민이었던 민족 현실, 즉 경험적 일상 세계 속에서 유력한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은 빈궁 문제를 배제하고는 성립될 수 없었던 것이다. 1923년 동아일보에 실린 다음의 사설과, 염상섭의 소론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A) 문사야 예술가야, 빈민의 문학을 지을지어다. 빈민의 예술을 지을지어다. 조선이 빈민의 나라니 조선의 문학 예술은 빈민의 것이라야 할 것이다. 특별히 농민의 것이라야 할 것이다. 어려운 문학, 값비싼 예술은 빈민국 농민국인 조선에서는 감상할 사람이 없다. …… 이 천재의 일단은 이미 시대의 부르는 간절한 소리를 들었을 것이요, 민족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자각하였을 것이다.

조선의 인민들이 진실로 '민족의 구제'를 목표로 마음을 합하자, 새로운 결심을 하자. 傳導者들아, 의사들아, 교사들아, 학자, 사상가야, 문사야, 예술가야, 빈민에게로 가서 영의 위안이라도 주고 그들의 고통을 감하고 민족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다하자.<sup>27)</sup>

(B) 나는 다만 행(幸)이던 불행이던 조선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좋아도 조선의 생활, 조선인의 감각을 떠나서 조작되는 조선인의 예술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노력이 아닌 일체의 노력의 가치를 거절할 따름이다. 자기 민족이 처한 시대, 자기 환경,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감정, 호소, 희망을 떠나서 세계적일 수도 없고 인생을 위한 것일 수도 없으며, 심하게는 예술적인 가능성도 없을 것이다.<sup>28)</sup>

(C) 문학은 현실 생활을 반영하며 개성, 감정 및 천성적 개성까지도 현실생활과 생활의 퇴적인 전통에 따라서 좌우되고 변화한다. …… 자연주의나 사실주의에서 객관을 주상(主尙)하는 것은 작가의 의식적 태도에 그치는 것이요, 어떠한 작품이든지 작가의 생활과 및 작가의 생활을 조직하고 지배하는 시대정신과 생활감각 및 생활의식이라는 액즙

26) 장사익 외(1996), 앞의 책, p.124 참조.

27) “빈민에게로 가라”, 《동아일보》 1923. 10. 26 : 임종국(1991), 앞의 책, p.77에서 재인용.

28) 염상섭, “時調에 關하여”, 《조선일보》 1926. 10. 6 : 조진기(1989), 앞의 책, p.67에서 재인용.

으로 반증되지 않은 것이 없다.<sup>29)</sup>

여기서 사실 (A)는 이 시기 작가들이 보인 ‘빈궁에 대한 관심과 그것의 표현으로서의 빈궁 문학’이 ‘조선은 빈민국’이며 ‘우리 민족은 빈민’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이 시기의 ‘빈궁’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삶의 보편적 양식으로 파악하거나 개인의 내적 특성에서 비롯된 환경적 조건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적·역사적·민족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는 빈민에 대한 지식인의 관심을 ‘민족에 대한 거룩한 책임’, ‘민족 구제를 위한 거룩한 사명’으로 규정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이 시기에 심각한 민족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던 빈궁 문제는 ‘민족의 현실과 운명에 관심을 가진 작가’가 외면할 수 없었던, 실존하는 세계 속 유력한 삶의 양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민족에 대한 자각과 관심’은 ‘빈궁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전이·확장될 수 있었다.

이 시기 작가들의 민족적 자각이 사실주의 문학으로 귀결되는 과정은 염상섭의 평론 (B), (C)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서 그 일단을 짐작해볼 수 있다. 염상섭은 (B)에서 ‘조선의 생활, 조선인의 감각을 떠나서 조작되는 예술의 존재를 부정’하며, ‘자기 민족이 처한 시대, 환경, 호소, 희망을 떠’난 작품은 인생을 위한 것일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민족의식과 시대 현실을 중시했던 그의 의식은 사실주의로 이어지는데, (C)는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염상섭은 (C)에서 “문학은 현실 생활을 반영하며 개성, 감성 및 천성적 개성까지도 현실생활과 생활의 퇴적인 전통에 따라서 좌우되고 변화한다.”<sup>30)</sup>고 전제한 뒤에, 지금의 시대정신과 민족 현실을 표현하는 문학 방법으로 사실주의를 선택하게 된 것임을 설명해주고 있다. 즉 ‘민족에 대한 자각과 관심’이 ‘사실주의의 수용’으로 이어지게 된 것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위의 사실과 평론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민족 현실에 대한 자각과 관심’이 식민지 문인들의 작가적 고심과 의식적 선택의 결과 ‘빈궁에 대한 관심’과 ‘사실주의의 수용’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요인들의 상관관계 속에서 ‘빈궁 문학’이 등장

29) 염상섭, “文藝와 生活”, 《조선문단》 1927. 2 : 조진기(1989), 앞의 책, p.87에서 재인용.

30) 같은 책, 같은 면에서 재인용.



할 수 있었던 것임을 확인해볼 수 있다.

한편 사실주의의 수용과 우리 문학의 변화를 연구한 이재선과 이강언은 앞의 두 요인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하며, 사실주의의 수용 결과 이 시기의 문학적 관심이 빈궁 문제에 집중될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재선은 사실주의가 수용된 이후 우리 소설이 삶과 가치에 대한 인식 방법, 소설의 수사학에 있어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되었고, 이를 여섯 개의 항목으로 간추려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그 두 번째 항목은 이 시기의 문학이 사실주의와의 관련 속에서 빈궁 문제에 천착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둘째, 작가의 현실적인 경험 공간인 당대의 사회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조성되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의식의 일상적인 삶에의 집중화는 중산층 이하의 삶의 특성이 되어 있는 경제적인 궁핍 현상에 대해서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으며 더구나 植民地政策의 경제적인 수탈에 의한 한국 사람 전체의 경제적인 피폐화와 정착의 뿌리를 뽑힌 삶의 水平的인 移動을 놓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이 시기의 소설은 거의 대부분 경제적 요인에 의한 가난의 상태와 故鄉喪失의 移民 현상과 같은 현실의 당면 문제들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굶주림>과 原點인 고향으로부터의 <떠나감>의 길이 주요한 근본 문제의 하나로서 제기되었던 것이다.<sup>31)</sup>

위 인용문은 이 시기의 문학이 ‘경험적 현실 공간과 하부 계층의 일상을 중시하는 사실주의’의 영향으로, 사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중산층 이하의 삶에 주목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문학 사상의 여파로 우리 민족의 ‘경제적 피폐화’와 그로 인한 병리 현상이 작품에 수용될 수 있었던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이재선은 빈궁 문학을 ‘사실주의의 수용 결과 나타나게 된, 이 시기의 지배적 문학 현상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주의가 문학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는 이강언 역시 이재선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sup>32)</sup> 그는 사실주의 문학을 ① 소재를 다루는 데 있어 과장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현실 상황 그대로를 반영하며, ② 인물의 계층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하층부를 벗어나지 않고, ③ 그들의 일상을 중심으로 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이라 정의하였다. 아울러 그는 1920년에서 30년대에 이르는 동안의 우리 사회에서 이 땅의 모든 민족 자본을 탄압하고 착취했던 일제의 수탈

31) 이재선·조동일(1995), 『한국현대소설작품론』, 문장, p.21.

32) 이강언(1983), 『한국근대소설논고』, 형설출판사, pp.18-20 참조.

로 인해 극심한 민족적 곤경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실을 정당하게 파악하지 않은 작품은 진정한 사실주의 문학일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이재선과 이강언은 사실주의 수용 이후 우리 문학이 빈궁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민족 현실을 형상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던 사실주의가 ‘하부 계층의 일상’을 중시하는 문학 사상이었던 만큼, 이 시기의 빈궁 문제를 외면하거나 배제할 수 없었고 그 결과 빈궁 문학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빈궁에 대한 관심’이 먼저냐 ‘사실주의의 수용’이 먼저냐 하는 시간적 선후 관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빈궁한 현실 조건’과 ‘사실주의’ 사이의 긴밀한 상관관계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지 않아도 ‘빈궁 문학’은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며, 그 상관관계 속에서 이 시기의 ‘빈궁 문학’이 성숙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든 서구의 사실주의가 식민 사회의 기형적 민족 현실을 형상화하려 했던 당대 작가들의 요구 속에서 토착화되었으며, 이 시기의 문학이 빈궁 문제에 천착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실주의 문학은 1924년을 전후하여 사회주의 사상 또는 마르크스주의 미학과 관련된 특수한 리얼리즘의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sup>33)</sup> 이른바 ‘프로문학’이 등장한 것이다. 프로문학의 특성은 최서해의 「기아와 살육」, 김기진의 「붉은 쥐」와 같은 일련의 작품을 평가하며 이들의 작품을 ‘신경향과 문학’이라고 명명한 박영희의 평론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그는 이들의 작품이 유탕(遊蕩)과 인간의 정서 지상, 압박과 착취적 기분을 떠나 ‘생활과 사색, 해방과 민중’으로 나오는 새로운 경향을 지녔으며, 그 주인공은 ‘새 사회를 동경하는 개척자’로 ‘무산적 조선을 해방하려는 의지’의 백열(白熱)을 보여주는 인물들이라 평가한 바 있다.<sup>34)</sup> 신경향과 문학을 포괄하는 개념이 프로문학임을 전제할 때, 프로문학은 현실개혁, 즉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했던 문학임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문학의 등장은 그 동안 지식인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피상적으로 재현하는 데 머물렀던 빈궁 문학에도 영향을 미친다. 프로문학 이전의 빈

33) 이재선·조동일(1995), 앞의 책, p.22 참조.

34) 김윤식·정호웅(2008), 앞의 책, pp.123-124.



궁 문학은 ‘빈궁’을 제재로 다루면서도 작가가 속한 계층의 가난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그들의 시각에서 하층민의 삶을 동정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사실주의의 객관적 태도가 작품에 구현되는 것을 방해하고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데 실패했던 것이다. 그러나 프로문학 이후 그것은 “식민지적 착취와 사회구조에 내재하는 경제적 모순”<sup>35)</sup>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이러한 상황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민족적 차원의 ‘빈궁 문제’를 다루는, 진정한 현실 재현의 문학, 현실 변혁의 문학으로 성숙될 수 있었다.<sup>36)</sup>

## 2. 사회·역사적 배경

이제까지 1920년대 문학이 빈궁 문제를 수용하게 된 문학·사상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그것의 사회·역사적 요인으로 ‘3·1운동’과 ‘궁핍한 민족 현실’을 들고, 이러한 요인들이 당시 빈궁 문학의 형성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섰던, 적극적으로 고도 조직적인 시위 형태의 봉기이자 투쟁으로, 경술국치 이래 일제의 식민지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에서 점차 누적되어 온 사회 전반의 구조적 모순과 일제 독점 자본의 이식과정에 저항하며 일어난 민족운동이다.<sup>37)</sup> 실제로 일제의 가혹한 수탈

35) 이재선(1982), 앞의 책, p.222.

36) 비록 식민 지배 체제의 완비로 인해 중간층의 역사 추동력이 상실되고, 3·1운동의 실패로 허무주의가 민족적 차원에서 만연하게 됨으로써 활기를 잃고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대적 요청에서 현실 타개와 현실변혁의 문학인 프로문학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문학이 그 이후의 한국문학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친 것은 아니다. 프로문학 진영에 속한 작가들 역시 당대 사회의 현실 문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계급의식에 선협하여 그것을 인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들이 비판했던 문학과 마찬가지로 매우 주관적이었으며, 이념에 경도되어 도식성을 천편일률적으로 노출하였던 것이다. 즉 제재를 다루고 사건을 구성하는 데 있어 현실 그대로를 반영하기보다는 제재를 과장하거나 미화하고, 현실과 흡사하게 사건을 구성한다면 살인과 방화와 같은, 인물의 극단적 행위가 빈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주 노출하였으며, 갈등 관계를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도 빈부의 대립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 치환될 수 있게 제시함으로써 현실 그대로를 반영한 결과가 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현실의 변혁을 이끌어내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현하려는 목적에 치우쳤던 까닭에, 인물의 성격 발전을 ‘살아있는 생생한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간접화법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작가의 진단적 설명에 의존하여 제시한 점은, 관념보다는 현실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중요시했던 프로문학의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강언(1983), 앞의 글, pp.20-22 참조. 장사익 외(1996), 앞의 글, pp.146-151 참조.

에 기인한 민중들의 반일(反日) 운동은 1910년대부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민족적 차원으로 결집시킬 만한 지도력과 사상적 기반의 부재로, 이 시기의 반일 운동은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봉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sup>38)</sup> 이와 달리 3·1운동은 ‘민족주의’라는 공동의 정신적 기반을 바탕으로, 민족운동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하게 된다.

이렇듯 민족적 차원에서 거행된 3·1운동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주지하다시피 3·1운동은 일제의 식민 통치 방향을 문화 정치로 전환시키고, 진일보한 형태의 민족 운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제한적이거나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획득함으로써 민족을 대변하는 언론 기관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언론, 출판의 자유는 다양한 동인지와 그것을 기반으로 전문 작가 집단이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신문화 운동과 신생활 운동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3·1운동이 신문화·신생활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당대 문학인들 역시 인정했던 사실이다. 동인지 시대를 개척한 『창조』의 김동인은 ‘기미운동이 일어난 해는 조선에 있어서 온갖 방면으로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눈 것 같이 문학운동에 있어서도 기미년 전의 것은 과도기적인 것인데 반하여, 기미년부터는 구체적인 발전과정에 들어설 수 있었다’<sup>39)</sup>고 언급함으로써, 3·1운동이 신문화 운동 중에서도 신문학운동의 계기가 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폐허』의 염상섭은 ‘기미동요는 민족의식, 사회의식, 개인의식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큰 충동을 주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중심으로 문학상에 새로운 기축,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바이므로, 기미년을 조선 문예부흥의 기점으로 잡는 것은 당연한 견해’<sup>40)</sup>라고 표명한 바 있어, 김동인의 입장과 다르지 않음

37) 윤병로(1991), 『한국 근·현대 문학사』, 명문당, pp.96-97 참조.

38) 다음은 1910년대에 일어난 민중 주체의 반일 운동을 대략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로 박순애(2001), 「1920년대 전반기 소설의 현실 인식 방법 연구」, 명지대 박사학위논문, p.20에서 재인용. 1910년대 일제지배하의 한국사회에서는 농민층의 몰락, 노동계층의 증대, 자본가층의 성장 억제 등 계급구조의 변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각계각층에서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東拓과 일본인 대지주의 토지집적과 총독부의 강제적인 육지면·桑苗재배, 도로부역, 산림 약탈 정책 등에 반발하여 1914년 황주흥업회사 소작농민들의 폭동 기도, 삼척 원덕면 농민폭동, 1918년 남원 금지면 농민폭동, 문천 운림면 농민의 현병분견소 습격 등으로 항거하였다.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비인간적인 대우, 민족적 차별에 반발하여, 1918년에는 한국인 노동자 4,400여 명이 참여한 50건의 파업을 일으켰다. 이와 같이 1910년대 말 국내에서는 민중들의 반일운동 기운이 성숙하고 있었다.

39) 김동인(1980), 「춘원연구」, 『김동인평론전집』, 김치홍 편, 삼영사, p.109.

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렇듯 3·1운동으로 인해 가속화된, 사회다방면에 걸친 변화는 현실세계와 어 떤 방식으로든지 유기적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문학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즉 당대 문학인으로 하여금 ‘민족’과 ‘민족현실’을 발견하게 만들고, 이것 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자아’를 인식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각은 작가가 속한 집단이나 계층의 현실을 넘어서,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민족의 진로를 탐색하려는 작가의식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이 시기의 작가들은 민족적인 차원으로 보편화되어가는 빈궁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궁핍한 민족현실을 자각하게 된 문인들의 눈에 비친, 당대 한국 사회는 ‘문화 통치’라는 허울 좋은 이름과는 다르게, 식민지 근대화의 진행과 일제의 수탈로 더욱 피폐해지고 있었고, 이 시기의 우리 민족은 궁민화의 도정에 놓여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다.<sup>41)</sup> 한반도를 일제의 식민지로 재편하려는 계획은 특히 농촌의 토지 수탈과 식량 수탈을 바탕으로 본격화되었는데, 1910년대부터 실시된 토지조사 사업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경작권을 빼앗으려는 일제의 술책에 지나지 않았고, 1920년부터 실시된 산미증식계획은 한반도의 식량을 강탈하여 일본의 식량난을 해결하려는 계획에 불과했다. 이 시기의 한국 사회가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었고, 우리 민족의 대다수가 농민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일제의 수탈이 얼마나 악랄한 것이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 말엽의 조선인 농가의 호당평균 수전(水田) 경작면적은 총독부 통계에 의

40) 염상섭(1930), 「문단 10년, 『별건곤』」, p.122 : 임규찬(1998), 『한국근대소설의 이념과 체계』, 태 학사, p.122에서 재인용.

41) 김윤식은 한국인의 궁민화 현상을 “토지수용-동양척식주식회사-식량 수탈-고리채” 등의 과정을 밟아 행 해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인 사학자 야마베(山邊健太郎)의 다음과 같은 기록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좋 은 자료가 되어준다. 야마베는 일제의 수탈은 한국인을 궁핍화의 도정에 놓이게 하였음을 지적하며, 그것 을 전직 조선 총독부의 재무국장과의 담화로써 설명한 바 있다. 전 총독부 재무국장은 동척이 한국인의 토지를 빼앗는 과정을 “동척은 일반 은행처럼은 예금을 안하는 금융기관이에요. 따라서 대출을 할 때는 저당을 잡는데, 토지 외에는 없거든요……그래서 토지를 저당 잡는다, 조선인은 (재산이 없으니) 돈을 갚 는 법이 없어, 허니 유저당(流抵當)으로 모두 동척으로 들어가요……아무튼 엄청난 토지를 돈을 빌려주고 빼앗았어요.”라는 말로 술회한 바 있다. 또한 야마베는 일본인 이민자들도 매매 거래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예는 매우 드물었고, 그 과정에 ‘시계를 조작하여 저당 잡힌 땅을 유저당으로 처리하거나 총과 망 원경을 들고 일본인 관리 행세를 하는 등의 알팍한 술수나 파렴치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였음을 지적하 였다. 큰 따옴표 부분은 山邊健太郎, 『日本統治下の朝鮮』, p.28. : 임종국(1991), 앞의 책, p.115에서 재 인용. 일제의 수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책을 참고할 것. 홍이섭 외(1969), 「암흑의 시 대」, 『한국현대사』 제4권, 신구문화사. 김문식 외(1971), 『일제의 경제침탈사』, 민중서관.

할 때 7단(1段은 약 300평, 인용자 주)이었다. 반면에 일본인은 개인경영이 3정보(1 정보는 약 3000평, 인용자 주), 동척(東拓) 이민이 2.6정보로 이 둘을 합친 평균 경작 면적이 2.8정보이다. 일본인 농가 1호가 조선 농가 4호 몫을 경작했던 것인데, 일본인 재선(在鮮) 농업인구는 1910년도 1,132호가 1930년도에는 10,550호로 증가했다. 이 연평균 471호의 증가세는 호당 4호 몫을 경작한다고 칠 때, 이 한 가지에 의해서만 매년 조선 농가 1,884호의 실업 요인을 발생시키는 것이다.<sup>42)</sup>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농가의 경작지가 일본인들이 경작하는 면적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는 ‘한국 농가의 몰락’과 ‘우리 민족의 실직 문제’로 이어져 민족적 차원의 궁핍화를 야기하는 결정적 동인이 된다. 그러나 일제의 수탈은 경작지와 임야, 미곡 수탈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면에서 가속화되었고, 일제는 이러한 수탈 정책을 바탕으로 농촌에 이어 도시까지 한반도 전체를 일제의 식민지로 급속하게 재편해 나간다.

1928년도 공업생산은 일본인 298,176,426원, 이 해의 일본인 호수 122,773호로, 매호당 2,426원 80전이 평균이다. 반면에 조선인 공업생산은 90,051,929원, 이것을 1926년의 호수(조선인) 3,483,779호로 나누면, 매호당 25원 84전이다. 공업생산에 있어서 일본인은 조선인의 부려 94배의 부(副)를 소유했다. 재선(在鮮) 일본인은 1910년 50,992호가 1930년 122,773호로, 연평균 3,589호가 증가했다. 이들은 가장 낮은 배율(倍率)인 농업생산 4호 몫 경작으로 따져서, 조선인 매년 14,356호의 실직요인이 되는 것이다.<sup>43)</sup>

이렇듯 식민지 한국 사회에서 산출된 부(富)는 일본인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며, 우리 민족을 생계 수단으로부터 유리시켜 “일가이산(一家離散, 가정의 파탄)으로, 결식으로, 도시의 실직으로, 잠재실직군(潛在失職群)”으로 몰락하게 하거나 “간도와 일본 등지로 축출”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하였다.<sup>44)</sup> 이 같은 일제의 극심한 수탈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다음에 제시된 신문 사설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A) 최근 조선인은 「우리들은 죽을 밖에는 길이 없다.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을 거의 유행어와 같이 입에 담은 것을 본다. …… 그렇다, 「다 죽는 것밖에 없

42) 임종국(1991), 앞의 책, p.67.

43) 같은 책, p.68.

44) 큰따옴표 부분은 홍이섭(1983), 「1920년대의 식민지적 현실」, 『한국정신사서설』, 연세대학교출판부, pp.105-106.



다」는 말은 다만 말뿐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의 실제현상으로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땅에서 살 수 없음을 알고 이 고장에서 죽을 길로 가는 사람의 수가 느는 반면 이곳을 떠나는 것은 무슨 방법이 서지 않을까 해서, 남으로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고 북으로 강을 건너 남·북만주와, 노령(러시아, 인룡자 주)으로 건너가는 사람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들이 삶의 세상으로 다시 나오지 못할 죽음의 길로 향하는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고, 농촌국의 보수성을 띤 농민들이 고토(故土)를 떠나는 그 용기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과연 조선에 있어 조선인은 사실 이대로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조선에서 살 수 없는 그들이 보장 없는 외지에서 어떻게 좀 더 나은 생을 바랄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 남아 죽음의 길을 택하는 사람과 그리 다를 바가 없다. 불쌍한 사람들이다.<sup>45)</sup> (밑줄은 인용자, 이하 같음)

(B) 나날이 닥쳐오는 생활난으로 만주의 광야를 향하여 북으로 북으로 멀리 축출되는 백의민족의 무리가 해를 따라 증가된다. 올해에도 가을 이후 경기도 양평을 비롯하여, 강원도의 각처에서 이주하는 사람이 다수이었음은 누보(屢報)하였지만, 그들은 고국에서도 명(命)을 이룰 수 없으므로, 산천풍속이 다른 저 이역에서 활로를 찾기 위하여 서북간도로 향하는 도중, 혹열(酷烈)한 대륙의 한풍(寒風)에 무참히도 동사(凍死)하는 비절(悲絶)한 일이 누누이 있다. 9월에도 강원도에 원적(原籍)을 둔 김 모(某)는 처와 어린애 셋을 데리고 간도로 가는 길에 회령의 대안(對岸) 대령(大嶺)을 넘어 용정촌으로 가는 도중 어린애 셋은 다 얼어 죽고, 부부도 전신이 얼어 쓰러진 것을 국자가(局子街)의 동포들이 발견하여 급히 구조중이라고 한다.<sup>46)</sup>

(C) 동사(凍死)란 조금도 기현상이 아니니, 날은 춥고 의식주만 없으면 아무나 동사할 수 있고, 동사하면 강시(僵屍)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다. 금년 겨울은 아직도 멀었다. 소한 대한이 이 앞에 있으니, 40명(1926년 12월 한 달 동안 경기도 관내에서 실제 동사(凍死)한 사람의 수효로, 동사자는 모두 조선인이었다. 인룡자 주)의 몇 배의 강시(僵屍)가 휘황한 전등 밑 탄탄한 대로상에 넘어져서, 조선의 문화정치를 조소할 것이다.<sup>47)</sup>

(D) 이전에 러시아에서 전국에 대기근이 들었을 때 일반 백성들은 나무 뿌리를 캐어 먹다 못하여 그것조차 없어지니 그제는 사람의 고기를 먹기 시작하였다더니, 근래에 이르러 우리 조선에도 이와 비슷한 참절비절한 현상이 있다. 그것은 대구(大邱) 등 삼남(三南) 등지의 일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를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혹은 남종으로 청루(靑樓)로 팔아 먹는 일인데, 지금 시내 서대문서에 체포되어 취조를 받고 있는 중국인 인육 매매상 남운기(南雲起)의 입으로 여기에 대한 두려운 사실이 폭로되었다. 그자의 말을 들으면 자기네는 얼마 전부터 조선에 큰 기근……을 기화로 자기네 나라 마적 출신의 동무들 십여 명이 패를 짜서 아녀자의 국외 밀수출을 계획한 것인데…… 우선 서울 태평정(太平町)에 본거지를 두고 대구와 인천, 평양 삼개소에 지부를 두어 날마다 그 부원들이 혹은 옷감 파는 행상 모양으로 또는 나물장수(野菜商人)로 변장하고 그 부근 촌가를 돌아다니면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을 찾아서 자기네는 좋은 사람들

45) 이는 1926년 7월 18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참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로, 홍이섭의 앞의 책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홍이섭(1983), 위의 책, pp.106-107.

46) 이는 1926년 12월 22일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로, 같은 책, p.108에서 재인용.

47) 이는 동아일보에 1926년 12월 31일에 실린 사설로, 임종국(1991), 앞의 책, p.153에서 재인용.

이니 우리에게 어린 딸을 맡기면 잘 길러 주겠다고 교묘한 말씨로 꼬여서 그 자리에  
돈 십원이고 또는 가지고 왔던 물품을 주고 데려가는데……데려다가 인천 치소를 거쳐  
중국에도 색향으로 유명한 소주(蘇州)·항주(杭州)·상해 등지의 청루에 팔아먹는 것인  
데, 금년 치고도 이 흉악한 손에 걸린 아녀자는 벌써 수십 명에 달한다 하며……48)

(E) 염천교(鹽川橋)에 이르러 보라. 경의선 기차길을 따라 흐르는 합동(蛤洞)개천의 조  
악돌 언덕 위에 울퉁불퉁한 거적자리의 움집이 열 군데가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땅  
속에서 살아가는 합동의 빈민굴(貧民窟)이라, 큰 집은 장방형(長方形)으로, 작은 집은  
원형(圓形)으로, 석 자나 넉 자 길이의 땅 속을 파고, 그 위에 마른 잔디나 풀어진 떡  
서리를 깔아놓았으니, 이것이 그들의 누워 자고 앉아 노는 안방 건넌방 마루를 겹쳐  
지은 이름 모를 방이다. 그 우에는 나뭇가지를 인(人)자 모양으로 걸어 놓고, 찢어진  
장판과 떨어진 돛자리 떡서리 등을 합부로 주워다가 되는 대로 붙여서 지붕이라고 만  
들어 놓았다. 채광(採光)의 방편과 공기의 유통 등은 그네에게는 문제도 아니요, 오직  
들고 나고 할 구멍 하나만 있으면 그만이라, 손바닥만한 앞뜰 뒤뜰은 그네의 자유로운  
변소(便所)인 동시에……49)

(F) 황해도 해주군 조운면의 산간(山間)에서 화전(火田)경작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왔으  
나……양가족(兩家族) 9명은 3년전부터 시행된 화전금지령에 의해 돌연히 생도(生途)  
를 박탈당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연명할 수 있는 방도가 없으므로, 부득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정처 없이 유랑의 길을 떠나 도보(徒步)로 안주역(安州驛)에 이르러 동아일보  
안주지국장의 소개를 얻어 간도 흥경역(興京驛)으로 향하였다.50)

(A)~(F)는 1920년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으로, 이 당시 우  
리 민족의 비참한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사실 (A)  
는 생존을 위협 받게 된 우리 민족의 상황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주 문제 사  
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B)는 이주의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치러야 했던 수난  
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이주가 생사를 건, 적극적인 삶의 한 양식이었음을 보  
여준다. (C)는 다가올 추위로, 이미 얼어 죽은 인원수의 몇 배나 되는 동사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이러한 민족의 수난이 일제 식민 통치와 무관하지 않음을  
'40명의 몇 배의 강사가 조선의 문화정치를 조소할 것이다'라는 말로 암시해주고  
있다. 사실 (D)는 한국인의 국외유출 문제와 인간성 상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고, (E)는 빈민굴에서 생활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  
며, 기사 (F)는 일제의 삼림령으로 극빈자의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는 화전조차

48) 이는 1924년 11월 26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사설로, 임종국(1991), 앞의 책, pp.74-75에서 재인용.

49) 이는 1923년 5월 10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死線에 접한 생활」 기사로, 같은 책, p.154에서 재인용.

50) 동아일보 1927년 4월 26일자 기사로, 홍이섭(1983), 앞의 책, p.108에서 재인용.

허용되지 않았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합법을 가장한 일제의 수탈로 인해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삶의 공간을 잃고 타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사정(A, B, F)과 화전조차 경작할 수 없게 된 상황(F)은 식민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빈궁의 문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유랑의 삶을 간신히 면하여 고국에 머무를 수 있었던 이들도 유랑민의 신세보다 나은 것은 없었다. 마구간이나 다름이 없는 토막에서 최소한의 세간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짐승처럼 살다가(E), 극도의 추위나 주름을 견디지 못할 때에는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C). 특히 남의 아녀자를 피어 유곽에 팔아넘기는 것은 물론 자신의 혈육까지 물질과 맞바꿔버리는 인신매매가 횡행하는 현실은 한국인의 인간성 상실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D).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수탈과 내부의 붕괴’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민족적 참상의 배후에 ‘일제의 식민 통치’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며(C), 이 같은 문제가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 기간 동안 날로 우심해졌다는 사실이다. ‘매일 신문의 지면에 나타나는 사실을 보면 기사 중의 7, 8할은 모두 다 생활의 고민과 생활의 비애’라고 지적하고 있는 다음의 기사는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

근자에 조선 사람의 생활 상태를 보면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매일 신문 지면에 나타나는 사실을 보면 기사 중의 7, 8할은 모두 다 생활의 고민과 생활의 비애에 침통하는 광경뿐이니…… 만면(滿面)한 기사가 절인에 관한 것이 아니면 ‘재산차압’, ‘파산’, ‘아사(餓死), 동사에 관한 것이요, 또한 그렇지 않으면 생활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과 강도 절도에 관한 것이며, 또는 기한(飢寒)에 군박(窘迫)된 바 되어 자기의 처자나 자녀를 마굴(魔窟)에 방매(放賣)하는 기사들이 아닌가.<sup>51)</sup>

이와 관련하여 임종국은 1924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동아일보에 실린, 86건의 사설을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사설 게재 빈도수를 조사하였다.<sup>52)</sup> 조사 결과, 중국의 평즈전쟁으로 인해 국제정치 관계 기사가 많이 쓰일 수

51) 이는 1924년 12월 29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이 현상을 어떻게 구제할까」라는 제목의 사설로, 임종국 (1991), 앞의 책, pp.75-76에서 재인용.

52) 동아일보에 취급된 사설을 분류하여 게재 빈도수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같은 책, p.76에서 재인용.



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신문지상에 ‘빈궁 문제’와 관련된 사설이 가장 많이 실렸음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사설과 기사, 통계 조사가 입증하듯,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 1920년대는 “식민지적 수탈 구조가 거의 완성되었던 시기”<sup>53)</sup>이자, 우리 민족이 “급속한 궁핍화의 내리막길로 곤두박질치고 있”<sup>54)</sup>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던 것이다.

이러한 민족현실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시기의 한국 문학이 당대 사회의 빈궁 문제를 작품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자기 민족이 처한 시대와 환경, 사상, 감정, 호소, 희망을 떠난 문학은 인생을 위한 것일 수도 없고 심하게는 예술적 가능성도 갖추지 못한 것’<sup>55)</sup>이라고 한 바 있는 염상섭과 ‘조선문학은 조선의 땅을 든든히 디디고 있어야 하며, 우리 문학의 운명은 작가가 자기 주위를 관조하고 고요하게 제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것’<sup>56)</sup>임을 선언한 현진건의 사설은 이 시기의 작가들이 당대 민족현실과 문학의 사명에 대해 골몰하고 있었음을 방증해준다.

또한 앞의 (A)~(F)의 사설 내용이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작가의 작품 속에 수렴되어 나타난다는 점은 이 시기 대부분의 작가들이 당대 현실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것을 작품화하는 데 주력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즉 빈민굴과 움집의 실상을 다루고 있는 기사 (E)의 내용은 김동인의 「감자」와 최서해의 「큰물진 뒤」에서 나타나고 있고, 한국인의 이주 문제를 다루고 있는 (A), (B), (F)의 사설은 현진건의 「고향」과 최서해의 「탈출기」, 「홍염」과 같은 작품에서 형상화되고 있다. 염상섭의 「만세전」에서는 한국인의 국외유출 문제와,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설 (D)의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고, 흑한의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는 한국인의 수효가 늘어만 가는 민족 현실은 김동인의 「눈보라」에 수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듯 1920년대 ‘한국인의 궁민화 현상(김윤식·김현)’과 ‘빈궁의 민족적 보편

① 국제정치 관계 33건(38.4%)      ② 빈궁·기아 문제 18건(20.9%)      ③ 정치 문제 15건(17.4%)  
 ④ 문화·거사(擧事) 문제 9건(10.5%)      ⑤ 사회 문제 7건(8.1%)      ⑥ 소작 문제 4건(4.7%)

53) 김윤식·정호웅(2008), 앞의 책, p.126.

54) 같은 책 p.126.

55) 염상섭, “時調에 關하여”, 《조선일보》 1926. 10. 6 : 조진기(1989), 앞의 책, p.67에서 재인용.

56) 현진건(1926), “朝鮮魂과 時代精神의 파악”, 「개벽」 제65권, pp.134-135. : 같은 책, p.68에서 재인용.

화 과정(임종국)'은 이 시기의 문학이 빈궁 문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동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문학과 사회 사이의 상동관계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 Ⅲ. 빈궁 모티프의 수용 양상

이제까지 1920년대 문학이 당대 사회의 빈궁 문제에 천착하게 된 배경을 살펴 보았다. 3·1운동 이후 민족 개념과 민족 현실을 발견하게 된 작가의 의식이 빈궁한 시대 현실은 물론 사실주의 문학 사상과 접맥되면서, 이 시기의 문학은 빈궁 문제를 하나의 모티프로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 시기에 수용된 사회주의 문학 사상은 ‘유산 유식계급이나 무산 유식계급을 취급’하던 당시의 작품에 ‘무산 무식계급’의 삶을 주된 소재로 부각시키고, 당대의 문학이 진정한 현실 재현의 문학이자 현실 개혁의 문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기(轉機)를 마련하였다.<sup>57)</sup>

이 시기의 문학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의 산물이었다. 조지 오웰의 다음과 같은 전언은 식민지적 조건에서 형성된 당시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회적 여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그는 「예술과 선전의 변경(邊境)」(1934)이라는 평론에서, 히틀러의 제국주의적 파시즘이 등장한 1930년대에 정치적으로 초연한 예술이나 순수 탐미주의 예술은 환상일 뿐, 이러한 시기의 문학은 정치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sup>58)</sup> 한국 작가들에게는 그 같은 제약과 시련이 1910년대부터 주어졌고, 그

57) 큰따옴표 부분은 김동인이 1955년에 「사상계」에 발표한 “한국근대소설고”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백철(1997), 『김동인연구』, 새문사, IV-40면에서 참고하였다. 작품에서 다루어지는 인물 계층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소설의 흐름은 주인공이 세속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N. 프라이는 주인공의 능력 정도와 범위에 따라 문학양식을 ① 신화, ② 로망스, ③ 고급의 모방양식(서사시, 비극), ④ 저급의 모방양식(희극, 사실주의 소설), ⑤ 아이러니 양식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N. 프라이의 ‘저급의 모방양식’과 ‘아이러니 양식’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특성을 기술해보면, 사실주의 소설이 포함되어 있는, 저급의 모방양식 속 주인공들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도 없고, 환경보다 나은 것도 없는 우리들 중의 하나’인 반면, 아이러니 양식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힘이나 지성 면에서 한 단계 뒤떨어지는 상태에 놓여, 좌절감과 부조리의 감정을 빚어내는 상황에 곧잘 빠져드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N. 프라이는 서구의 문학이 19세기 이후에 이르러서야 저급의 모방양식의 단계를 벗어나 아이러니 양식을 지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아이러니 양식으로의 변화, 즉 문학에서 하층민 또는 낙오계층의 삶이 작품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변화가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한 19세기를 기점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우리 문학의 경우도 프로문학이 등장한 이후에야 지식인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하층민, 낙오계층을 소설의 전면에 부각시킬 수 있었고, 현실을 피상적으로 인식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하층민의 삶을 포괄하는 경험적 세계에 근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58) “Frontiers of Art and Propaganda”-The Collected Essays, *Journalism and Letters of George Orwell*. Vol.2(Penguin Books, 1970) p.152. : 이보영(2001), 『난세의 문학-염상섭론』, 예지각, p.15에서 재인용.

이후의 식민 기간까지 지속되었다. 비록 작가가 당대인의 삶을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얼마만큼 진지하게 통찰하고 있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식민지 문학의 정치성은 192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 김동인, 염상섭, 현진건, 최서해의 작품에 어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제국주의적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외면한, 식민지 문학은 “모두 정신적으로 부정직한 문학”<sup>59)</sup>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대개의 식민지가 그러하듯 우리의 식민 현실도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수탈’이 병행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문학의 정치성은 총독부의 검열 아래 ‘정치적 탄압’과 직결된 담론으로 표면화될 수 없었고, ‘경제적 수탈’에 관한 담론으로 간접화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문학에 ‘빈궁 문제’가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가 20년대 작품에 정치적 담론을 매개하는 ‘간접화 양식’의 하나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것은 당시 문학에 담긴 정치·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는 실마리이자, 작품에 반영된 사회의 구조를 읽어내는 단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맥락을 따라 이 장에서는 김동인, 염상섭, 현진건, 최서해의 작품에서 빈궁 문제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L. 골드만의 소설사회학 이론을 바탕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김동인: 빈궁 인식과 패배주의적 대응 방식

김동인의 「감자」(1925)는 몰락한 양반의 딸로 출생한 ‘복녀’의 타락과 파멸의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가난한 농가에서 성장했지만 유교적 가율이 있어 나름의 도덕성을 지녔던 복녀는 궁핍이 지속된 결과, 최초의 매춘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삶의 비결’을 터득하게 된다. 매춘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아 궁핍을 모면하고 일신의 안락을 누리게 되면서 더욱 쾌락과 물질을 추구하는 데 집착하게 된 복녀는 결국 중국인 ‘왕서방’에게 목숨을 잃게 된다.<sup>60)</sup>

59) 이보영(2001), 앞의 책, p.15.

표면적으로 드러난 줄거리를 간추려보면, 이 소설은 한 가난한 인물의 도덕적 타락의 과정을 다룬 이야기임이 분명해진다. 그래서 대개의 연구가 ‘도덕적 타락의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되었고, 그 중 다수는 타락의 원인으로 ‘환경의 영향’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 환경의 실체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언급된 사실 이상으로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았고, 그것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품이 ‘가난’과 ‘환경’의 문제를 전면화하기보다는 그것을 ‘타락의 서사’ 아래 간접화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아래의 글은 광복 이후에 식민 통치 하의 문단을 회고한 기록으로, 작가가 간접화의 방식을 선택하게 된 사정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문학의 수법이 이용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우리 민족사상을 죽이지 않기로 노력하였다. 선동에서 선전으로—다시 변하여 암시적 수법으로 이 민족의 새에 민족 사상만 주입해 두면 언제든 민족 해방의 날이 올 것을 굳게 믿고 암시 수법까지 이용하여, 민족주의 사상만은 살려 보려 노력하였다.<sup>61)</sup>

당시의 문학은 민족사상을 직접적으로 설파하는 ‘선동’, ‘선전’의 문학일 수 없었다. 총독부의 검열로 대표되는, 식민지 문학에 가해진 정치적 구속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근대 문학은 식민 치하라는 정치적 구속이 가장 극대화된 시기에 형성되었고, 그 결과 작가가 열린 태도로 작품을 창작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sup>62)</sup> 그래서 김동인도 ‘민족주의 사상’만은 살리기 위해 ‘암시적 수법’이라는 간접화된 양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의 모든 작품을 이 수법에 따른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나, 몇몇 작품은 그러한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선 「감자」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몰락과 타락상을 함축하고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는데, 이 절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닌

60) 여기에서 왕서방은 복녀와의 매춘을 즐기고, 돈을 주어 새 신부를 사들이는 인물로, 쾌락과 물질을 추구하는 타락한 현실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인물이다. 그가 제공하는 물질과 쾌락으로 궁핍한 삶을 모면하고 일정 수준의 안락한 삶을 꾸려갈 수 있었던 복녀에게 있어, 왕서방의 상실은 곧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며 구축해왔던 자기 삶의 근간이 상실되는 것이면서, 생존 자체를 위협 받았던 극도의 궁핍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복녀는 자신의, 현재와 같은 삶이 깨어지는 것, 즉 '자기 파멸'을 막기 위해 '자기 보존'의 낫을 들었으나, 결국 그 낫에 자신의 목숨을 잃고 만다.

61) 김동인(1967), 「문단 30년의 자취」, 『김동인 전집』 제8권, p.460. : 서종택·정덕진 편(1990), 『한국 현대소설연구』, 새문사, p.117에서 재인용.

62) 같은 책, 같은 면 참조.



사회적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감자」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몰락상은 ‘복녀 부부’와 ‘빈민굴 주민’들의 삶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복녀는 본래 양반의 후손이고, 그녀의 남편은 상당한 자작농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신세는 소작농에서 막별이 노동자로, 행랑살이 형태의 가사사용인에서 거지, 창녀로 영락하게 된다. 그들 부부의 몰락은 표면적으로는 남편의 ‘게으름’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 과정은 당시 우리 민족의 경제적 몰락상과 합치되는 부분이 많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20년대 경제 정책의 핵심은 ‘산미증식계획’이었다. 산미증식계획은 한국을 미국 중심의 단작(單作)형 식량공급지로 만들었다. 실제 이 정책으로 미국 생산량이 증가되기도 하였으나 그 혜택은 지주와 같은 일부 특권층만 누릴 수 있었고, 수출량도 늘었지만 이때의 수출은 ‘기아수출’과 다를 바 없었다.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 남은 곡물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필요로 하는 양곡을 우선적으로 조달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의 양정(糧政)은 일본의 식량 수급과 미가 조절 및 농업공황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한 계획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기의 우리 농민들은 식량부족으로 만주에서 조나 수수 등의 잡곡을 수입해 먹고, 그도 아니면 초근목피로 연명해야 했다. 그야말로 ‘풍년기근’의 모순된 현실이었던 것이다.<sup>63)</sup>

이 같은 상황은 영세농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심각한 토지 이탈을 야기하였다. 그 결과 이 중 다수는 농촌을 떠나 광범위한 예비 노동자층을 형성하거나 국외 이주자, 화전민, 토막민 신세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sup>64)</sup> 당시에는 이 예비 노동자층을 흡수할 만한 노동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머슴이나 행랑살이 형태의 가사사용인, 무직 상태나 다름없는 품팔이 노동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

63) 이 단락에서 제시된 자료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였다. 광효문(2007), 「일제강점기 빈곤정책 형성의 재조명」, 『한국행정사학지』 제21권.

64) 실제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식산은행 조사부에 따르면 1925~1930년 사이에 이농 인구는 해마다 약 4만 명씩 증가하였고, 1927년의 농어촌 이농 인구는 약 90만 명-일시적 이농 인구: 약 49만 명, 장기 이농 인구: 약 41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1930년의 한국인 실업자 수는 866만 9천 788명이었고, 이보다 앞선 1926년에 구호가 필요할 정도로 가난한 세공민은 215만 5천 620명, 이들과는 별도로 10만 66명의 거지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병례(1999), 「1920년대 일제의 노동정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서종택·정덕진 편(1990), 앞의 책, p.119 참조. 임종국(1991), 앞의 책, p.153.

었고, 그도 아니면 국외로 이주하거나 화전민, 토막민, 걸인이 되어야 했다. 이처럼 당시 우리 농민들의 몰락 과정은 ‘소작농 → 막벌이 노동자 → 행랑살이 → 토막민(걸인, 창녀)’이 되었던 복녀 부부의 몰락상과 정확한 대응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행랑살이에서도 쫓겨난 복녀 부부가 마지막으로 다다른 곳은 ‘빈민굴’이었다. 이곳은 당시 우리 민족의 궁핍한 삶과 관련된 공간으로 하천이나 제방, 산림, 다리와 같은 국유지에 밀집되었고 13도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sup>65)</sup> 거기에는 도심과 농촌의 살기 좋은 곳에서 쫓겨난 한국인들이 토막을 짓고 살고 있었다. 빈민굴 생활에서 상류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은 토막을 소유하고 임대를 놓기도 하였으나 그 수요가 많지는 않았다. 그 밖의 빈민굴 주민들은 전업이나 재취업이 어려운 실업자들이었기 때문에 구걸과 도적질, 매음으로 연명해야 했다. 작중의 빈민굴이 “싸움, 간통, 살인, 도적, 구걸, 징역,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sup>66)</sup>로 묘사되는 것도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이곳 주민들의 “정업은 거러지요, 부업으로는 도적질과 (자기네끼리의) 매음”<sup>67)</sup>을 한다는 작가의 지적은 현실의 반영일 뿐,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정상적인 노동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생산수단으로부터 유리된 복녀는 결국 구걸로 연명하게 된다. 그러나 평양 시민들은 “젊은 거이 거랑질은 왜.”<sup>68)</sup>라고 편잔을 줄 뿐, 젊은이를 걸인으로 만드는 사회구조적 조건에는 관심이 없다. 구걸조차 수월치 않았던 복녀에게 ‘기자료 술발 송충이 잡이 사업’은 시혜사업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감독관이 단 돈 8전에 복녀를 성적으로 착취했듯 일제가 시행한 빈민 구제 사업의 실상은 시혜사업이 아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빈민에 대한 경제적 착취였던 것이다. 복녀가 하루 종일 송충이를 잡고 번 32전은 당시 여자 유년공의 임금 수준에 지나지 않았고, 성적 봉사료 8전을 보탠 40전은 공장에서 일하는 성인 여성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인 59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기 때문이다.<sup>69)</sup> 이처럼 당시의 빈민 구제 사업은 식민지 농

65) 이 단락에 활용된 ‘빈민굴’에 관한 정보는 임종국의 저서를 참조하였다. 임종국(1991), 앞의 책, pp.152-157.

66) 김동인(2006), 「감자」, 『감자』, 문학과지성사, p.182.

67) 같은 책, p.184.

68) 같은 책, 같은 면.

업 정책과 근대적 도시 건설 과정에서 대두된 실업 문제와 빈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실상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으로 빈민의 임금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영리 사업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성실한 노동의 대가로 32전이 주어지는 작중현실은 일제의 빈민 구제 사업에 담긴 허구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여성 인부에 대한 ‘송충이 잡이 감독관’의 성적 착취가 더해지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여성의 노동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때문이다.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는 가정이나 농토에 묶여 있던 여성의 노동력을 가정 밖에서 거래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변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성도 상품화되었다. 더욱이 당시의 궁핍한 상황은 숙련된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지 못한 여성들을 노동 시장으로 내모는 데 결정적 구실을 담당했던 것이다.

실제 1920년대 어떤 잡지는 여성의 직업을 대표하는 것 중의 하나로 ‘직공’과 ‘기생’을 들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자’고 주문한 적이 있고, 1934년에 모(某) 잡지는 여성의 직업을 성스러운 직업(교원, 간호부 등)과 고통스러운 직업(직공), 에로틱한 직업(여급, 여점원)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스러운 전문직에 속한 한국인 여성의 수는 극히 드물었던 반면, 손가락질 받거나 에로틱한 직종에 속한 여성의 수는 전체 여성 취업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sup>69)</sup>

가사사용인이나 점원, 심지어 여공조차 ‘아양이 무기인 사람’으로 취급되었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취업 여성의 절반 이상이 ‘정조’가 의심스럽거나 ‘처녀성이 마비된’ 여성으로 취급됐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sup>71)</sup> 특히 저학력의 가난한 여성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손가락질 받거나 에로틱한 직종에 취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성은 작중의 ‘감독관’과 같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의 남성에게 유린되기 쉬웠다. 이렇듯 당시 빈민굴 여성들뿐만 아니라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던 다수의 여성들은 노동력과 성을 제공해야 하는 이

69) 서종택·정덕진 편(1990), 앞의 책, p.121 참조.

70) 지수결(2008), 『한국근대사회와 문화』 III권, 서울대학교출판부, p.144 참조.

71) 같은 책, p.143 참조.

중 착취의 대상이었던 것이다.<sup>72)</sup> 감독관에게 성적 착취를 당한 여성 인부가 복녀 하나에 그치지 않고 “일 안하고 공진 많이 받는 인부”<sup>73)</sup>와 더불어 복수로 처리된 것도 이 같은 사회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복녀는 빈민굴 여인들을 따라 중국인 ‘왕서방’의 채마밭에 ‘감자’를 훔치러 들어가게 되고, 이날 이후 그녀는 왕서방에게 금전적으로나 성적으로 깊이 예속된다. 여기에도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담겨 있다. 앞서 1920년대는 미국 생산량과 수출량이 증가되던 시기였으나, 양곡 기아수출로 인해 다수의 한국 농민들은 풍년기근이 들어 만주의 조악한 잡곡을 수입해먹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 같은 시기에 감자와 같은 잡곡은 양곡을 수탈당한 우리 민족의 긴요한 식량 대용품이었던 것이다.<sup>74)</sup> 애써 지은 양곡은 내주고 조악한 잡곡을 꺾어먹는 처지, 이것이 당대 우리 민족이 놓인 자리였다. 중국인의 밭으로 감자를 훔치러 가는 복녀와 빈민굴 여인들의 모습은 이민족(일제)의 소유가 되어버린 땅에서 외국의 조악한 잡곡을 꾸어먹으며 연명해야 했던 우리 민족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감자’는 일제의 수탈과 그로 인한 우리 민족의 궁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인 왕서방은 우리 땅을 점거한 이민족으로서의 전형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우리 땅과 거기서 생산된 작물이라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복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우리 민족을 금전적으로 예속시키는 것은 물론 성적으로 억압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게다가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고서도 금전을 매개로 합법화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인물이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이민족이라 보기 어렵고, 당시 우리 땅과 거기서 산출된 거의 모든 부를 강점한 ‘일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최서해의 작품에 등장하는 중국인이 단순히 중국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기보다는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이민족, 즉 ‘일제’로서의 상징성을 지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72) 전우용은 1910년부터 1930년에 걸친 여성들의 직업 세계를 고찰한 후, 당시의 여성들은 “성스럽고 모성을 보호할 수 있으며 독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으나, 막상 그들 앞에는 옷음과 아양을 팔아야 하고 고통스러우며 경제적으로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직업들만이 놓여 있었을 뿐”이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지수결(2008), 앞의 책, pp.144-145.

73) 김동인(2006), 앞의 책, p.187.

74) 서중택·정덕진 편(1990), 앞의 책, p.128 참조.

「감자」와 같은 해에 발표된 「시골 황서방」은 도시와 농촌을 뚜렷하게 대비시키고 그 사이에서 겪는 황서방의 빈궁 체험을 다룬 작품이다. 여기서 황서방이 사는 ○촌은 “평화로운 원시인의 마을이라 하여도 좋을 만한 살림을 하는 마을”<sup>75)</sup>로, 근대화의 상징인 도회, 기차, 국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다. “땀을 뻘뻘 흘리고 손을 상하며 일을 하여야 1년에 5,000냥 들어오기가 힘들”<sup>76)</sup> 만큼 궁벽한 마을이나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순박하고 인심이 후덕하다. 이처럼 작중에 묘사되는 ○촌은 전근대적이며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기 이전의, 원시적 고향의 모습을 하고 있다.

반면에 Z씨의 도회는 “사람 냄새, 가솔린 냄새, 하수도 냄새”<sup>77)</sup>에 가려 향기로운 ‘흙냄새’를 맡을 수 없는 공간으로, “자동차, 마차, 전차, 인력거가 여기 번쩍 저기 번쩍”<sup>78)</sup>하는 근대화된 공간이다. 이곳의 한 달 수익은 ○촌에서의 일 년 벌이보다 웃돌지만 도회지 사람들은 냉정하고 야멸스럽게 살아간다. Z씨의 도회는 근대화된 도시의 외양과 내면을 두루 갖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20년대 우리 사회에 이 같이 이질적인 공간들은 공존하기 어려웠다. 일제의 식민 정책은 토지를 점탈하여 우리 농촌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촌과 같은 공간은 당시 농촌 사회에 실재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 곳은 Z씨의 도회와 동시대적인 공간에 놓일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여기에 김동인이 말한 ‘암시적 수법’이 사용되었음을 가정한다면, 오히려 황서방의 ○촌은 식민지 근대화 이전의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Z씨의 도회는 식민지 근대화가 진행 중이던 1920년대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어, ○촌과의 대립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리고 ○촌을 떠난 황서방이 체험하게 된 ‘빈궁’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79)</sup>

75) 김동인(2006), 「시골 황서방」, 『김동인 단편 전집』 제1권, 가람기획, p.193.

76) 같은 책, p.197.

77) 같은 책, p.194.

78) 같은 책, 같은 면.

79) 황서방이 도회지에서 몰락하는 과정은 「감자」에서 살핀 우리 농민들의 이농과 그로 인한 몰락 과정과 흡사한 면이 있고, 근대화의 외경에 도취되어 가산을 탕진하는 모습은 「만세전」의 ‘이인화’가 비판한 우리 민족의 모습과 고스란히 포개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황서방은 ‘매달 5,000냥을 벌었다’는 Z씨의 말만 믿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도회로 간다. 그러나 그는 녀 달만에 ‘빙수, 동물원, 선술집, 전차’ 등 근대화의 산물들을 소비하느라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된다. 그때서야 굶주림을 경험하게 된 황서방은 뒤늦게 취직운동에 나서 보지만 그 또한 허사였다. 막별이 노동자로도 쓰임 받지 못한 까닭이다. 결국 그는 ○촌 주민들의 인심을 기대하며 도회지 사람들에게 밥을 빌러 간다. 그러나 도회지 사람들은 걸인이 된 그를 업신여길 뿐 그의 주린 배를 채워주진 않는다. 여기서 황서방의 인식은 확장되기에 이른다. 도시의 화려한 외관 속에 ‘비정함’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품은 황서방의 깨달음으로 끝난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다름 아닌 ‘천분’이었다. 그것은 “도회는 도회 사람의 것이고, 시골은 시골 사람의 것”<sup>80)</sup>이라는 말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바꿔 말하면 ‘도회는 시골 사람의 것일 수 없다’는 말이다. 앞서 밝힌 도회와 시골의 상징성을 환기한다면, 그것은 ‘식민지 근대화(도회)가 우리 민족(시골 사람)을 위한 것일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작품은 황서방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면서 식민지 근대화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929년 동아일보에 「동업자」란 제목으로 연재되었던 「눈보라」에도 빈궁 모티프가 잘 드러난다.<sup>81)</sup> 「눈보라」는 두 지식인이 “망할 놈의 세상”<sup>82)</sup>을 만나 몰락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홍 선생’은 일본에서 신학문을 배워 왔지만 ‘면허증’이 없어 실업자가 된 인물로, 생활난에 시달리다 ‘가짜 편작’ 노릇을 하게 된다. ‘쇠몽치 노인’도 과거에는 구학문에 충실한 선비였으나 국외이주자로 몰락하면서 ‘가열치료 대박학사’가 된다. 홍 선생과 마찬가지로 가짜 의술가가 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신학문과 구학문이 밥이 되지 못하는 세상’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범죄자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다. 여기에는 뚜렷한 사회적 이유가 존재한다.

홍 선생은 원래 사립학교 교사였다. 그 학교가 총독부 지정 학교로 바뀌어 ‘교원 면허증’을 필요로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새롭게 교원검정시험을 치를 자신이

80) 김동인(2006), 앞의 책, p.199.

81) 「눈보라」는 『동아일보』(1929.9.21~1929.10.1)에 「동업자」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던 작품으로, 단편집 『태형』(대조사, 1946)에 수록될 때 개제되었으나, 내용상 차이는 없다.

82) 김동인(2006), 「눈보라」, 『김동인 단편집』 제1권, 가람기획, p.239.

없었던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직업들을 모색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제가 실시한 ‘면허증 제도’의 불합리성이 드러난다. 다음을 보자.

교사 노릇 몇 해에 입으로 밥을 벌어먹던 그는 변사 노릇은 넉넉히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기야 되려고 알아보매, 거기에 또한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합니다. (……) 대서소도 면장, 도수장도 면장, 심지어 이발쟁이까지도 인가증이 필요하였습니다. 모두가 면허증, 허가증, 인가증…… 인력거꾼, 도살자, 고기 장사, 빙수 장사…… 흥 선생에게 해먹을 노릇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 흥 선생은 몇 번을 역정을 내며 분개하였습니다. (……) ‘책은 보아서 무얼 해! 만권 서적이라도 제 능히 한 장의 면허증을 못 당할 것을.’<sup>83)</sup>

위 인용문은 일본 유학생조차 ‘면허증, 허가증, 인가증’ 없이 변사와 대서소는 물론 인력거꾼, 도살자, 고기 장사로 취업할 수 없었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에 실시되었던 면허증 제도는 우리 민족을 통제하려는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위 인용문에서와 같이 ‘자격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직업’에까지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고 한다.<sup>84)</sup> 일본인들은 소개장만으로도 취업이 가능했던 반면, 당시의 한국인들은 고물상, 인력거꾼, 예창기, 심지어 엿장수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면허를 얻거나 그들이 인정한 조합에 가입해야 영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면허증 제도를 통한 광범위한 직업 통제는 ‘먹고 사는 일’까지 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의 발급 기준이 자의적이어서, ‘관련 직업인이 많아 통제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데 있었다.<sup>85)</sup> 이처럼 당시의 면허증은 당사자의 직능을 평가하기보다 외부 요인에 따라 발급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것이 소지자의 전문성을 담보해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취업에 관한 전권을 휘두르며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만 권 서적이라도 능히 한 장의 면허증을 당하지 못한다’<sup>86)</sup>는 흥 선생의 지적은 일제가 실시한 면허증 제도의 불합리성을 잘 보여준다.

83) 김동인(2006), 앞의 책, pp.227-228.

84) 지수결 외(2008), 앞의 책, p.126 참조. 면허증 제도와 관련된 사실 자료들은 모두 이 책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85) 같은 책, pp.126-127 참조.

86) 김동인(2006), 앞의 책, p.228 참조.

그러나 홍 선생의 실업에는 불합리한 면허증 제도 외에 당시 고등교육 이수자들의 실업 문제가 개입되어 있었다. 이는 그가 일제의 자격증 없이 가장 경편하게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신문기자’를 들면서도 그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음을 설명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신문기자 “한 사람의 결원에 대하여 이삼십 인의 지원자”<sup>87)</sup>가 몰려 있는 상황은 홍 선생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실제 1920년대 한국에는 엄청난 수의 무직자가 있었다.<sup>88)</sup>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30년 1월의 무직자 총수는 8,964,551명이었고, 그 중 한국인의 수는 8,669,788명이어서 전체 무직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인 무직자 중 다수는 무업여성, 노·유년층, 상이불구자였지만 상당수의 실업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유직자 가운데서도 상당수의 반실업자와 사실상 무업 상태나 다름없는 반무업자가 있었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1920년대 말 한국 총인구의 절반 이상이 무직 무산자였음을 알 수 있다.<sup>89)</sup> 이렇듯 실업 문제는 무직·무산자의 증가와 빈궁의 사회적 확산을 야기하면서 이 시기 가장 중대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실업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지식인들도 예외일 수 없었다.<sup>90)</sup> 1928년에는 법전 졸업생의 다수가 취업을 못했고, 사립 전문학교 졸업생의 취업난은 한층 심각해서 연희전문이나 보성전문의 경우 졸업생의 반수 정도가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 당시 전문학교 졸업생의 취직난을 심화시킨 요인으로는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일본인들의 한국 진출을 들 수 있다. 관공서, 은행, 회사 할 것 없이 묵시적으로 ‘일본인 우선 채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지식인들의 취업률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선에 있는 산업 기타 시설의 중요기관이 조선인의 손으로 된 것이 적게 되느니 만치 ‘밖에서 몰려오는 실직군’에게 먼저 (일자리)를 양해치 않을 수 없”<sup>91)</sup>었던 까닭이다. 이 같은 식민지

87) 김동인(2006), 앞의 책, p.226.

88) 안병직·박성수 외(1980), 「일제하의 한국노동운동」, 『한국근대민족운동사』, 돌베개, p.519. 이 단락의 무직자, 실업자 관련 사실 자료는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89) 같은 책, 같은 면. 경성의 경우, 1925년 국제조사에 따르면 조선인 총인구 21만 5,940명 중 유직자는 5만 7천여 명에 불과하여 26.4%를 접할 뿐이었다. 더구나 일본인 무직자가 주로 노인층에 집중되었음에 반해, 조선인 무직자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었던 것이다. 지수걸 외(2008), 앞의 책, p.132.

90) 같은 책, pp.123-124. 이 단락에서 지식인 실업 문제 관련 모든 사실 자료는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

적 조건에 놓인 한국 지식인들은 그야말로 “지식은 돈이 안 되는 세상”<sup>92)</sup>, “머릿속에 잡아놓은 지식은 헛되이 썩어날 뿐 활용해볼 길이 없”<sup>93)</sup>는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sup>94)</sup> 작중 홍 선생이 호구지책으로 ‘전기 안마기’를 들고 “전세계 전기치료계의 태두, 미국 화성돈 전기대학교 교수, 덕국 백림 의학대 박사”<sup>95)</sup> 행세를 하다 동사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쇠몽치 노인’의 삶은 관직 진출 기회를 봉쇄당하고, 구시대의 특권을 일제에 양도해야 했던 양반 계층의 몰락상을 반영하고 있다. 갑오개혁 이후에도 관습상의 신분 유제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므로 양반들 중 다수는 관직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05년 이후 ‘별다른 기준이나 원칙 없이’ 관공서 직원의 대량 해고가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이 공석의 거개가 일본인 직원으로 채워지면서, 양반들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sup>96)</sup> 해고된 고급 관료들은 근대적 기업 또는 은행 설립에 자본가로 참여하기도 하고, 기업가로 변신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흔한 일은 아니었다.

별도의 재산이 없는 퇴직 관리들은 변호사, 서당훈도, 사무직 직원조차 얻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한 채 정도의 가옥을 소유한 이들은 여관, 하숙집의 주인이 되었고, 그조차 없는 이들은 무직, 실직 상태로 내몰려 ‘부랑자’ 취급을 받아야 했다. 더욱이 사대부집 안방마님들이 침모(針母) 또는 일본집 ‘어머니’로 전락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던 것이다.<sup>97)</sup> 이처럼 일제는 ‘관직 독점’을

91) “지식층의 취직난”, 《조선일보》 1928. 3. 9 : 지수결 외(2008), 앞의 책, p.123에서 재인용.

92) 김동인(2006), 앞의 책, p.229.

93) 같은 책, p.226.

94) 박로아의 다음 글과 조선일보의 사설은 이러한 사정을 짐작하게 해준다.

① 박로아의 「롬펜시대」: 이 ‘눈치밥 롬펜군(群)’은 결코 실업자가 아니라 정작은 무직자인 것이다. 즉 처음부터 직업을 갖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 점에 있어서 실업자와 결과는 마찬가지로이면서도 그 원인은 다르다. 아직 산업발달이 되지 못한 우리 조선에는 민간사업이라야 십지(十指)를 굴(屈)하지 못할 형편이며 정작 일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고 앉았으니 실로 팔자에 타고난 롬펜이다. (밀줄-인용자) 박로아(1932), 「롬펜시대」, 『혜성』 2월호 : 김진송(2004), 『서울에 탄스홀을 許하라』, 현실문화연구, p.146에서 재인용.

② “조선인과 실업보습교육”, 《조선일보》 1928. 3. 3 : 조선인은 學을 마치고 다소의 기술이 있되 淸직에서도 선점을 잃어서 尙상 및 생존의 기회로부터 尙상 제외되고 있다. (밀줄-인용자) “조선인과 실업보습교육”, 《조선일보》 1928. 3. 9 : 지수결 외(2008), 앞의 책, p.109에서 재인용.

95) 김동인(2006), 앞의 책, p.234.

96) 지수결 외(2008), 앞의 책, p.130 참조.

97) 같은 책, pp.110-132 참조. 양반들의 취업과 관련된 사실 자료는 이 책을 참고하였다.

통해 관습상으로 남아 있던 양반들의 특권을 빼앗고 그들의 몰락을 재촉했던 것이다. 공맹지도밖에 모르던 쇠몽치 노인이 생활난에 밀려 만주 이주민이 되고, 거기서 궁여지책으로 ‘가열치료 대박학사’ 행세를 하다 맹인이 되는 것도 사실상이 같은 사회적 배경이 작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홍 선생과 쇠몽치 노인은 합법성과 합리성을 가장한 일제의 수탈 앞에 좌절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이들이 식민지적 조건에 대응하는 방식은 건강하지도 않고 바람직한 것일 수도 없으나, 근대적 제도가 제국주의적 야욕과 결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한 측면을 정확하게 내비치고 있다. ‘제국주의적 야욕에 봉사하는 근대적 제도의 불합리성’이란 제도가 식민지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그들의 궁핍을 정당화하거나 심화시키는 도구로 전락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작중에 ‘면허증 제도의 시행과 봉건적 특권의 철폐’라는 제도가 정상적인 두 지식인의 성장을 가로막고 오히려 그들의 지식을 사장시키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결국 작품은 제도의 희생양이 되어 몰락일변도의 삶을 살아야 했던 홍 선생과 쇠몽치 노인을 통해 일제가 시행한 근대적 제도의 불합리성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sup>98)</sup>

이제까지 ‘암시적 수법’을 전제로 김동인의 「감자」, 「시골 황서방」, 「눈보라」를 분석해 보았고, 식민지적 조건에 놓인 우리 민족의 빈궁한 생활상을 검토해 보았다. 복녀와 황서방은 일제의 수탈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농민들의 사정을 잘 보여주었고, 근대적 제도에 희생되었던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은 홍 선생과 쇠몽치 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궁핍을 모면하기 위해 매춘을 하거나 구걸을 하고 가짜 의원 노릇을 하다가 더 큰 파국으로 치닫는 공통점을 보인다. 하나같이 부조리한 식민 현실에 맞서거나 거기에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작가는 역사의식이 결여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sup>99)</sup> 식민 현실을 요지부동의 것으로 파악하여

98) 특히 홍 선생의 처세에는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에게 가한 제국주의적 수탈 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는 금테 안경과 금시계, 청진기로 ‘근대’를 위장하고 만주 사람들에게 의사로서의 위신과 위풍을 자랑하며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가 제공한 것은 약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거짓 의료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99) 김동인의 한계를 검토하는 데 있어 이주형의 연구는 좋은 지침이 되어준다. 김동인이 패배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세계관을 지니게 된 배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형(1994), 「김동인 소설에서의 허무주의적 인간운명관과 인간 경멸·혐오 의식」, 『국어교육연구』 제26집.



그것의 극복 가능성을 차단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이 작품들도 예외는 아니다. 현실에 패배하고 좌절하는 인물만 있을 뿐, 현실 개혁을 지향하는 인물들이 드러나 있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나 현실 재현의 측면에서 이 작품들은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당시 하층민과 지식인의 빈궁한 삶을 암시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있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작중에 암시적으로 형상화된 사회구조적 배경들은 당시 필부필부의 현실적 패배와 좌절을 이해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현실 재현의 측면에서 거둔 성과만큼은 온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2. 염상섭: 민족의 빈궁 현실과 지식인의 자아각성

염상섭의 「만세전」<sup>100)</sup>은 “무이상(無理想)한 감상(感傷)적 유탕(遊蕩)적 기분이 농후한”<sup>101)</sup> 식민지 지식인 ‘나(이인화)’가 동경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여로의 과정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 식민 조국의 현실을 목도하게 되고, 이를 통해 민족 현실을 의식하는 지식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현실은 만세 운동 이전이나, 실제 이 작품이 3·1운동이 일어난 이후(1922년)에 창작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현실이 1920년대 한국의 실상과 무관할 수 없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sup>102)</sup>

주인물이면서 관찰자인 ‘나’가 일제 침략의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살펴본, 3·1운동 이전의 한국 사회의 모습은 ‘공동묘지’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피폐하게 묘사된다. 일제가 주도한 식민지 근대화로 인해 농촌은 피폐해졌으며, 점

100) 이 작품은 처음에 「묘지」란 이름으로 『신생활』에 1922년 7월호부터 9월호까지 3회 연재되었지만, 3회분이 총독부의 검열로 완전 삭제되고 해당 잡지의 폐간으로 연재가 중단되었다가, 1924년 4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59회에 걸쳐 『시대일보』에 「만세전」으로 게재하여 다시 연재되었다. 단행본의 경우에는 1924년 8월 고려공사에서 초판이 간행되었으며, 1948년 수선사에서 재판이 나왔다.

101) 염상섭(2004), 「만세전」, 『만세전』, 일신서적, p.79.

102) 이와 관련하여 “만세전의 무덤 속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 그 무덤으로부터 헤어날 생각들을 못하고 자꾸만 무덤 속으로 파고들려는 아이러니컬한 우리 민족의 운명, 이것이 소설의 창작동기요 주제였던 것이 다(밑줄은 인용자).” 라는 송하춘의 견해는 만세전의 현실 문제가 만세운동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잘 뒷받침해준다. 송하춘(1995), 『1920년대 한국소설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p.145.

차 또 하나의 일본으로 변해가는 조국에서 설 자리를 잃고 타국으로 이주하는 한국인의 수효는 늘어만 갔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인 거간꾼들은 갖은 술수를 부려가며 한국의 많은 농민들을 일본의 품팔이 노동자로 전락시켰다. 작가는 이 같은 궁핍한 현실의 문제를 일본인 거간꾼들의 대화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독자가 이를 사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A) “실상은 누워서 떡 먹기지. 나두 이번 가서 해오면 세 번째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을 불들어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쿨리(苦力) 말씀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넌다. 하하하.” 그 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鑛山)으로 몸이 팔리어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번 그 자의 상관대기를 치어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sup>103)</sup> (밑줄-인용자, 이하 같음)

(B)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應募者)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은고 하니, 이 남쪽은 내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들이거나 남으로 현해탄(玄海灘)을 건너서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늘보다는 양지가 좋으니까, 요보들 생각에도 일 년 열두 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주린 배를 채우기는 고사하고 보릿고개(麥嶺)에는 시래기죽으로 부증이 나서 꿍질 지경인 바에야, 변화한 동경·대판에 가서 흥청망청 살아보겠다는 요랑이거든. 그러니 촌의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계집애들까지 나두 나두 하고 나서거든. 뭐 모집이야 쉽지!” (p.45-p.46)

(C) “아직 북선 지방은 우리 내지인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히 사니까 응모자가 적지만, 그것도 미구불원에 쪽박을 차고 나설 거라. 히히히.....” (p.46)

(D) “그래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런 공사일을 잘들 하나요?” “잘하구 못하는 것은 내가 아랑곳 있겠소마는, 하여간 요보는 말을 잘 듣고 쿨리만은 못해도 힘드는 일을 잘하는 데다가 샅진이 험하니까 안정맞춤이지..... 그야 처음 데려갈 때에는 품삯도 많고 일은 드러누워서 떡 먹기라고 꼭 살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빚까지 갚아주는데야 제아무런 놈이기로 아니 따라나설 놈이 있겠소. 한번 따라나서기만 하면야 전차(前借)가 있는데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지.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험하긴 고사하고 굶어웨진다기루 하는 수 있나, 하하하.” (p.47.)

(A)~(D)는 하관(下關)에서 부산으로 가는 연락선 안에서 ‘나’가 보고 들은 것을 서술한 부분으로, 궁핍한 현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짐작할

103) 염상섭(2004), 앞의 책, p.45.

수 있게 해준다. (A)와 (D)에서는 한국 농민들이 인신매매에 가까운 사기를 당해 일본의 노동자로 전락해가는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고, (B)에서는 일본화가 진행될수록 궁핍해지는 우리 민족의 실상을, 그 당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한국인의 국외유출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실제 1922년에 일어난 新瀉縣 수력발전소의 조선인 인부학살사건을 다룬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A)와 (D)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즉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취업이 ‘한국인의 국외유출’과 관련된 심각한 사회 문제였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세상 사정을 잘 모르는 농민들을 감언이설로 꼬여서 공사하는 곳까지 끌고 와서는 모집할 때 하던 말과는 어림없이 틀리게 괴로운 노동과 무서운 학대를 강제하고 ... 하루 한 명에 15전-20전씩을 매일 벗겨내어서 모집하여 온 자에게 주는 고로 외면으로 보면 그대로 지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 같지만 실상 내면을 보면 사기로써 인신을 매매하는 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sup>104)</sup>

이 기사는 국외로 유출된 한국인 노동자가 ‘취업’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인 고용주와 거간꾼(노동알선브로커)에게 이중으로 착취당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취업이 정당한 ‘취업’의 형식을 위장한 ‘사기’ 또는 ‘인신매매’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A)에서 ‘지상의 지옥’에 비유되고 있는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은 실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이중의 착취와 의도적 계약불이행이 자행되는 인권유린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일본인 고용주와 거간꾼에게 속아 지상의 지옥에 팔려가고 있는 조선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A)와 (D)는 이러한 현실과 동형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또한 (C)는 일제의 수탈이 덜 진행되어 비교적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북선 지방 사람들의 삶 역시, 일본 제국주의의 본격적인 침투로 머지않아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일본인 거간꾼의 예상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의 예상은 (A), (B), (D)와의 관련 속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한 개인의 단순한 소견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의 경고로 읽히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A)~(D)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제기된 ‘궁핍화 현상’과 그에 따른 병리현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도, 그 원인이 일제와 무관하지

1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혜경의 「1920년대 제일조선인노동자의 생활상태」라는 글에서 재인용. 원문은 <http://blog.naver.com/protest?Redirect=Log&logNo=80008576396>에서 확인할 것.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다. 관부연락선 안에서, 일본인 거간꾼에 의해 관념적으로 구축될 수 있었던 이 같은 대립 구도(묘지와 같은 조선의 현실 ↔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의 축사이자 상징'인 부산의 현실이 구체화되면서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기 시작한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사람이 살려면 이런 꼴도 보고 저런 꼴도 보는 것이지 하며, 이것도 내 팔자소관이 라는 값싼 낙천주의나 단념으로 대대로 지켜 내려오던 제 고향의 제 집, 제 땅을 버리고 문 밖으로 나가고 산으로 기어들 뿐이요, 이것이 어떠한 세력에 밀리기 때문이거나 혹은 자기가 착실치 못하거나 자제력과 인내력이 없어서 갑살리고 만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던 것이다. (p.67)

여기서 '나'는 한국인의 궁핍화가 두 가지 요인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어떤 세력에 밀리기 때문'이고, 둘째는 스스로가 '자제력과 인내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 인용문이 식민지 근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인의 집과 땅이 일본인의 소유로 뒤바뀌고 있는 부산의 현실을 목도한 이후에 서술된 부분임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나'가 지목하고 있는 '어떤 세력'은 '일본 제국주의', 좁게는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작가는 한국인의 궁핍화 현상과 관련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그에 대응하는 한국인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작가는 일본 제국주의의 실체를 막연하게 제시하지 않고, 그것을 세분화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요소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궁핍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차등을 두어, 그 결정적 원인으로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를 들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데 기여한 '부차적 동인'과 구분해보고자 한다.<sup>105)</sup>

「만세전」은 한국인의 궁핍화 현상이 '일제에 의해 파행적으로 진행된 식민지 근대화'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나'라는 인물이, 식민지 근대화의 궁극적 목표가 '식민지에 대한 식민국의 경제적 착취'에 있음을 정

105) 작가는 「만세전」에서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와 '한국인들의 자기상실 문제'를 비슷한 비중으로 문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의 주제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이는 결말부의 내용에 무게를 두자면, 후자를 더욱 문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후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전자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를 한국인의 궁핍화를 가져온 결정적인 원인으로, 이를 우리 땅에 안착(安着)할 수 있도록 도운 요인들은 부수적인 동인으로 나누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sup>106)</sup> ‘나’는 식민 한국의 현실이 피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근대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 이면에 놓인 우리 민족의 삶을 통해 살펴본 조국의 현실은 그것으로 인해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가 일본을 닮아가는 식민지의 현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근대화인지 아느냐’고 질타 섞인 물음을 던지는 데서 잘 드러난다.

“우선 고을엔 전등도 달게 되고 전차도 개통되었는데. 구경오계. 압전한 요릿집도 두서너개 생겼네..... 자네 왜갈보 구경했다? 한번 보여주세요.” 몇천 년 몇백 년 동안 가문에 없고 족보에 없던 일이 생겼다. 있는 대로 까불릴 시절이 돌아왔다. 편리해 좋아, 놀기가 좋아서 편해하며 한섬지기 파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우리겐 인젠 이층집도 꽤 늘고 양옥도 몇 채 생겼다네. 아닌게 아니라 여름엔 다다미가 편리해. 위생에도 매우 좋은 거야.” 하고 두 섬지기 깡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누구의 이층이요 누구를 위한 위생이냐. (.....) 쫓겨나가고 새로 들어오며 시가가 나날이 변화하여 가는 동안에 천 가구의 최후의 한 가구까지 쓸려나가고야 말지만, 천채 집이 쫓겨나갈 때에는 벌써 첫째로 나간 사람은 오동잎사귀의 무늬를 박은 목베를 고리짝에 넣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가 앉아서 먼 길 노독을 배갈 한 잔에 풀고 얼쩍하여 화푸념만 하고 있는 것이다. (pp.68-69)

여기서 작가는 한국인의 궁핍화가 초래된 결정적 원인으로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를 지목하면서도, 이에 반응하는 우리 민족의 비판적이지 못한 태도<sup>107)</sup>와 자기상실<sup>108)</sup> 역시 궁핍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무비판적인 태도와 그로 인한 자기상실의 문제가 일제의 경제적 착취를 수월하게 하여,<sup>109)</sup> 한국인의 궁핍화를 가중시키는 ‘부수적 동인’으로

106) 김윤식·정호응은 『한국소설사』에서, 당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진 근대화가 일제의 효율적인 수탈을 위한 파행적인 측면을 뚜렷이 지닌 것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김윤식·정호응(2008), 앞의 책, p.149.

107) 현대적 생활을 영위할 수단 방법도 없고, 生産貨殖에도 어둡고, 그렇다고 안빈낙도의 생활 철학에도 철저하지 못한 우리 나라 사람들의 엉거주춤한 사고방식은 일본화의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에 사로잡히고, 그 막연한 호기심은 결국 식민지화의 속도를 가속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송하춘(1995), 앞의 책, p.143.

108) 문제의 심각성은 그와 같은 조선인의 궁민화를 가속시키는 일본인들의 도래를 조선인 당사자들은 전혀 식민지 수탈의 일환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러기는커녕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이 들어온 덕분에 신문명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중략.....) 부산에 밀려든 신문명의 쓰레기들이 누구의 소유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망각한 채 그것의 외관에 현혹되어 가옥과 전답을 날리고 빈민화를 재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동안에 조선인의 자기상실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든다. 최순열(1985), 「염상섭의 <만세전>과 리얼리즘」, 『한국문학연구』 제8권, p.170.

109) 김윤식·정호응은 이기영의 「고향」을 설명하며, 「물신화된 제도적 장치로서의 근대성」이 지닌 위험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즉 철도제도, 우편제도, 측량제도, 교육제도 등등이 물신화되어 그 당시 조선 천지에 압도적으로 군림하게 되면서, 「제도적 장치로서의 근대」에 주체적·비판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를 “절대적이고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수용하기에 급급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틀을 염두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품 속 ‘오동잎사귀 무늬를 박은 목배’는 한국인의 무비판적인 태도가 식민지 근대화와 민족 궁핍의 확산으로 이어졌던 과정을 보여주는 소재여서 주목할 만하다.

메이지 44년(1911년을 말함, 인용자 주) 5월 충청남도 아산군(牙山郡) 삼북면(三北面) 둔포리(屯浦里) 도로 확장을 위하여 초가 4칸 및 부지 7평 8작을 기부한 바 기록하므로 그 상으로서 목배 1개를 하사함.<sup>110)</sup>

위의 인용문은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린 기사의 내용으로, ‘목배’의 실체를 확인하게 해준다. 그것은 일제가 ‘도로 확장’이라는 식민지 근대화 사업을 위해 자기 재산을 헌납한 한국인들을 ‘기특’하게 여겨 하사한 감사패의 일종이다. 치도 사업 기간에 이 목배를 수여 받은 한국인은 13도에 걸쳐 속출했고, 집과 땅을 기부한 그들은 “목배를 고리짝에 넣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sup>111)</sup>는 유랑민이 되어야 했다. 이렇듯 식민지 근대화에 대한 한국인의 무비판적인 태도는 자기 민족의 궁핍화를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였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작중에 부정적 인물들이 공유하는 특성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이들은 식민지 근대화에 담긴 일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그들의 수탈을 묵인해 버리거나 거기에 적극적으로 편승·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제의 수탈을 묵인하는 인물로 ‘갯(笠)장수 장들뱅이’가 대표적이다. 그는 최신 학문을 하고 독립 운동을 하여 유치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요보’라 불리며 천대를 받는 편이 이롭다고 생각하는 청년이다. 그가 머리를 깎지 않고 갯을 쓰면서 봉건적 인습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 나름의 이해타산에서 온 처세술의 하나인 것이다. 그는 총독부의 시책(공동묘지제)으로 선산을 없앤 후 남은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민족의 운명보다 개인의 처세를 중시하는 그에게 일제의 식민 정책과 한국인의 빈궁 문제는 관심 밖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무비판적이고 몰지각한 한국인의 태도는 식민 통치에 편승하려는 기회주의적 속성으로 심화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김의관’과 ‘김천 형님’을 들 수

두고 「고향」을 이해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시각은 염상섭의 「만세전」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윤식·정호웅(2008), 앞의 책, pp.150-151 참조.

110) 조선총독부 관보 1912. 8. 21 : 임종국(1991), 앞의 책, p.118에서 재인용.

111) 염상섭(2004), 앞의 책, p.69.

있다.<sup>112)</sup> 김의관은 친일 단체인 ‘동우회’의 일원으로 지역 유지(有志)들의 명예욕을 자극하여 그들의 반민족적 행위를 충동하는 인물이다. 그 협잡에 걸려들어 가산을 축내는 게 ‘나의 아버지’와 ‘차지 영감’인데, 그들은 ‘정치열, 명예광에 달떠서’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거나 ‘차지 없습니까?’라는 국적불명의 언어를 사용하며 일본인 행세를 하기에 바쁘다.<sup>113)</sup> 또한 김천 형님은 소학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비싼 값에 팔 궁리만 뿐, 그가 사는 마을이 일본인의 거주지로 변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실제 당시 도심의 노른자위 땅들은 일본인의 소유이거나 그들의 주거지로 바뀌어 갔고,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된 한국인들은 변두리로 이주하거나 토막민촌을 형성해야 했던 것이다.<sup>114)</sup> 이러한 사실은 김천 형님과 같은 이들의 무비판적인 태도가 민족 궁핍화의 계기가 되고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

작가는 이러한 태도와 자기상실의 근간에, 식민 상태와 그로 인한 궁핍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간주하는 ‘무기력한 현실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당시의 한국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래의 (E)와 (F)에서 살펴볼 수 있듯 ‘시든 배춧잎’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서울행 기차안의 승객들과 돈이 있든 없든 진종일 술을 마시는 한국인의 모습은 당시의 무기력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의 발표 시기를 고려한다면, 3·1 운동 이후의 허무주의가 투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E)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나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해에’ 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뿜는 무덤이다!’ (p.111)

(F) 조선 와서 보아야 술이나 먹고 흐지부지하는 것밖에는 사실 할 일이 없다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기도 하지마는, 생각하면 조선 사람이란 무엇에 씨먹을 인종인지 모르겠다. 아침에도 한잔, 낮에도 한잔, 저녁에도 한잔, 있는 놈은 있어 한잔, 없는 놈은 없어 한

112) 그밖에 일본인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조선인)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동경하는 부산의 국숫집 여급과 어설픈 일본말을 사용하는 헌병보조원, ‘여송연’을 피우며 헌 양복에 각반을 차고 일본 버선에 조선 짚신을 신은 ‘얼금뱅이 군청 직원’, 대구의 토지불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일본인 도지사에게 운동을 하는 조선인, ‘주임(奏任) 벼슬을 딴 ‘김병화’ 등이 모두 기회주의적 속성을 지닌 인물이라 할 수 있다.

113) ‘차지(差支)’는 ‘사시스카에(差支)’라는 일본어를 직역한 것으로 잘못된 표현이며, 여기서 ‘사시스카에(差支)’는 ‘웬찮겠습니까?’의 뜻을 지닌다.

114) 임종국(1991), 앞의 책, pp.151-153 참조.

잔이다. 그들이 이렇게 악착한 현실(現實) 앞에서 눈을 감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노력이에요, 그리하자면 술잔밖에 다른 방도와 수단이 없다. (……)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잊어버려라!—이것만이 그들의 인생관인지 모르겠다. (p.128.)

이처럼 식민지 지식인 ‘나’의 눈에 포착된 한국인들은 ‘무비판적’이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작가는 여기에 ‘구더기’와 ‘무덤’이라는 상징으로 따끔한 일침을 가한다. “만세전 무덤 속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 그 무덤으로부터 헤어날 생각들을 못하고 자꾸만 무덤 속으로 파고들려는”<sup>115)</sup> 구더기 같은 민족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각자의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나서는 일이 당시의 민족 현실을 극복하는 방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근대화의 목적은 식민국 주민들의 ‘부’를 창출하는 데 있으므로, 그것의 확산은 식민지 주민의 궁핍을 가져 오게 된다. 앞서 살핀 한국인의 무기력하고 무비판적인 태도 및 자기상실의 문제를 민족 궁핍의 부수적 원인으로 지목한 것도 그것이 식민지 근대화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민국의 경제 침탈은 정치적 억압을 수반한다. 그래야만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 역시 그들의 ‘헌병경찰제도’의 비호 아래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식민지 근대화의 확산을 조장한 또 하나의 부수적 동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sup>116)</sup>

일제의 헌병경찰제도는 주로 ‘나’에 대한 헌병의 감시·미행·소지품 검사, 그들의 감시 하에 운행되는 경부선 열차 등으로 형상화되는데, 그들 앞의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겁에 질리거나 굴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작품이 헌병과 대면한 한국인들의 표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헌병경찰제도의 존립 근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의 헌병경찰제도는 당시 한국인들의 자기상실과 기회주의적 속물성의 근간에 자리 잡고 있던 무기력한 현실 인식을 강화시키고, 자기비하, 굴종, 비굴과 같은 ‘노예의 도덕’을 식민지의 ‘바람직한 처세술’로 수용하게 만드는 제도적 환경으로 작용하였다. 이 같은 노예의 도덕과 처세술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억압과 폭력의 원칙이 본질인 일제의 식민 정책’에 순응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궁핍화를 심화시켜 놓았던 것이다.

115) 송하춘(1995), 앞의 책, p.145.

116) 3·1운동 이후, 일제는 문화통치를 표방하였으나, 헌병 경찰 제도는 오히려 강화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민음사에서 발행한 김윤식·김현(2005) 『한국문학사』, 민음사, p.220을 참고할 것.

이처럼 작품은 식민지 근대화와 헌병경찰제도 같은 외부 요인과 한국인의 무기력하고 무비판적인 태도 및 자기상실의 내부 문제가 복합되어 민족의 궁핍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밖으로부터의 수탈과 안으로부터의 붕괴가 동시에 진행되는 식민지 사회의 모순과 질곡에 대한 통찰”<sup>117)</sup>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의 의식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문제의 해결을 지향한다. 다음을 보자.

(I) “(……)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 살게 되었소? 엿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른다구 깎살릴 것은 다 깎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 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연려를 하고 앉았을 때인지? (……) “아버지, 어머니가 굶어 돌아가도 공동묘지에만 장사를 안 지내면 되겠소?” (……)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 앞으로의 문제, 자식의 문제를 생각하여 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오.” (pp.106-107.)

(J) 나도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될 책임을 느끼고, 또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할 의무를 깨달아야 할 때가 닥쳐오는가 싶습니다..... 지금 내 주위는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생활력을 잃은 백의(白衣)의 백성과, 백주에 횡행하는 이때망량(魑魅魍魎) 같은 존재가 뒤덮은 이 무덤 속에 들어앉은 나로서 어찌 ‘꽃의 서울’에 호흡(呼吸)하고 춤추기를 바라겠습니까. (……) 소학교 선생님이 ‘사벌(환도)’를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외다. 고민하고 오뇌하는 사람을 존경하시고 편을 들어준다는 그 말씀은 반갑고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성(內省)하는 고민이요 (……) 연민은 아무것도 구(求)하는 길은 못 됩니다. ……이제 구주(歐洲)의 천지는 그 참혹한 살육의 피비린내가 건히고 휴전조약이 성립되었다 하지 않습니다. 부절없는 총칼을 거두고 제법 인류의 신생(新生)을 생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학교 교원의 허리에서 그 장난감칼을 떼어놓을 날은 언제일지? 숨이 막힙니다..... 우리 문학의 도(徒)는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이것을 세우는 것이 그 본령인가 합니다. 우리의 교유, 우리의 우정이 이것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이 나라 백성의, 그리고 당신의 동포의, 진실된 생활을 찾아나가는 자각과 발분을 위하여 싸우는 신념(信念) 없이 는 우리의 우정도 헛소리입니다...... (pp.143-144.)

(I)와 (J)에는 문제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가 담겨 있다. (I)에서 ‘나’는 우리 민족에게 닥친 ‘근본 문제, 앞으로의 문제, 자식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게 닥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고, ‘아버지, 어머니가 굶어 돌아가’시는 굶주림의 문제, 민족적 차원의 빈궁 문제라 할 수 있다. (I)에서는 그 문제의 해결 방도로 우리 민족이 봉건적 구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묘지제도’

117) 최순열(1985), 앞의 글, p.173.

를 통해 형상화된 그것은 아내의 주검을 고향 선산에 묻지 않고 공동묘지에 묻는 행위로 구체화된다.

(J)에서는 문제 해결 양상이 일제가 주장한 ‘융화정책’<sup>118)</sup>의 허구성을 고발하고, 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일본인 ‘정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쓴 편지에서 잘 드러나는데, 여기서 ‘나’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관계가 ‘자유’와 ‘진실’을 바탕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자와의 우정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식민국의 중심(동경)에서 그들의 침략 경로를 따라 식민지의 수도(서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 백성과 당신의 동포의, 진실된 생활을 찾아나가는 자각과 발분’ 없이는 ‘우리의 우정도 헛소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나’는 일선융화 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게 된다.

일찍이 일제는 경술년의 ‘강점(強占)’이 ‘침략’이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양국 군주와 국민이 사심 없이 ‘융합’한 형태라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sup>119)</sup> 이러한 식민 논리는 일시동인(一視同仁)설, 공존공영(共存共榮)설, 일선융화(日鮮融化)론, 내지연장(內地延長)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신구 민족 간의 동정과 경애를 바탕으로, 大 大和민족을 만들어 제국의 문화를 발양하는 것’<sup>120)</sup>은 융화정책의 이상이었다. 식민국과 식민지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에 의해 곧잘 부정되었고, 식민 통치 기간에 한국과 일본이 동정과 경애를 바탕으로 교류한 적은 없었다. 작품에서 ‘나’가 ‘자유’와 ‘진실’로 맺어질 수 없는 ‘우정’의 존재를 ‘헛소리’로 일축하고, 정자와의 교제를 단호히 거절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듯 「만세전」은 한국인의 궁핍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그 같은 빈궁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설이다. 작중의 빈궁 묘사가 약화된 것은 서술자를 겸하는 주인공이 일본 유학

118) 동화정책은 식민지를 본국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여 동일한 법을 적용함으로써, 식민지 및 그 주민을 본국의 국민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3·1운동 이후 ‘융화정책’이라는 말로 수정된다. ‘동화’라는 말은 문명이 앞선 일본이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조선인들을 자신들의 상위 문화, 인종에 소화시켜 버린다는 함의를 지니므로, 기미년의 거족적인 저항 운동 이후 양자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는 ‘융화정책’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다. 지수걸 외(2008), 앞의 책, pp.5-15 참조

119) 임종국(1991), 앞의 책, p.111 참조.

120) 지수걸 외(2008), 앞의 책, p.16.



생으로 설정되어, 민족적 빈궁의 현장과 가깝지 않은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인식은 자아각성 이상으로 확장되기 어려웠고, ‘궁핍의 실상과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정확히 이해하는 수준으로 발전될 수 없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만세전」은 탁월한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서술자가 신학문을 배운 비판적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빈궁 문제의 원인을 분석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식인의 자아각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25년 『조선문단』에 발표된 「윤전기」는 신문사 직공들의 파업을 다룬 작품이다. 4개월간의 임금 체불이 노동자와 경영주 사이의 갈등을 빚어낸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 문제를 ‘덕삼’이나 ‘춘식’이 같은 직공들의 입장에서 서술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의 파업을 계급의식에 입각한 주도면밀한 행동으로 그려내지도 않는다. 이는 ‘어떠한 사상도 생활난이 해결된 후에야 성립될 수 있다’고 믿는 작가의 생활 감각에 따른 결과였다.<sup>121)</sup>

또한 이 작품은 개인의 절박한 생활 문제 앞에서 공동체 지향의 사회적 대의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폭로하고 있다. 4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공들에게 ‘굶더라도 신문 발행권을 지키는 일’이 “민족과 사회에 대한 의무”<sup>122)</sup>라는 대의(大義)는 한낱 허망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이 같은 명분보다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생활의 문제’가 더욱 시급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파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 작품은 ‘노동쟁의’나 ‘파업’이 생활난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생활고의 해결’이 노자(勞資)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신문사 간부 ‘A’와 직공들 사이의 갈등이 한 달 치 봉급도 안 되는 돈을 매개로 쉽사리 해소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파업의 현장은 곧 빈궁의 현장이었다. 당시 한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었다. 낮은 임금과 장시간의 노동, 고용주의 임금 체불과 중간 관리인의 경제적 착취 및 민족 차별은 노동쟁의나 파업을 빚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sup>123)</sup>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작품에 드러난 ‘빈궁’은

121) 김윤식(1987), 『염상섭 연구』, 서울대출판부, p.295.

122) 염상섭(2006), 「윤전기」, 『두 파산』, 문학과지성사, p.247.

123) 이병례(1999), 앞의 글, pp.15-22 참조.

과업을 일으킨 직공들이 아니라 경영자의 대리인인 'A'가 겪는 생활난을 통해 제시된다. 'A'는 자신의 생활난보다 경영난을 더 걱정하는 인물이지만, 그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넉 달 간의 임금 체불'과 '뚝린 두루마기', '사흘 전에 바닥난 쌀' 등은 이를 헤아릴 수 있게 해준다. 신문사 직공의 처지가 간부보다 나을 순 없으므로 'A'의 처지는 신문사 직공들의 사정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된다. 그러나 그의 처지가 직공들의 생활고를 정확히 대변해줄 수 없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음 해에 발표되는 「조그만 일」(1926)은 가난한 지식인 부부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그 줄거리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길진'은 원고료 수입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지식인이고, 그의 아내 '혜순'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물이다. 혜순의 바람은 '남편에게 사오십 원짜리 직장이 생기고 자신은 유치원이나 소학교 교사'가 되어 정기적인 수입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단칸방의 남의집살이와 밀린 월세, 원고료 체불 등으로 그녀의 이상을 배반한다. 혜순이 자신을 가난한 남편에게 기생하는 군식구 정도로 비하하여 자살을 기도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소설의 원제가 '자살미수'일 수 있었다.

실제 192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 사회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들의 취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식민국 경제의 장기 불황에 따른 일본인 이주자와 근대교육 이수자들이 많아지면서, 당시의 한국 사회는 취업에 관한 고등교육의 효용성이 급격히 떨어졌던 것이다.<sup>124)</sup> 특히 보수와 노동 조건이 좋고 명예가 보장되는 관공서, 교원 등의 전문직은 일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했고, 식민지 지식인들의 학문적 기량을 충분히 펼칠 직장과 언론매체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다. 그 결과 당시 신문의 사회면에는 '실업지식군(失業知識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고, 젊은 룸펜 인텔리겐치아가 속출하게 되었다.<sup>125)</sup> 룸펜과 다름없이 불규칙한 원고료 수입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일용직 지식인 길진은 이러한 식민지적 조건의 희생자였던 것이다.

한국인 여성의 취업 문제는 한층 심각했다. 일본인 남성과 여성, 한국인 남성에게 밀려난 그들에게는 취업의 기회조차 흔하게 주어지지 않았고, 취직처도 좋

124) 지수걸 외(2008), 앞의 책, p.125.

125) 같은 책, 같은 면. 이보영(2001), 앞의 책, p.17.

지 않아 취업자의 다수는 ‘어머니’나 ‘여보’로 불리던 일본집 하녀가 되어야 했다.<sup>126)</sup> 취업난은 생활난, 생활고로 귀결되게 마련이었다. 실제 이 무렵에는 취업난에서 불거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청년 실업자가 많았다.<sup>127)</sup> 이러한 상황은 고등학교 졸업자인 혜순이 교원이 되지 못하고 생활난으로 자살을 기도하게 된 사정을 잘 보여준다. 한편 작중에 밭살맞게 그려지는 ‘행랑어멈’의 존재는 이 시기의 취업 문제가 지식인들에게만 귀속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길진이 행랑살이를 “제 고향에서도 배기지를 못하여 서울까지 빌어먹으러 올라온 것”<sup>128)</sup>으로 규정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이처럼 「조그만 일」에 나타난 빈궁 모티프는 한국인의 취업난과 결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정 중심의 서사가 작품의 사회적 의미를 약화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자신들이 겪는 ‘생활난과 생활 불안이 자기네만의 일이 아니라’<sup>129)</sup>는 길진의 말은 그의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처럼 「만세전」, 「윤전기」, 「조그만 일」의 ‘빈궁’은 지식인을 매개로 향상화되었다. 그래서 당시 민중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무산무식 계급의 삶이 작중에 구체화되지 않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민족 문제 해결에 있어, 지식인의 자아각성을 중시했던 까닭이다. 작가가 보기에 민중은 민족의 운명보다 자신들의 생활 문제에 더 골몰하는 집단이었다. 그들은 매우 궁핍했기 때문에 생활 이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고,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민중의 처지를 이해하려 했던 것이다. 그 결과 그의 작품에는 민중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부각될 수 없었다. 그러나 「만세전」의 ‘나’와 「윤전기」의 A, 「조그만 일」의 길진 모두가 지식인이었던 까닭에, 당시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 질곡을 정확히 포착하고 충실히 반영할 수 있었다. 이 점은 이들 소설이 보여준 분명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126) 지수걸 외(2008), 앞의 책, pp.120-132 참조.

127) 같은 책, p.133 참조.

128) 염상섭(1996), 『정통한국문학대계』 제3권, 어문각, p.488.

129) 같은 책, p.486.

### 3. 현진건: 빈궁 해결의 주체와 민중의 발견

「운수좋은 날」(1924)은 가난한 인력거꾼인 ‘김 첩지’가 병든 아내와 굶주린 자식이 있는 집을 떠나 “기적에 가까운 벌이”<sup>130)</sup>를 하고 귀가하는 하루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당시 도시 노동자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김 첩지 가족을 통해, 1920년대 가난한 하층민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김 첩지의 가난은 그의 외양에서부터 드러나는데, 그는 “은 턱과 뺨에 시커멓게 구레나룻이 덮고, 노르탱탱하게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파이고 수염도 있대야 턱밑에만, 마치 솔잎 송이를 거꾸로 붙여 놓은 듯한”<sup>131)</sup> 얼굴에 강마른 체구를 하고 있다. 게다가 그의 아내는 배를 굶다 병이 들었고, 어미의 나오지 않는 젖을 빠는 자식도 굶주리기는 매한가지다.

그러나 김 첩지와 그 아내는 가난과 질병으로 점철된 현실을 거부한다. 오랜 주림 끝에 맛본 조밥으로 인해 중병이 든 아내가 설렁탕을 먹고 싶어 하듯, 김 첩지는 태울 손님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난과 질병에 지배당하는 자신의 집을 벗어나 인력거 손님을 기다린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근 열흘만에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하였으나 그 기적은 하루도 지속되지 못한 채 허무하게 사라지고 만다. 굶주림과 중병에 시달리던 아내가 설렁탕이라는 작은 행운마저 누리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한 까닭이다. 이로써 가난과 질병으로 점철된, 김 첩지의 집은 가난과 죽음이 지배하는 더욱 비극적인 공간으로 변모된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 요행으로도 개선되지 않는 현실의 비정함을 작가는 아내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 앞에서 망연자실하는 김 첩지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김 첩지 가족에게 주어진 현실은 아이러니하기만 하다. 표면적으로는 30전, 50전, 1원 50전의 일시적 행운이 주어지지만, 상승된 행운만큼 더 큰 불행과 비극이 준비되어 있는 공간이 1920년대 가난한 하층민을 둘러싼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야누스적인 현실의 구조를 작가는 이 세계와 빼닮은 아이러니라는 기

130) 현진건(2006), 「운수좋은 날」 『현진건 단편 전집』, 가람기획, p.259.

131) 같은 책, pp.259-260.

범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결합해나가는 기법과 예정된 비극을 향해 사건을 전개시키는 작가의 태도, ‘집’이라는 공간의 상징성을 통해 아이러니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겨울이라 눈이 올 것을 기대하기 마련이지만 그 기대를 묵살하며 내리는 비, 비가 오면 평소보다 수입이 줄어야 하는데도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하게 되는 김 첩지의 상황, 오랜 주림 끝에 간신히 먹게 된 조밥으로 병세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증병으로 악화되어 버리는 아내의 처지 등이 절묘하게 결합되면서,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김 첩지에게 주어지는 행운이 언젠가는 커다란 불행으로 바뀌고 말 것임을 강하게 암시해주고 있다. 이를 서술하는 작가의 태도 역시 주인공의 의지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이미 확정된 파국으로 주인공을 몰아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로 인해 작품의 비극적인 결말은 피할 수 없는 요지부동의 현실이 되고 만다.

쿨룩거리는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리는, 깨뜨린다느니보다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딱딱하는 그윽한 소리, 어린애의 젖 빠는 소리가 날 뿐이다. (...중략...) 하여간 김 첩지는 방문을 활짝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추기..... 떨어진 샷자리 밑에서 나온 먼지 내,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 내, 가지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옷 내, 병인의 땀 섞은 내가 섞인 추기가 무덤 김 첩지의 코를 찔렀다.<sup>132)</sup> (밀줄-인용자, 이하 같음)

또한 가난과 질병이 지배하는 ‘집’이라는 공간의 상징 역시 아이러니하다. 일반적으로 집은 가족구성원들의 안식처로 생명력이 충만한 공간으로 인식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위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 김 첩지의 집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생명이 위협당하는 결핍의 공간(전반부에 나타난 집의 이미지), 살아있는 자의 시각과 청각, 후각이 온통 죽음을 감지하는 데 소용되는 ‘무덤’과 같은 공간(후반부에 나타난 집의 이미지)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김 첩지는 집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 ‘극빈의 현실’을 상징하는 집을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당시 하층민들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밖에서 제1, 제3의 행운을 얻기도 한다. 그럼에도 김 첩지가 집을 뛰쳐나가는 행위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행운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일탈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132) 현진건(2006), 앞의 책, pp.264-265.



왜냐하면 집을 벗어난 자에게 주어지는 행운은 일시적인 반면, 그들이 집에 되돌려지는 순간 치르게 될 고통은 영속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설렁탕을 사들고 돌아온 김 침지를 맞이한 것은 아내의 주검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렇듯 가난과 질병, 굶주림에 지배당하는 하층민의 집은 그 곳을 벗어나려는 개인의 의지나 노력, 운수의 여하로는 극복될 수 없는 절망의 공간이자, 당대 하층민의 현실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공간이었던 것이다.<sup>133)</sup>

앞서 살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결합해나가는 기법과 예정된 비극을 향해 사건을 전개시키는 작가의 태도, ‘집’이라는 공간의 상징적 의미 속에는 하층민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즉 당시 하층민의 궁핍한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절곡으로 인식하여 그 극복 가능성을 미리부터 차단하는 결정론적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신분이나 문벌 같은 옛것의 가치가 추락한 과도기 식민 사회에서도, 하층민들은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라는 기존의 계층적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식민 정책의 가장 큰 피해 계층으로 전락했다. 이들의 비극적인 삶의 내력은 고정관념의 하나로 자리 잡아, 하층민에 대한 결정론적 인식을 낳는 강력한 사회·역사적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대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작가가 하층민의 삶을 이렇게 결정론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식민 현실을 극복하는 양식으로서 결코 건강한 것이 못 된다. 그것은 자칫 현실에 순응하는 나약한 대응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up>134)</sup>

이렇듯 현실 개혁의 측면에서는 결정론적 세계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면서도 ‘빈궁’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것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는 날카로운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작품 속에 두 차례나 언급된 ‘전차’의 상징성과 술에 취한 김 침지가 욕설을 퍼부으며 ‘돈’을 태질하는 장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A) 문안(거기도 문밖은 아니지만)에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차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하여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p.252.)

133) 현길언(2000), 앞의 책, pp.281-282 참조.

134) 현길언(2000), 앞의 책, p.124.

(B) 전차가 왔다. 김 첩지는 원망스럽게 전차 타는 이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전차가 뽀뽀하게 사람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제 타고 남은 손 하나가 있었다. 굉장하게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뽀뽀는 차 안에 짐이 크다 하여 차장에게 밀려 내려온 눈치였다. 김첩지는 다가섰다. (pp.258-259.)

(C) 몇 푼 은전이 잘그랑하며 떨어진다. (……) 김 첩지는 취한 중에도 돈의 거처를 살피는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다보다가 불시에 제 하는 것이 너무 더럽다는 듯이 고개를 소스라치자 더욱 성을 내며 (……) “이 원수의 돈! 이 욕시를 할 돈!” 하면서 팔매질을 친다.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술 끓이는 양푼에 떨어지며 정당한 때를 맞는다는 듯이 쟁하고 울었다. (pp.261-262)

(A)와 (B)에서 김 첩지는 전차를 이용하려는 손님이나 전차에서 거부당한 손님을 태운 것을 감지덕지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일시적 행운에 가려 근 열흘 동안 별이가 없었던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김 첩지와 달리, 작가는 이 지점에서 인력거꾼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제기한다. 즉 인력거꾼 김 첩지에게 별이가 주어지지 않았던 이유를 ‘운수나 요행의 부재’가 아닌 ‘전차의 등장’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다음을 보자.

빗을 다고 전당다여 인력거를 사셔놔코  
 봉두난발 적각(赤脚, 벗은 다리)으로 풍우한서 무릅쓰고  
 병문과수(屏門把守) 하다십히 불분주소(不分晝宵) 하오면서  
 푼푼히 버러다가 행랑(行廊)살이 협호(挾戶)살이 부모처자 살갓더니  
 전차비고 기차나니 인력거가 세월업소<sup>135)</sup>

위 인용문은 1908년 대한민보에 실린 시로, 어렵사리 장만한 인력거가 전차와 기차에 밀려 어느새 구식이 되어버렸음을 한탄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여기서 ‘전차’의 사회적 상징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전차는 우리나라에 제국주의적 관심을 가졌던 미국에 의해 1898년에 개통되었다.<sup>136)</sup> 자생적 근대화가 아닌 식민

135) 《대한민보》 1908년 3월 26일자 : 김진송(2004), 앞의 책, p.146에서 재인용.

136) 전차는 미국인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개통되었다. “개통 1주일 뒤 탑골공원 앞에서 어린이가 전차에 깔려 죽자 군중이 전차 두 대를 불태우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 뒤에도 어린이들이 깔려 죽거나 다치는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 있었다 한다. 처음에는 시민들이 전차를 마귀처럼 바라보았으나 차츰 그 신속함과 편리함을 알게 되었다. 먼저 종로에서 남대문 노선이 연장되었으며 1900년에는 원효로 4가까지 확대되었다. 1903년에 서병달이라는 사람이 전차를 타지 말라는 방문을 걸고 북을 울리며 사람들의 승차를 막았으며 심지어 돌을 던져 전차를 부수기도 했다. 그러나 전차는 서울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갔던 것이다.” 서병달의 저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차는 식민지 근대화의 산물이었다. 당시 태평양 연안에 있던 미국도 러일전쟁 전까지는 구한국에 제국주의적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미국은 1905년

지 근대화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근대화를 이루려는 자발적 노력의 산물’이었으나 봉건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인력거’보다 빠르고 편리한 물건임에 틀림없었다. 그래서 인력거는 전차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인력거꾼의 생계도 그만큼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작품은 ‘전차’로 상징되는 ‘식민지 근대화’가 자생적 근대화의 의지를 꺾고 인력거꾼 김 첩지로 대표되는 도시 하층민의 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류장으로 가는 손님이나 전차에서 밀린 손님들을 태워 번 돈으로 김 첩지는 술을 마신다. 행운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기에 잇따른 요행에 기뻐하면서도 그만큼 가중되는 불안감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과음한 김 첩지는 술주정을 하며, (C)에서와 같이 자신이 번 돈을 집어던진다. 자기 가족의 비참한 현실이 ‘돈’이 없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잔돈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김 첩지는 곧 그것을 주우려고 애쓴다. 그러다 주운 돈을 다시 팔매질하며, ‘원수의 돈’이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취중에도 그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참한 욕망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돈’은 ‘일제가 식민지 한국 사회에 이식해놓은 자본주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은 식민 자본주의를 한국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가장 비근한 예로 1905년의 화폐정리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일본 화폐를 이식하여 한국에 대한 경제 침탈을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되었던 것이다.<sup>137)</sup> 이 사업은 구백동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구백동화를 화폐의 질에 따라 갑·을·병으로 구분하고, 새로운 화폐와 2.5 : 1 : 0의 비율로 교환하게 하였다. 갑종 백동화는 액면 가격대로 교환되었던 반면, 을종 백동화는 2전 5푼짜리를 1전으로 감하여 교환해 주었고 병종 백동화는 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폐기하였던 것이다.

미리 사업의 내막을 알고 있던 일본인들은 악화를 양화로 바꾸어 화폐 개혁의 손실을 최소화했고, 돈 장사를 하여 그것을 치부의 계기로 삼기도 했다.<sup>138)</sup> 반면

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사실상 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 지배를 용인하기에 이른다. 이이화 (2003), 『한국사 이야기』 제19권, 한길사, p.126.

137) 화폐정리사업 관련 사실 자료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였다. 조동걸(1979), 『일제하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pp.25-27 참조.

그것을 모르고 악화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한국인들은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들의 구백동화는 거의 울종이나 병종으로 판정 났기 때문이다. 결국 화폐정리사업은 우리 민족자본을 파산시키고 심각한 전황(錢荒)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한국인을 희생시킨 대가로 막대한 백동화와 엮진, 은화를 약탈한 일제는 한국 화폐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식민 경제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sup>138)</sup> 화폐의 원활한 유통은 일본의 상품과 자본 이동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근대적 화폐 제도의 수립을 내세우고 있었으나 실상은 식민 자본주의를 이식시키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김침지의 돈은 식민 자본주의를 상징하고, 그가 돈을 팔매질 치는 행위는 ‘화폐를 통해 유입된 식민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작가는 당시 하층민의 비극적 현실이 ‘식민지 근대화’와 ‘이식 자본주의의 도래’에서 비롯되었음을 전차와 돈이라는 소재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층민의 비극적 일상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1926년 1월에 발표된 「사립 정신병원장」에서도 빈궁 모티프가 나타난다.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비롯된 빈궁 문제를 ‘계층의 양극화 현상’과 관련하여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주로 물질적 측면에서 다루어졌던 궁핍의 문제를 정신적 측면에서도 두루 살필 수 있게 해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식이나 물질을 ‘가진 자’가 그것이 걸여된 계층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조롱, 비난할 때 생길 수 있는 결과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계층 간의 단절과 그로 인한 소외의식이 가난한 하층민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그들의 정신적, 물질적 파멸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작품은 피폐해진 고향의 모습과 본가의 줄어든 살림살이를 언급하며 시작된다. 가을바람에 나누끼는 포플러 잎보다 보잘것없이 흩어진 일갓집들, 쇠락한 살림, 자기 부모조차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식들의 모습은 당시 농촌 사

138) 이 법의 제정과 공포 사이에 불과 3일의 여유밖에 없었기 때문에, 화폐 개혁 전후 병종 백동화로 거액의 상품을 구입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권효문(2007), 앞의 책, pp.132-134 참조.

139) 같은 책, 같은 면 참조.

회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일제의 식민 정책이 농촌의 토지를 점탈하고, 농촌 경제구조를 재편하는 데서 시작되었음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농촌의 경제구조는 식민지주제(植民地主制)의 강화로 소수의 식민 지주와 다수의 소작농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예속된 소작농의 수효만 해도 전체 농민의 8할에 육박했던 것이다.<sup>140)</sup> 식민 지주의 수탈로 더욱 영세해질 수밖에 없었던 소작농들은 결국 농업노동자가 되어 농번기에는 농업임노동자로 종사하고 농한기에는 인근 도시로 나가 자유노동을 하는 반농반노형의 노동자가 되거나 머슴 같은 고용노동자가 되어야 했다.<sup>141)</sup> 그도 아닌 경우는 화전민이나 토막민이 되어 농촌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흩어진 일가집들과 쇠락한 살림’이라는 농촌 묘사는 이 같은 현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서두의 배경 묘사는 고향 상실의 전조를 형성하고 있다. 게다가 ‘자기 부모조차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식들의 모습’은 가난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의 비극을 예고해주기도 한다. 작중 W군의 삶은 서두의 전조와 서술자의 평가처럼 “음산하고 참담”<sup>142)</sup>한 것이었다. 거기에는 정상인을 미치광이로, 평범한 지식인을 살인자로 전락시키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W군은 서울에서 고풍(苦學)한 지식인이나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넉넉지 않은 처가에 살림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다. 힘든 처가살이 끝에 분가하고 어렵사리 은행의 임시 직원으로 입사했지만 거기서도 얼마 되지 않아 정리 해고를 당하고 만다. 생계가 막막해진 그는 결국 ‘사립 정신병원장’이 된다. 수 천석꾼의 외동아들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P의 보호병 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작중 W군의 비극은 ‘사립 정신병원장’이 되면서 시작되는 듯 보이나 실상 그것은 W군의 장기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 상황(임시직 취업과 해고)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경성 사람들의 직업사정을 보여주는 1924년의 동아일보 기사는 W군의 비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것에 따르면 경성부 거주 한국인 20만 7,000

140) 당시 한국 총인구수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8할이고, 그 중 8할이 식민 지주에 예속된 소작농이었다는 사실은 일제의 농촌 수탈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조동걸(1979), 앞의 책, pp.11-31 참조.

141) 박효문(2007), 앞의 책, pp.124.

142) 현진건(2006), 앞의 책, pp.287-288.



여 명 중에 취업자는 5만 4,800여 명으로 유직자의 비율이 전체 26.5%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sup>143)</sup> 경성만 해도 70% 이상의 무직자가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인 무직자가 주로 노인층에 집중되었던 반면, 한국인 무직자는 대개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었고, 취업사정도 매우 불안정하여 반복적인 해고와 재취업, 전직에 시달리는 형편이었다는 데 있었다.<sup>144)</sup> 이 무렵의 한국인들은 거의 모든 직종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경험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관공서는 물론 일반 기업체와 공장의 해고도 일상적이었고, 장기 근속자를 도태시키려는 목적의 해고가 이루어지기도 했다.<sup>145)</sup> 이 같은 상황에서 10년 근속자는 신문기사거리가 될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었다. 작중 W군의 실업과 임시 직원으로의 고용 및 해고, ‘사립 정신병원장’으로의 전업은 당시 불안정한 취업사정을 잘 보여주며, 그것이 생활의 불안과 동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작품은 당시의 실업난과 불안정한 취업사정 외에 하층민의 빈궁을 심화시키는 요인을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있다. ‘계층 간의 양극화’가 그것이다. 이것은 “고생에 부대끼면서도 얼굴 한번 찡그리는 법이 없”<sup>146)</sup>이 “언제든지 싱글싱글 웃”<sup>147)</sup>던 낙천가를 음산하고 참담한 인간으로 변화시키고 광인에서 범죄자로 추락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요릿집에서 W군과 ‘K를 비롯한 친구들’ 간의 갈등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그것을 계기로 W군의 성격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요릿집에서 W군은 혼자 유쾌하고 기쁜 듯이 노래하고 춤을 추었으나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셔댔다. ‘나’는 이러한 W군의 행동들을 눈여겨보며 그에게 과음의 이유를 묻는 반면, 나머지 친구들은 W군을 원장 영감이라고 조롱하며 그의 고된 일과를 한낱 우스갯거리로 추락시키거나 그의 과음을 더욱 부추기기만 했

143) “조선인 유직자는 전체의 2할 5푼”, 《동아일보》 1924. 2. 29 : 지수결 외(2008), 앞의 책, p.132에서 재인용.

144) 같은 책, pp.132-133 참조.

145) 같은 책, pp.130-131 참조.

146) 현진건(2006), 「사립 정신병원장」, 『현진건 단편 전집』, 가람기획, p.288.

147) 같은 책, p.288.

다. 생존의 위협과 주변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사립 정신병원장을 그만둘 수 없었던 W군에 대한 친구들의 조롱은 술자리가 파하는 순간까지 이어진다. 그들은 ‘친구’이면서도 남은 음식을 싸는 W군의 행동을 이해하기는커녕 그를 더욱 업신여기며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곁에 있던 기생까지 W군을 멸시하기에 이르자 그의 소외의식은 극에 달하여 ‘자신을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간 이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른다.

그러나 W군의 폭력성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들에 한정되지 않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방화)과 간호 대상인 P(살인)에게 심화·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극심한 빈곤과 ‘가진 자’들의 멸시로 정신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W군이 자기파멸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작품은 빈궁 문제와 더불어 양극화 문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즉 하층민의 고통을 외면·조롱하는 ‘가진 자’의 태도가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신적 폭력 행위일 수 있음을 W군의 성격 변화와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sup>148)</sup>

「사립 정신병원장」이 ‘계층 간의 갈등’에 주목했다면 같은 해에 발표된 「고향」(1926)은 ‘계층 간의 화해’를 보여주고 있다. 가난하지 않은 계층의 ‘나’가 딱 벌이 노동자인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하층민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한·중·일 삼국의 옷을 걸치고 삼국의 말을 지절거리는 ‘그’에게 ‘나’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를 냉대하는 일본인, 중국인과 다름없이 거리를 두고 대한다. 그의 복장과, 이민족에게 치근대며 주적거리는 모습이 ‘나’의 눈에 밟살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반감과 거리감은 ‘그’의 고향 상실, 육친 상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사라진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민족의 참혹한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148) 광인을 돌보던 이를 광인으로, 낙천가를 음산하고 참담한 인간으로, 평범한 지식인을 살인자로 전락시키는 아이러니한 현실의 위력이 K와 같은 인물들을 매개로 가난한 하층민에게 두루 행사되고 있다는 점은 양극화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당대 사회의 모순과 결합될 때, 양자가 지닌 위험성은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친구의 처절한 현실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 대신 그 위에 군림하여 W군의 울분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K의 비정한 태도는 1920년대 왜곡된 사회의 모습과 닮아 있어 더욱 문제적이다.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회의 ‘가진 자’로서, 자신이 지닌 재력과 권력, 지식으로 왜곡된 사회의 모순을 바로잡기보다는 그 모순에 기대 일신의 안위를 추구하고, 하층민의 삶을 업신여기는 K의 모습은 1920년대 타락한 지식인과 부도덕한 ‘가진 자’의 실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은 당시 지식인과 ‘가진 자’의 상황론적 처세술, 인간성 상실의 문제까지 겹쳐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sup>149)</sup>은 역둔토의 소유주가 동양척식주식회사로 바뀌면서 시작되었다. 동척이 소출의 칠 할 이상을 소작료로 거두어갔기 때문이다. 실제 동양척식주식회사는 한·일합자회사로 양국이 공동으로 주주가 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사실상 주식의 대부분은 일본인 소유였고 그들의 농업 이민을 안착시키기 위해 설립된 회사였다.<sup>150)</sup> 창립 당시에는 한국정부에서 출자담(出資券) 1천 8백 30정보, 한전(旱田) 6백 6정보를 불입하여 발족했던 것이 토지매수를 통해 1년만에 3만여 정보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동척이 자평하듯 세계 제국주의 역사상 유례없이 많은 수치였다. 이렇듯 동척의 사업은 ‘2백만 일본인을 한국에 이주시키려던 계획’의 전초 작업이나 다름없었다.<sup>151)</sup>

문제는 일본의 정부나 지방 현에서 보조금을 받고 한국의 토지 매수와 일본인 농업 이민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동척 외에도 많았고,<sup>152)</sup> 경술국치 이후 토지조사 사업의 성과로 대폭적인 농업 이민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5할의 소작료를 평균 2할 이상 더 늘려 수탈하였고, 지세와 비료대금 같은 농업경영상의 비용까지도 소작농들에게 떠넘겼다.<sup>153)</sup> 더욱이 동척이 자국의 농업 이민들에게 분배한 토지는 새로 개간한 토지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소작하고 있던 옥토였다. 일본인 부락이 형성된 근방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 시장에서 2리 안에 든 문전옥답은 거개가 일본인의 소유가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 농민의 영세화를 불러 왔고, 그들을 토지로부터 축출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기

149) 현진건(2006), 「고향」, 『현진건 단편 전집』, 가람기획, p.311.

150) 동양척식주식회사 관련 사실 자료는 모두 조동걸의 『일제하한국농민운동사』를 참조하였다. 조동걸(1979), 앞의 책, pp.71-80 참조. 일제는 조선 병합 전인 1908년 우리나라 산업자본의 조장과 개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국의회에서 국책회사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1천만 원의 자금으로 설립한 동척은 우선적으로 조선의 토지를 사들이는 일에 착수했다. 그래서 1913년까지 4만 7천 148정보의 토지를 매수하고 1914년에는 전라도, 황해도의 비옥한 전답을 강제로 사들였다. 이리하여 1924년에는 6만 591정보의 토지가 동척 소유로 바뀌고, 정부 소유지 1만 7천 814정보까지 출자 받아 동척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강점한 토지는 소작농민에게 5할이 넘는 고율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한편, 영세 농민에게 빌려준 곡물에 대해서는 추수 때 2할 이상의 높은 이자를 현물로 받았다. 결국 소출의 7할 이상을 동척에 제공해야 했던 셈이다. 1924년의 통계에 따르면 동척은 소작료로 현미 2만 184석, 벼 45만 7천 89석, 콩 6천 409석, 잡곡 9천 707석, 목화 7만 295근, 현금 11만 6천 260원 등을 징수하여 일본에 반출하였다고 한다.

151) 이것은 초대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조선중앙농회 창립 석상에서 밝힌 계획의 요지이다. 조동걸(1979), 앞의 책, p.72.

152) 동척 외의 척식주식회사로는 불이흥업회사, 한국농업주식회사, 한국흥업주식회사, 한국실업주식회사, 일본인업주식회사, 한일흥업주식회사, 한국척식주식회사 등이 있었다. 같은 책, p.29.

153) 광효문(2007), 앞의 책, p.116.

도 했다.

반면에 일본인 이주자들은 동척이 제1종 이민자에게 자작 용도로 할당한 2정보까지 소작을 놓았고, 대신 고리대금업과 같은 착취업에 종사하며 대지주로 성장해갈 수 있었다.<sup>154)</sup> 게다가 1912년 10월 30일에 공포된 역둔토특별처분령(驛屯土特別處分令)의 특혜가 동척에 주어지면서 동양척식회사는 6만 4천 862정보(1913년 기준)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sup>155)</sup> 이 땅들은 소유주의 변화와 함께 제국주의적 이득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둔갑되었던 것이다.

K군 H라는 ‘그’의 고향은 이 같은 수탈의 역사를 보여준다. 본래 역둔토는 사шат 땅을 부치는 것보다 소작료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역둔토특별처분령으로 동척의 소유가 된 역둔토는 고율의 소작료가 부과되는 수탈의 장으로 변한다. 소작농들에게 “반분이상의 소작료는 상례가 되고 그밖에도 지세, 비료대, 사음료(舍音料), 소작료, 두량과다(斗量夥多), 수리세(水利稅), 출포료(出浦料) 등”<sup>156)</sup>이 청구되는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 소작인의 실소득은 ‘空’에 가까워졌고, 한국 농민의 토지 이탈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만다. 이처럼 K군 H는 일제의 수탈로 인한 우리 민족의 궁핍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의 고향이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면, 그곳 주민들은 우리 민족의 필부필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역둔토특별처분령으로 하루아침에 동척의 소작농이 된 마을사람들은 하나둘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 고율의 소작료와 빈사지경의 가난을 견디지 못했던 까닭이다. ‘그’의 가족들도 그들의 처지와 다를 바 없었으므로 고향을 이탈하여 서간도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간도의 척박한 환경과 고된 노동, 지속적인 굶주림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타국의 고흘(孤魂)으로 만들었고, 혈혈단신의 ‘그’를 막벌이 노동자로 전락시켰다. 이들의 삶은 토지로부터 축출된 이후 만주로 이주하거나 일본으로 밀항하

154) 초기에 동양척식회사는 제1종 이민자와 제2종 이민자로 분류하여 제1종 이민자에게는 자작 용도로 2정보의 토지를, 제2종 이민자에게는 소작경영용으로 10정보의 땅을 분배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이민자들은 하나같이 소작경영을 했고, 월 이자가 2할에 육박하는 고리대금업을 통해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여 대지주로 성장해갔다. 토지용도 규정이 사실상 쓸모없었음을 자인한 동척은 1922년에 5정보 이민으로 통합하여 땅을 배분하게 된다. 조동걸(1979), 앞의 책, pp.76-78 참조.

155) 같은 책, p.75 참조.

156) “소작인은 단결하라”, 《동아일보》 1922. 8. 2 : 권진국(2000), 「최서해 소설 연구-작품 양상과 작가 의식의 변모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p.7에서 재인용.

여 일용직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이농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려서 유곽에 팔린 ‘퀄녀’의 삶도 ‘그’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19년 미국 『시카고트리뷴』에 실린 한 사설에 따르면 한국의 유곽은 ‘일본이 조선인 남녀를 타락시키고자’ 설립한 것으로 1916년에 공창 제도가 합법화되면서 전국에 증설될 수 있었다고 한다.<sup>157)</sup> 초기에는 일본 여성으로만 구성하다가 점차 한국인 여성으로 대체해갔고, 그 중 다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농촌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유곽과 요정, 매음굴을 운영하는 일본인 경영주에게 물질과 성, 양면으로 예속되어 있었고 이종의 착취를 감당해야 했던 것이다.<sup>158)</sup> “몸값 20원을 10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빛이 60원이나 남”<sup>159)</sup>은 퀄녀의 사정은 일본인 경영주의 수탈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결국 그녀는 교환가치가 없어진 기생퇴물로 “머리가 훌렁 다 벗겨지고 유산을 끼어 놓은 듯한 얼굴의 산송장”<sup>160)</sup>이 되어서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작품은 일제의 착취로 생존의 제반 조건을 상실해가던 당시의 민족 현실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뿌리 뽑힌 하층민의 실상을 K군 H 주민들의 몰락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결말부에 제시된 다음의 노랫말은 그들이 놓인 삶의 자리가 개인적이고 특수한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환기해준다. 근대 민요인 ‘서울아리랑’의 한 대목을 제시함으로써 K군 H 주민들의 삶에 민족적 차원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벗섬이나 나는 진토는  
신작로가 되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로 가고요

157)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검색어: 유곽) 참조.

158) 임종국(2004), 『밤의 일제 침략사』, 한빛문화사, pp14-31 참조.

159) 현진건(2006), 앞의 책, p.310.

160) 현진건(2006), 앞의 책, pp.310-311.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sup>161)</sup>

위 노랫말에 등장하는 ‘신작로’와 ‘감옥소’, ‘공동묘지’와 ‘유곽’은 하나같이 일제가 주도한 식민지 근대화와 식민 정책의 산물이다. 일제는 근대화라는 미명아래 이 같은 시설을 정비해 갔으나 그 시설들은 우리 민족을 효과적으로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 신작로는 수탈을 원활하게 하는 통로로, 감옥소는 일제에 저항하는 한국인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공동묘지는 선산까지 약탈하려던 속내를 치장하는 구실로, 유곽은 한국인의 도덕성을 타락시키는 공인 기관으로 기능한 바 있다. 더욱이 서울아리랑 중 “아이깨나 낱을 년 갈보질 가고, 목도깨나 땀 뚫은 일본 간”<sup>162)</sup>다는 대목은 중심인물들의 삶이 허구가 아니라 ‘시대적 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처럼 「고향」은 민족의 빈궁한 현실을 형상화하고, 그것이 식민 통치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 소설에서 보이던 결정론적 현실 인식을 극복하여 문제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계층 간의 화합과 연대’를 그 실마리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 현실을 몰라도 생계에 지장 받지 않는 계층의 ‘나’<sup>163)</sup>가 ‘그’로 대표되는 낙오 계층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과정으로 구체화된다. 다음을 보자.

① 나는 썩썩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 버렸다. 그 주적대는 꼴이 어쭙잡고 뭉살스러웠다. (p.305)

② 나는 이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말씨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또 굳이 대답하기도 싫기에 덤덤히 입을 닫쳐 버렸다. (p.305)

③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하였다. (……) 나는 그 신산스러운 표정에 얼마쯤 감동되어서 그에게 반감이 풀려지는 듯하였다. (p.306)

④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

161) 현진건(2006), 앞의 책, pp.311-312.

162) 조동일(2005), 『한국문학통사』 제5권, 지식산업사, p.272.

163) ‘나’는 6-7년간 서울에 거주했지만 그곳의 노동 숙박소나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

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p.306)

⑤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에 친구들이 사 준 정중병 마개를 빼었다. (p.308)

⑥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싶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p.309)

⑦ 나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 (p.311)

⑧ 우리는 주거나 받거나 한 되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흥에 겨워서 어릴 때 멧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 (p.311)

위의 ①~⑧은 서사가 진행될수록 ‘그’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여기서 ③과 ⑥은 태도 변화의 기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전까지 지속되었던 ‘그’에 대한 계층적 반감과 갈등이 ③에서 해소되고 있고 ⑥에서는 동질성 회복의 단초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④~⑤의 ‘나’는 단순한 위로자로서 ‘그’에게 연민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으나 ⑥을 계기로 ‘나’가 지닌 연민의 감정은 민족적 유대감으로 승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⑥에 이르러서야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조선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은 ⑧에서와 같이 ‘나’와 ‘그’ 사이의 거리를 좁혀 ‘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게 해준다. ‘참혹한 사람살이’에 눈물을 흘리고 ‘주거나 받거나’ 술을 마시는 이들의 모습은 민족 화합의 한 일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고향」을 계기로 「운수좋은 날」이나 「사립 정신병원장」에서 보였던 결정론적 인식은 극복되기 시작한다. 못 가지고 못 배운 민중을 연대의 대상이자 문제 해결의 주체로 끌어올리는 ‘인식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가는 민중을 단순한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연대’의 대상으로 그려내어 지식인이라는 계층적 지위를 벗고 진정한 민족 화합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운수 좋은 날」과 「사립 정신병원장」에서 다룬 요지부동의 현실, 즉 극빈의 민족 현실을 ‘계층의 화합과 연대’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4. 최서해: 현실부정과 자연발생적 투쟁의 옹호

「탈출기」는 1925년 『조선문단』 3월호에 게재된 작품으로 작가는 이 소설로 문단과 독자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훗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술회한 바 있다. 이 작품은 서간체 형식으로 쓰여 서술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나(박 군)’가 쓴 편지의 도입과 결말에 ‘떠남’의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독자가 자연스럽게 ‘나’의 이향(離鄉)과 탈가(脫家)의 원인에 주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두 차례에 걸친 탈출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들려주고 있는 셈인데, 첫 번째 탈출은 고향에서의 절박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하늘이 내려준 좋은 땅’인 간도에서의 새 생활을 동경하며 시작된다. 처음 ‘나’의 가족에게 간도는 기름진 땅과 삼림이 혼하여, 쌀 걱정 나무 걱정 없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자족(自足)의 공간’이자, 교육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촌락을 건설할 수 있는 ‘희망의 사회’로 여겨졌다. 개인의 욕구와 공동체적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간도에 들어서자마자 목살되고 만다. 조국에서 밀려난 그들에게 간도는 당시 한국의 상황보다 나을 게 없는, 극심한 수난의 장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을 보자.

그때에 용정 시가는 신록이 무르익은 가로수 좌우 옆으로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가 멋있게 나부끼었고 붉고도 흰 벽돌집 사이로 흘러나오는 강강이의 단조로운 멜로디는 보랏빛 봄하늘 아래 고이고이 흘러지고 있었다. 그러나 가로에서 헤메이는 걸인들의 이 모양 저 모양. 그들에게 있어서는 봄날도 강강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역두에서 흘러지는 낯선 사람의 뒤를 따르면서 그 손을 벌릴 뿐 그 험상진 손!<sup>164)</sup>  
(밑줄-인용자, 이하 같음)

위 인용문은 한국과 간도를 오가며 문필 활동을 했던 강경애의 수필 「간도를 등지면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가로에서 헤메이는 걸인들의 이 모양 저 모양’이라는 구절은 당시 간도의 실상을 짐작하게 해준다.<sup>165)</sup> 이 시기의 간도 역

164) 강경애(1932), “간도를 등지면서”, 《동광》: 『강경애』, 허경진 외 주편(2006),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제8권, 보고서, p.676에서 재인용.

시 극심한 생활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에 이주한 한국인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실제 평양승실전문학교경제연구실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당시 간도로 이주한 한국인들은 대개 ‘경제적 안락을 위하여’ 이곳에 왔으나 그들의 생활정도는 ‘서양인들이 들으면 놀라고 신빙치 못할’ 정도로 저급하였고 그들이 여기서 ‘안락한 생활을 할 방도는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sup>166)</sup> 이들에게는 동일 노동에 대해 최저 노임이 주어졌고, 조선인제한법강제실행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중국 관헌의 탄압도 가해졌기 때문이다. 이 중 대다수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영위해야 했던 것이다.<sup>167)</sup> 이들이 겪어야 했던 생활고는 ‘정치적 불안, 관헌의 탄압, 마적의 횡포’보다 더욱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sup>168)</sup>

작중 ‘나’의 가족들이 겪은 수난은 이 같은 간도 이주민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소작할 땅이나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샅팔이꾼이 되어야 했던 작중인물들처럼 실제 간도이주민들도 한국인 집단거주지에 들어가 그들에게 낄팍을 팔며 기생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다. 그도 아니면 ‘기거소작제’ 하의 소작인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음식과 거처를 제공받는 대신 중국인 지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소작노예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sup>169)</sup> 이처럼 소작할 땅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나’가 품팔이 노동자가 되고, 늙은 어머니와 만삭의 아내조차 샅품을 파는데 동원되어야 했던 현실은 뿌리 뽑힌 자들의 간도 정착이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170)</sup>

165) 1932년 6월에 지난 해를 회상하며 쓴 부분이므로 인용문은 1931년 6월경 용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간도 역시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전부터 극심한 생활난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강경애는 그의 또 다른 수필 “간도의 봄: 심금을 울린 문인의 이 봄”에서, 이 같은 간도의 상황이 ‘기계문명의 이기’, 즉 대자본의 침투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같은 책, p.688 참조.

166) 이훈구(1932), 『만주와 조선인』, 평양승실전문학교경제연구실, p.226.

167) 당시 만주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생활비용(1년)은 평균 149.33원이었던 반면 조선인 이주자의 그것은 101.71원~137.91원이었으며 그 중 70% 이상은 필수지출 항목-음식, 신탄(薪炭), 채광(採光), 주거-에 할애되어야 했던 것이다. 같은 책, pp.228-229 참조.

168) 다음은 평양승실전문학교경제연구실에서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한 내용이다. 그들은 만주에 기거하는 201명의 이주민을 만나 그들에게 ‘만주에서 조우하는 것 중 가장 곤란한 제1, 제2, 제3의 상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 중 두 사람은 대답을 거부하였고, 나머지 199명이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순위를 책정한 결과 득전(得錢) 곤란, 정치적 불안, 생활 곤란, 신변 위협, 중국 관헌의 무법, 생명 불안정, 추방, 치병, 마적, 중국 관헌의 압박 순을 이루었다고 한다. 득전 곤란(23%)과 생활 곤란(20.4%)이 모두 경제적 요인임을 감안할 때 이것이 그 어떤 조건보다도 만주에서의 이민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같은 책, p.105 참조.

169) 같은 책, p.104 참조.

더욱이 한국인 집단 거주지에 들어가 샷감을 매고 샷나무를 쭈는 일은 한시적  
이어서 고정된 수입은커녕 극도의 생계 불안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나’의  
가족도 2,30전 벌이를 위해 두부 장사를 시작하게 된다. 반실업 상태나 다름없는  
샷팔이꾼이라면 으레 겪게 마련인 생계 불안의 현실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투철한 현실 극복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이처럼 극빈의 생활을 탈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번번이 부정되는 현실을 경  
험하면서 ‘나’는 빈궁의 원인이 개인적 차원에 귀속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빈궁을 초래한 현실의 부정성을 인식하고 그것과의 대결을 선포하  
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아래의 내용은 ‘빈곤과의 막연하고도 막막한 싸움’을 끝내  
고 빈궁 탈출의 두 번째 방법으로 ‘투쟁’을 내세우게 된 과정을 서술해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우리의 충실은 맞지 안었다. 도로혀 충실한 우리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확대하였다. 우  
리는 여째까지 속아 살았다. 포화하고 허위스럽고 요사한 무리를 용납하고 옹호하는 세  
상인 것을 참으로 몰랐다. (……) 우리는 … 었던 험악한 제도의 희생자로서 사라왔  
다. (……) 그러나 마주에 취하여 자기의 피를 짜 밧치면서도 깨지 못하는 사람을 그  
저 볼 수 없다. 허위와 요사와 표독과 게으른 자를 옹호하고 용납하는 이 제도는 더욱 그  
저 둘 수 없다. (……) 이제까지는 최면술에 걸린 송장이었다. 제가 죽은 송장으로 남  
(식구들)을 었지 살리랴? 그러려면 나는 나에게 최면술을 걸려는 무리를 험악한 이 공  
극의 원류를 쳐부시려고 하는 것이다. (……) 나는 이것을 인간의 생의 충동(衝動)이며  
확충(擴充)이라고 본다. (……) 이 사상이 드디어 나로 하여곰 집을 탈출케 하였으며  
XX단에 가입케 하였으며 비바람 밤낮을 헤아리지 안코 배랑 솟보담 더 험한 X선에 서  
게 한 것이다. (……) 김 군! 이것이 나의 탈가한 리유를 대략 적은 것이다. (……) 나는

170) 장로교 외국전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인의 간도 이주가 어떠한 과정을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 일단을 짐작해볼 수 있다. “겨울날 영하 40도의 혹한 중에서 백의를 입은 말없는 군중은 혹 십여 명,  
혹 이십 명, 혹 오십 명씩 떼를 지어서 산비탈을 넘어온다. 그들은 만주의 수림(愁霖) 많고 암석 많은 척  
박한 토지와 더불어 악전고투하면서 일조(一條)의 생로를 얻기 위하여 신세계를 찾아 저와 같이 몰려오는  
것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꾸준한 노력으로 중국인의 용지(用地) 위에 있는 산변불모지를 팽이와 호미질을  
하여 손으로 심고 손으로 거두며 흔히 생을 유지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초근목피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다수의 사람이 식량부족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부인(婦人)과 소아(小兒) 뿐만이 아니요 청년들도  
동사하였다. 그들의 비참한 생활 위에는 또 질병이 닥쳐왔다. 수명의 조선인이 맨발로 강변을 깨어진 얼음  
장 위에 서서 바지를 걷어 올리고 두 자나 깊은 얼음장이 섞인 강물을 건너가서 저편 언덕에서 바지를 내  
리고 신을 신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있다. 남루한 의복을 입은 여자들이 신체의 대부분을 노출한 채 유아  
를 등에 업고 간다. 그와 같이 얼음으로써 피차에 조금이라도 체온을 돕고자 함이다. 남녀 늙은이의 굶은  
등과 주름살 많은 얼굴로 끝날 줄 모르는 먼 길을 걸어 나중에는 기진맥진하여 촛보(寸步)를 옮기지 못하  
게 된다. 그들이-노소강약을 막론하고- 그 고향을 떠나오는 것은 모두 다 이 모양이다.” 이훈구(1932),  
앞의 책, pp.103-104.



이러다가 성공업시 죽는다 하더라도 원한이 업겠다. 이 시대 민중의 의무를 리행한 까  
닭이다.<sup>171)</sup>

여기서 ‘나’는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포악하고 허위스럽고 요사한 무리들과 이들의 가치(허위, 요사, 표독)’는 옹호하면서도 ‘충실한 민중과 그들의 가치(정직, 선량, 성실)’는 멸시하는 세상이다. 게다가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낸 험악한 제도도 ‘나’와 갈등 관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 제도가 지닌 속성은 최면과 마주(魔酒)의 비유를 통해 강조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부지런한 자에게 복이 온다’는 최면과 빼앗기는 것을 희생의 미덕으로 둔갑시키는 마주(魔酒)의 속성은 당시의 제도가 지닌 불합리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현실은 기만적 제도를 통해 민중들의 삶을 ‘송장’으로 추락시키는 데 급급했던 것이다.

이 같은 현실 부정의 정신은 ‘투쟁의 선언과 실천’이라는 적극적인 현실대응 방식으로 심화된다. ‘송장 같던 과거’와의 절연을 선포하고 ‘XX단’의 투쟁에 동참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나’의 투쟁은 민중을 송장으로 만드는 제도의 속박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려는 목적,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했던 삶을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지니므로 ‘인간의 생의 충동이며 확충’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가 자신의 투쟁을 가리켜 ‘이 시대 민중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XX단이 일제를 대상으로 무장독립투쟁을 벌였던 ‘독립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이 빈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대상은 더욱 분명해진다. 작중에 나타나는 암시적 표현들, 이를 테면 ‘포악하고 허위스럽고 요사한 무리’와 ‘허위와 요사와 표독과 게으른 자를 옹호하고 용납하는 이 제도’의 의미가 명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XX단이 독립군이라는 논의를 수용하면 포악하고 허위스럽고 요사한 무리는 ‘일제’를 가리키고, 허위와 요사와 표독과 게으른 자를 옹호하고 용납하는 이 제도는 ‘식민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향과 탈가, 두 차례에 걸친 탈출 이야기는 별개의 서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sup>172)</sup>

171) 최서해(2008), 「탈출기」, 『최서해 작품집』, 지식음만드는지식, pp.124-127.

172) 첫 번째 탈출에 비해 두 번째 탈출은 민족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현실대응 방식이고, 막

작중의 ‘국외 이주(이향)’와 ‘독립군 활동(탈가)’은 모두 빈궁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된 것이었지만, ‘나’의 간도 이주 생활은 일제의 자장권역을 전진하는 행위가 빈궁 탈출의 통로일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제의 영향력이 강력히 행사되는 공간 속 민중의 삶은 그들의 기만적 식민 정책으로 인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이로써 작품이 제시하는 빈궁 탈출 방법은 유일해진다. 그것은 일제와의 싸움을 통해 식민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탈출기」는 ‘일제로부터의 독립’이 ‘빈궁 탈출’의 근본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925년 12월에 발표된 「큰물진 뒤」는 주인공 ‘윤호’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몰락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에 철도와 철교가 준공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우려대로 물난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들은 가족이 해체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다. 이들 중 다수는 읍을 전진하는 미숙련의 막별이꾼이 되거나 유리결식하는 걸인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윤호 또한 초가와 전토를 잃고, 막집에 사는 50전 노임의 공사판 흙질꾼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의 몰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사회적 범죄자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더는 내어줄 게 없는 상황에서도 폭압과 착취가 끊이지 않는 현실의 부정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작품은 마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준공된 철도와 철교로 인해 마을에 물난리가 일어나는 비극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예견되어 있었고, 군청·도청·철도국의 방치로 인한 인재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마을사람들의 편의와는 무관하게 준공되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철도와 철교’가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것이 지닌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소재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철도와 철교는 당시 농민들의 희생 위에 건설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철도부지로 선정된 지역은 시행령에 따라 그 용지를 무조건적으로 양도해야 했기 때문이다. 경인철도 허가서 제3조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該鐵道(모든 철도-인용자) 전 연선에서 철도의 건설 및 운전상 필요한 용지 즉 정거장, 창고 및 공장부

---

연한 동경의 결과가 아닌 ‘체험과 사색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때까지는 최면술에 걸린 송장”이 있음을 고백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탈출은 빈궁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설지, 전철용지, 축선용지를 포함한 상당 면적에 대하여 교통권을 설정”<sup>173)</sup>해야 했다. 또한 “그 노선의 지단(地段) 및 정거장, 창고, 공작창, 전철용지 등을 충당할 지단은 한국 정부가 공급”<sup>174)</sup>해야 했던 것이다. 이 두 가지 규정만으로도 일제는 식민지 근대화에 소용되는 한국의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sup>175)</sup>

관권에 의한 토지 수탈의 피해는 일차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갔다. 철도부지 선정 권한은 일제에 귀속되어 있었고, 그곳으로 선정된 지역의 농민들은 농토에서 분리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물난리가 아니어도 작중인물과 같은 몰락일변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필요와 상관 없이 건설된, 당시의 철도와 철교는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와 그로 인한 피해를 잘 보여주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식민지 근대화’가 일제의 경제 원리라면, 군청·도청·철도국 같은 ‘식민 통치 체제’는 그 행정 원리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는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한국을 일제의 식민지로 재편해갔다. 작품은 양자가 공모하여 식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마을로 향하던 물길을 산 아래로 돌려놓은 마을사람들의 노력을 무화시키고 그들의 절충안을 묵살하는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참담함을 ‘물난리’와 한 ‘마을의 초토화’, 그곳 ‘주민들의 몰락’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제의 침략으로 파괴된 이 마을은 식민 조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공간이며, 삶의 터전을 잃고 몰락해갔던 주민들은 나라를 잃고 영락해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토지에서 분리된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윤호의 가족을 통해 묘사된다. 풀로 엮은 막집에서 산후여독으로 죽어가는 아내와, 새벽부터 저녁까지 흙을 저 날라야 50전 벌이를 할 수 있는 윤호는 ‘보수적인 농업국 농민의 토지이탈 결과’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인구의 8할 이상이 농민이었던 당시의

173) 조동걸(1979), 앞의 책, pp.33-34.

174) 경부철도합동조약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이다. 같은 책, p.34.

175) 관권에 의한 토지 점탈은 국유 미간지에 대한 개간권 점유나 역둔토 또는 공장토 점유가 많았는데, 이 경우보다 노골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점탈한 사례는 군용지와 철도부설지 약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철도부지를 점탈하는 과정에서 일제는 그 용도로 사용될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 두었다가 한국 정부에 비싼 값으로 되파는 투기업까지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제의 차관을 도입해 그들이 되파는 토지를 사서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동걸(1979), 앞의 책, pp.33-34 참조.

한국 사회에서 농민의 토지이탈은 몰락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 같이 비참한 지경에 놓였어도 일제의 횡포는 그치지 않았다. 공사판에는 극성스럽고 포악한 일본인 감독관이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감독관의 폭력과 부당한 해고 명령은 윤호의 현실대응 방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는 민중의 소박한 도덕률을 버리고 “욕심 많고, 우락부락하고, 못된 짓을 잘하는 무리들이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sup>176)</sup>는 부조리한 현실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려는 마음을 먹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윤호는 이 주사를 찾아 가게 된다. “낮이면 돈을 만지고 밤이면 계집을 어르는 것으로 한없는 쾌락을 삼는”<sup>177)</sup> 이 주사를 위협하여 그가 착취한 것을 빼앗기 위함이다. 일제 식민 기관에 몸담고 있는 이 주사는 친일 성향이 다분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주사와의 대결은 곧 일제와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작품은 이제까지 주인공 윤호와 일본 제국주의의 갈등을 보여주었다. 철도와 철교의 준공을 놓고 식민 당국과 벌인 싸움은 물론 일본인 감독관과의 대결도 일제와의 갈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 모든 싸움에서 윤호는 패자의 지위를 면치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과 마을사람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한 일제와의 마지막 대결, 즉 이 주사와의 싸움에서 윤호는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sup>178)</sup> 이처럼 작품은 우리 민족의 몰락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투에서 비롯된

176) 최서해(1995), 『큰물진 뒤』, 『탈출기(외)』, 소담출판사, p.46.

177) 같은 책, p.49.

178) 윤호의 투쟁은 지속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극도의 울분과 생명 박탈의 불안감 속에서 자연스럽게 촉발된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저항 행위에 불과했다. 그것은 민족적 차원의 각성을 바탕으로 결행한 투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투쟁에 대해 ‘이 시대 민중의 의무’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기 위한 방책 정도로 여긴다. 또한 필자는 이 주사에 대한 윤호의 저항 행위를 계급의식의 발로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윤호가 저항 의식을 표출하게 된 배후에는 ‘계급의식’이 아닌 ‘자기 생존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빈 체험을 통해 윤호가 깨달은 현실의 부조리함과 비정함은 그에게 생존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한편, 생에 대한 욕구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자기 생존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남의 생명도 해칠 수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이 주사와의 대결을 ‘내가 살기 위한 방책’이자, ‘나의 양심을 아프게 하는 일’로 여기는 데서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윤호를 무산계급의 전형성을 지닌 인물이자, 무산계급을 대변하는 인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물론 윤호가 “자기가 목표삼고 나가는 대상들의 하는 짓”을 생각하며 자꾸만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그놈들도 다 못된 짓하고 모은 것”이라며 “가진 자”를 비난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 소설에서 이 주사의 옳지 못한 행실과 부정 축재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전언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 주사에 대한 윤호의 저항이 ‘가진 자’의 옳지 못한 행실에 대한 처벌이나 응징으로 비취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

것임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부정과 투쟁이 극빈의 현실을 극복하는 정당한 방법 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27년 1월에 발표된 「홍염」에도 빈궁 모티프가 나타난다. 이 작품은 간도의 한인촌락이라 할 수 있는 ‘빼허’의 배경묘사에서부터 극빈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곳 주민들은 “도야지 굴”<sup>179)</sup>과 다를 바 없는 귀틀집에서 추위와 가난의 이중고와 싸워야 했던 것이다. 더욱이 간도의 추위는 한국의 그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것이었다. 「이역의 달밤」(1933)이라는 강경애의 수필은 이 같은 간도 지방의 추위와 가난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다음을 보자.

이곳은 북국. 북국의 밤은 매우 차다. 저 달빛은 나의 뺨을 후려치는 듯 차다. (……) 때마침 어디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나는 문득 이런 노래가 생각난다. 이 밤에/어린애 우네/밤새껏 우네//아마 뉘 집 애기/빈 젖을 빠나부이/밤새워 빠나부이// 못 입고 못 먹는 이 땅의 빈농들에게야 저 바람같이 무서운 것이 또 어디 있으랴! 사의 마신이 손을 벌리고 덤벼드는 듯한 저 바람! 굶주린 저들은 공포에 떨 뿐이다. 이곳은 간도다. 서북으로는 시베리아, 동남으로는 조선에 접하여 있는 땅이다. 영하 40도를 중간에 두고 오르고 내리는 땅이다. 그나마 애써 농사를 지어 놓고도 또다시 기한(飢寒)에 울고 있지 않은가!<sup>180)</sup>

위 인용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 간도는 ‘영하 40도를 중간에 두고 오르고 내리는’ 혹한의 땅이었다. 그곳의 추위는 ‘사의 마신’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지독한 것이었다. 더욱이 ‘못 입고 못 먹는 이 땅의 빈농들’, 1년간 고역에 시달리며 농사를 지었어도 기한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간도의 바람은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렇듯 작중 “빼허의 생명들을 괴롭게 하는”<sup>181)</sup> 북국의 추위 묘사는 뿌리 뽑힌 자들의 고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척박한 환경에 놓인 최하층 망국민의 삶이 순탄하게 이어질 리 없었다. 그곳에 이주한 한국인들은 새로운 정착지에서도 ‘겨죽조차 자유롭게 먹을 수 없는’<sup>182)</sup> 소작농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주인공 ‘문서방’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

할 수 있다.

179) 최서해(2008), 「홍염」, 『최서해 작품집』, p.28.

180) 강경애(1933), “이역의 달밤”, 《신동아》: 허경진 외 주편(2006), 앞의 책, p.693에서 재인용.

181) 최서해(2008), 앞의 책, p.27.

182) 최서해(2008), 앞의 책, p.36.



지였다. 그들 역시 “이놈의 소작인 노릇을 면하여 볼까”<sup>183)</sup>하는 기대를 가지고 간도로 왔으나, 이름만 다른 지팡살이[小作人] 신세에 빛만 불리며 지주의 횡포를 견뎌야 했던 것이다. 농업국의 보수성을 고려할 때 한국 농민의 국외이주는 자발적인 것이었다기보다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총독부 내무당국자의 표현대로 “먹으려야 밥이 없고 입으려야 옷이 없는”<sup>184)</sup> 농촌의 실정이 그들을 간도나 시베리아로 내몰았던 것이다. 이들은 간도에서나 본국에서나 파산자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특히 1923년 동아일보에 실린 다음의 기사는 간도 이주민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지팡살이(중국인 田地에서의 소작생활)하는 농촌이 아마 全間島의 3분의 1은 될 듯 합니다. (……) 거친 퇴락된 새까만 이간초옥(二間草屋)에 노소가 기어돌고 기어나며 어린 아이들은 순의채색(鶉衣菜色, 낡고 기운 옷과 병들거나 굶주린 창백한 얼굴-인용자주)으로 벌벌 떨고 앉아 기(飢)를 호(呼)하고 한(寒)에 읍(泣)합니다. 장정들은 북풍 한설에 손발을 얼리며 지주의 집 앞, 뒤뜰의 눈을 쓸기도 하고 타곡마당에서 타곡을 하여 곳간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소작료는 3할과 4할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 대개 4·6(지주가 6할을 차지하고 소작인이 4할을 취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지주의 비위를 조금만 맞추지 못하면 왕바두주(忘八虯子)의 옥설이 향봉자(香棒子, 몽둥이-인용자주)와 함께 이릅니다. 그들은 고생을 할 대로 하고 모욕을 받을 대로 받습니다.<sup>185)</sup>

위 기사에 따르면 당시 간도로 이주한 한국 농민의 다수가 고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인의 땅을 부치는 소작농이 되어야 했던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고국의 소작료와 비슷한, 소출의 6할을 지주에게 지불해야 했고 눈을 쓸거나 타곡을 해주는 등 고용노동자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다. 지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주의 폭력과 모욕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기아에 부르짖고 추위에 우는’ 극빈의 현실을 모면할 수도 없었다. 이주 기간 내내 빛만 지고 지주 ‘인(殷)가’<sup>186)</sup>에게 얻어맞는 문서방의 모습은 간도 이주민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183) 같은 책, 같은 면.

184) 山名善來, “조선에 있어서 여행사망인”, 『조선』, 1921. 3. : 조동걸(1979), 앞의 책, p.80에서 재인용.

185) 《동아일보》, 1923. 12. 31 : 같은 책, pp.79-80에서 재인용.

186) 이 책의 편집자는 ‘殷’이라는 한자를 한국에서는 ‘은’이라고 발음하나 중국에서는 ‘인’이라고 읽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서해(2008), 앞의 책, p.32.

수 있다.

이처럼 당시 한국 농민들이 찾아든 간도는 조국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고국에서의 참담한 삶을 그리워할 만큼 간도라는 공간 역시 약자에 대한 수탈이 자행되는 곳이었던 것이다. 최하층의 망국민 신세인 그들은 여기서도 소작인이 되어 억지 희생을 강요받았고 이민족의 멸시와 조롱까지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간도 이주민과 중국인 사이의 민족 갈등은 심각한 것이었다. 중국 내 ‘낙오계층’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인 썰매꾼들도 간도 이주민들을 ‘조선 거지’라 부르며 함부로 모욕할 수 있었고, 중국인의 개는 한국인의 목숨과 등가물이었기 때문이다.<sup>187)</sup>

그렇다고 간도가 당시 식민 한국 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공간일 수는 없었다. 당시 한반도 안에서도 한국인은 착취의 대상이었고, 민족차별로 인한 이민족 간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던 까닭이다. 작중에 형상화되고 있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일본인과 한국인의 갈등’을 함축하고 있으며, 양자는 얼마든지 치환될 수 있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작중의 간도는 식민 한국의 현실과 일정한 상동성을 지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간도의 상징성이 중층적이라면 그곳에 거주하는 작중인물들에게도 보다 확장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서방 일가에게는 ‘간도 이주민의 전형’이자 일본의 압제로 수난 당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전형’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대립항이라 할 수 있는 인가에게는 ‘중국인 지주’이자 ‘일제의 대리자’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지주 인가의 빛 독촉에 시달리며 설상가상으로 가족해체의 고통마저 겪어야 했던 문서방의 삶은 물론, 빛 변제의 도구로 전락하여 되놈의 아내가 돼야 했던 ‘룡네(문서방의 딸)’와 딸을 빼앗긴 울화로 죽은 그 아내는 이민족 지주의 횡포와 그에 희생당하는 우리 민족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가와 문서방 일가의 갈등은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은 물론 ‘이민족 간의 갈등(중국인/간도 이주민, 일본인/한국인)’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sup>188)</sup>

187) 중국인 썰매꾼들의 모욕 행위는 최서해(2008), 앞의 책, p.31을 참고할 것. 중국인의 개와 한국인의 목숨이 등가물로 취급되는 장면은 같은 책, p.47을 참고할 것.

무자비한 인가의 횡포에 나약하게 굴복하기만 했던 문서방은 그에 맞서는 투쟁을 결행하게 된다. 딸 룡네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감금·억압했던 공간이자, 아내의 모성 본능을 유린함으로써 그녀의 목숨까지도 빼앗은 비정한 수탈의 공간을 방화하고, 그 주체인 인가를 살해하는 것으로 투쟁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A) 험악한 강산 세찬 바람과 뿌연 눈보래속에서 게딱지처럼 부터서 위태위태구 짐목을 지키고 잇는 그 모든 집에도 언제든지—공도가 위대한 공도(公道)가 어그러 지지 안으면 언제든지 꼭 한때는 짜뜻한 불사버치 지내리라.<sup>189)</sup>

(B) 모진 바람에 하늘하늘 이리서는 불사길은 어느새 보리사집사땀이를 살라버리고 울타리를 살라버리고 울타리 안에 잇는 집에 읊었다. (……) 검은 연기는 하늘을 덮고 붉은비춘 째째하든 골작이에 차 흘너서 어둠을 기회로 모아드러든 온갖 요귀(妖鬼)를 모라내는 것갓다. (pp.55-56)

문서방이 인가의 집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현실 부정과 투쟁의 표현인 동시에, 현실을 정화하려는 욕망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지른 불에 ‘어둠을 기회로 몰려 들었던 온갖 요귀를 몰아내는 것 같’다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 (B)는 이 같은 해석에 타당성을 마련해준다. 문서방의 저항 행위에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부조리한 구질서를 파괴하고 현실을 정화시키려는 문서방의 방화는 (A)에 제시된 ‘모든 집에 봄별을 가져오는 위대한 공도(公道)’와 결합되면서 그것을 실현하려는 선제 조건으로 비약되고 있다. ‘파괴’와 ‘생성’이라는 불의 상징성이 부정한 구질서의 파괴와 위대한 공도의 실현을 인과 관계로 묶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서방이 지른 불은 차가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도래해야 할 따뜻한 봄별의 이미지와 촉각적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어 위대한 공도의 실현과

188) 「홍염」의 성공은 ‘중국인/조선인’, ‘사악함/착함’, ‘지배/종속’ 등으로 무한히 확장 가능한 이항대립적 구도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이러한 구성적 속성은 하나의 지배항으로부터 대립항의 조건이 전적으로 결정되는, 근대적 서사양식과는 그다지 무관한, 오히려 전근대적인 서사물이나 어울리는 것이다. 간도에서의 농민 수탈이라는 소재는 사실이라기보다 일종의 상징과 같은 것이다. 「홍염」의 줄거리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기록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육박해 올 때의 그 충격은 이미 간도라는 소설적 공간을 초월해버림으로써 조선의 식민지 억압구조와 구조적으로 일치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전술했다시피 ‘중국인/조선인’이라는 「홍염」의 이항대립구조는 아무런 걸림돌도 없이 곧장 ‘일본/조선’, ‘제국주의/식민지’, 등의 대립항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악판단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더 효과적으로 민족적 주제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학사와 비평학회(2002), 『최서해 문학의 재조명』, pp.118-120 참조.

189) 최서해(2008), 앞의 책, p.28.

다시 한 번 자연스럽게 조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방화와 살인을 통해 문서방은 민중의 힘에 관한 확신을 얻게 된다. “적다고 믿었던 자기의 힘이 철통같은 성벽을 무너뜨릴”<sup>190)</sup>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로써 문서방은 “무한한 기쁨과 충동”<sup>191)</sup>을 얻게 된다. 자신이 문제해결의 주체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홍염」은 민중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의 현실 부정 정신과 대결의지를 옹호하는 현실개혁의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탈출기」, 「큰물진 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질이며, 최서해 문학이 거둔 분명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190) 최서해(2008), 앞의 책, p.58.

191) 같은 책, 같은 면.

## IV. 빈궁 모티프의 상호 텍스트적 대화

이제까지 반영론의 관점에서 골드만의 이론을 따라 김동인, 염상섭, 현진건, 최서해의 작품에 나타난 빈궁 모티프를 분석해 보았다. 암시적 방법과 명시적 표현으로 구성된, 이들의 빈궁소설을 분석하여 20년대 대중빈곤과 관련된 화소들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던 것이다. 그 결과 소설적 담론을 구성하는 데 있어 이들 작품이 몇 가지 유사성에 기초하고 있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192)</sup>

첫째, 이들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민족의 빈궁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둘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 구도’가 나타난다. 동시에 그것은 ‘일제와 우리 민족’의 대립항으로 치환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셋째, 주인공들은 식민 현실과 민족 수난을 매개로 ‘희생자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는 이 같은 특성을 골드만의 소설사회학 이론에 따라 구체화하고, 실증적 성격이 강한 다른 텍스트와의 관련 속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동시대의 타담론들과 이들 작품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의 상호텍스트성 이론을 바탕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민족적 빈궁의 형상화

최재서는 「貧困과 文學」이라는 평론에서 한국 현대 문학의 경향을 ‘빈궁의 형상화’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문학에는 ‘부유보다는 빈곤, 소비보다는 생산, 향락보다는 수난’이 우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이 시기 문학의 ‘실재성’은 여기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sup>193)</sup>

192) 이것은 이들 작품 간의 상호관련성을 소설의 구성 요소라는 측면에서 고찰한 내용을 적은 것이다. 첫째, 둘째, 셋째의 특성은 배경, 사건, 인물면에서 보인 동질성을 추론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인 작품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동인, 염상섭, 현진건, 최서해의 작품도 우리 민족이 놓인 현실을 실재적으로 보여주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자리에는 '빈궁'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그 중 한국인의 이주와 실업, 식민정책의 폐해는 이들 작품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적 현실'이었던 것이다.

특히 한국인의 이주 문제는 이들 작품의 상호관련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20년대의 '이주'가 우리 민족의 국내·국외 이주를 포괄하는 개념임을 고려한다면, 그것이 이들 작품 중 거의 모든 소설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복녀 부부의 경제적 몰락상을 '공간의 변화'로 제시하고 있는 「감자」는 물론 아둔한 농민의 근대적 도시 체험과 몰락을 그린 「시골 황서방」, 이주 문제를 지식인의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는 「만세전」과 「조그만 일」, 농토에서 분리된 우리 농민의 수난을 보여주는 「고향」과 「큰물진 뒤」는 국내 이주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외 이주의 심각성은 김동인의 「눈보라」, 염상섭의 「만세전」, 현진건의 「고향」, 최서해의 「탈출기」와 「홍염」에서 주로 형상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의 이주가 '경제적 조건'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빈사지경의 가난에 시달리던 홍 선생이 새로이 발견하게 된 '활로'가 만주였고, 식민지 근대화에 현혹되어 '마음껏 갑살리던 백의의 백성'이 종착한 곳도 만주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수탈로 쇠잔해진 K군 H의 마을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이 쫓겨 간 곳도, '절박한 생활에 시'든 '나'의 가족과 문서방의 가족이 '새 생활'을 동경하며 찾아간 곳도 같은 곳이었다. 이들의 이주가 궁여지책의 결과든 아니든 간에 '본국에서의 생활난'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만주 이주민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중 161명이 한국에서의 '경제 곤란', '의식(衣食)의 곤란', '생활난'을 이주의 원인으로 지적하였고, 만주에서의 경제 활동(농업, 축전, 사업)을 기대하며 이주하게 되었다는 응답자는 30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sup>194)</sup> 여기서 '만

193) 최재서, "빈곤과 문학", 《조선일보》 1937. 2. 27~1937. 3. 3 : 박홍배(1989), 앞의 논문, p.194에서 재인용. 최재서의 평론은 비록 1937년에 작성되었으나, 그 시기를 기점으로 당시 현대문학의 경향을 분석한 자료이므로, 여기서 언급된 특성은 20년대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주에서 농사짓고 돈을 모으고 싶다'는 것이 본국에서 농사짓거나 돈을 모으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내포하는 응답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이주 역시 '고국의 생활난'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sup>195)</sup> 결국 이 자료는 조사 대상 중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191명이 '본국에서의 생활난'을 계기로 간도에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수탈로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삶의 공간을 잃은 이주민의 삶은 극빈의 현실을 극복하는 대안일 수 없었다. 이들은 복녀 부부나 「조그만 일」의 '어멈'처럼 도회지에서 행랑살이를 하거나 「고향」의 '그'와 「탈출기」의 '나', 「큰물진 뒤」의 윤희와 같이 반무업(半無業) 상태의 품팔이 노동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타향에서 농사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도 문서방 일가처럼 겨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소작농 신세를 면할 수 없었고, 극심한 수탈(定租는 최고 9할, 執租는 8할, 打租는 7할을 웃뽀)<sup>196)</sup>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1929년 한 농부가 조선농민사(朝鮮農民社)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파산지경에 몰린 이주민의 생활상을 잘 보여준다. 다음을 보자.

우리들은 모두 파산자이다. 내지(여기서는 한국을 의미함, 인용자주)에서 건디다 건디다 못하여 정든 고국을 눈물로 이별하고 압록강을 건너 표랑생활의 온갖 신산미(辛酸味)를 맛보고 있는 우리이다. 더구나 아무 생활을 보장할 무엇이 없으므로 빼앗으면 빼앗길 뿐이요 쫓으면 쫓길 뿐이다. 생활 불안에 공포를 느끼기로 우리에게 더할 사람이 또 어디 있으랴.<sup>197)</sup> (밀줄-인용자)

194) 이훈구(1932), 앞의 책, pp.102-103 참조. 조사 결과를 순서대로 약술해 놓으면 다음과 같다.

- ① 생활난으로(72명) ② 집에 돈이 없어서(33명) ③ 본국에서의 경제곤란으로 인하여(30명)
- ④ 본국에서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24명) ⑤ 만주에서 농업을 하기 위하여(18명)
- ⑥ 만주에서 돈을 모으기 위하여(11명) ⑦ 본국의 정치적 이유로(7명)
- ⑧ 의식의 곤란으로(2명), 여행의 결과로(2명)
- ⑩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1명), 친족을 따라서(1명)

195) 총독부 관원조차 인정할 정도로 참혹한 극빈의 상황은 한국의 농민을 뿌리 뽑힌 이주자 신세로 전락시키고, 타관을 전전하다 죽음에 이르는 지경으로 몰아갈 정도였다. 다음은 山名善來가 총독부 기관지 중의 하나인 『조선』에 기고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먹으려야 밥이 없고, 입으려야 옷이 없는 방랑의 신세가 되어, 산야나 노변에 쓰러진 채로 친척과 고구(故舊)의 간호도 받지 못한 채로, 외로이 인생의 행로에 종언을 고하는 자가 연년이 巨數에 이르고 있다.”  
山名善來, “조선에 있어서 여행사망인”, 『조선』, 1921. 3. : 조동걸(1979), 앞의 책, p.80에서 재인용.

196) 소작료는 정액 소작료는 定租와, 수확기에 입도(立稻)를 평가해서 결정하는 執租, 수확물의 몇단 혹은 탈곡하여 분배하는 打租의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조의 최고는 90%, 집조는 80%, 타조는 70% 등 대부분의 소작료가 60%를 웃돌고 있었다고 한다. 임종국(1991), 앞의 책, p.66.

197) 《조선농민》 제5권 제6호, p.18. : 같은 책, p.79에서 재인용.

위 인용문은 ‘파산지경’, ‘아사지경’에 몰린 국외이주자의 사정은 물론 그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국내의 사정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기만적 농업 정책으로 본토 거주 일본인들은 ‘기아수출된 한국의 양곡’으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었고, 재선일본인들은 한국 농촌의 대지주로 성장해갈 수 있었던 까닭이다. 일제가 착취한 만큼 한국인들은 굶주리거나 고향에서 축출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들은 동아권업공사(東亞勸業公司)와 선만척식주식회사(鮮滿拓植株式會社)를 설치하여 한국 잉여농민의 국외 이주를 촉진하기도 했다. 일본인 이주 정책이 자국의 농민들을 한국 농촌의 지주로 만드는 사업이었던 반면, 그들이 실시한 한국인 이민 정책은 국내 잉여농민을 축출하여 이민족의 소작농으로 정착시키는 제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sup>198)</sup>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인이 ‘한국 이주민을 수많은 일인(日人)들이 이주함에 따라 본국에서 축출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으로 인식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sup>199)</sup> 그들은 만주로 이주한 우리 민족을 ‘일본인 거주지’를 만들기 위해 희생되거나 만주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인물로 보았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조선인제한법강제실행법’은 그 같은 우려에서 시행된 법령의 하나였던 셈이다. 한편 품팔이 노동에 종사하거나 농사조차 제대로 지을 수 없었던 이주민들은 「눈보라」의 흥 선생이나 쇠몽치 노인과 같이 비정상적이거나 일탈적인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의 실업 문제도 이들 작품에 빈궁 모티프를 형성하는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이 같은 현실은 김동인의 「눈보라」와 염상섭의 「조그만 일」, 현진건의 「사립 정신병원장」, 최서해의 「큰물진 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그 밖의 작품에도 단편적으로 수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의 실업난과 취직난은 심각한 지경이어서, 지식인들조차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실업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 중 「큰물진 뒤」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지식인의 실업 문제를 다룬 소설이라는 점은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실제로 1925년 봄에는 실업 청년들이 경찰서로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 달라’고 간청하는 일이 밤마다 반복되었고, 생활난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청년 실업자

198) 같은 책, pp.78-79 참조.

199) 이훈구(1932), 앞의 책, p.241 참조.

에 관한 기사가 빈번히 게재될 만큼 이 시기의 실업 문제는 대중빈곤과 직결된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였던 것이다.<sup>200)</sup>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 작품이 대중빈곤의 원인으로 '일제의 식민 정책'을 지목하고 있는 점이다. 확대 실시된 면허증 제도와 봉건적 특권의 철폐, 식민지 근대화와 헌병경찰제도, 국내에 설립된 척식회사의 수탈과 일제의 농업 정책 등은 이들 작품에서 '민족적 빈궁'을 야기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감자」는 이민족 황서방과 감자의 상징을 통해 일제의 횡포와 우리 민족의 수난을 보여주고 있고, 터무니없이 확대 실시된 면허증 제도와 봉건적 특권 철폐의 허구성은 「눈보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골 황서방」과 「운수 좋은 날」, 「고향」, 「큰물진 뒤」에서는 식민지 근대화의 상징물로 Z씨의 도회, 전차와 돈, 유곽, 철도와 철교를 활용하여 그것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몰락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판세전」에서는 식민지 근대화와 헌병경찰제도, 일선융화 정책의 허구성이 폭로되고 있고, 일제가 허용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가자유(假自由)에 지나지 않았음을 「운전기」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 설립된 척식주식회사의 수탈과 일제가 실시한 농업 정책의 기만성은 「감자」, 「고향」, 「탈출기」, 「홍염」에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작중에 수난과 희생의 서사 구조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기도 한다.

## 2. 수난과 희생의 서사

지금까지 이들 작품이 암시적 방법과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민족의 수난을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였고, 그 수난을 야기한 주체로 일본 제국주의를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았다. 이 작품들은 '가해'와 '피해'의 주체로 '일제'와 '우리 민족'을 설정하고 이들의 대립 구도, 즉 양자 간의 화해 불가능한 관계를 통해 서사를 진행시키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0) 지수결(2008), 앞의 책, p.133 참조.

실제 이들의 작품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 구도가 나타난다. 「감자」에는 우리 땅을 점거하고 그 곳에서 생산된 부를 매개로 식민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이민족 황서방이 등장하고 ‘일제를 대리하는 인물’인 그로 인하여 ‘우리 민족의 전형’인 복녀가 철저히 파괴되는 모습이 그려진다. 식민지 근대화의 외양을 즐기려다 파산한 한국인의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는 「시골 황서방」에도 가해와 피해의 대립 구도가 나타난다. 작중 ‘Z씨의 도회’와 황서방 사이의 대립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식민 정책과 한국인의 실업 문제 사이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눈보라」에는 식민 정책으로 인한 지식인의 몰락이 형상화되어 있다.

「만세전」에는 ‘식민지 근대화와 그 정책을 한국 사회에 매개하는 인물들’과 ‘나’의 갈등이 형상화되어 있으며, 그것을 통해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나’는 일본인 정자의 요구(교제)를 거절하고 그와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작품은 일선융화 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할 수 있었다. 「윤전기」는 당시 언론·출판 자유의 허구성을 (다시 얻을 가망이 없기 때문에) 발행권 취소에 노심초사하는 신문사 간부 A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실업의 현실에 환멸을 느낀 여성 지식인의 자살미수를 그린 「조그만 일」은 식민지 지식인의 비애와 좌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김 침지 일가의 비극을 전차와 인력거의 대비로 형상화하고 있는 「운수좋은 날」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이 나타난다. 전차가 상징하는 ‘식민지 근대화’와 그로 인해 정상적인 별이를 할 수 없게 된 인력거꾼의 몰락은 우리 민족의 수난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립 정신병원장」은 불안정한 취업 사정과, 폭력적 현실의 대리자인 K 앞에 ‘지식의 유용성과 낙천적 기질’을 상실하는 W를 통해 현실의 부정성을 강조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고향」은 동척과 유곽이 상징하는 제국주의적 수탈로 인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궐녀’의 수난을 보여준다. 게다가 작품의 말미에 ‘서울 아리랑’의 일부를 차용하여 그들의 삶이 ‘조선의 얼굴’, 즉 민족적 차원의 상징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다.<sup>201)</sup>

201) ‘서울 아리랑’이라는 근대 민요에서 그려지고 있는 현실은 「고향」뿐만 아니라, 이 연구의 대상인 작품에 폭넓게 수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같은 필요에서 노래의 전문을 지면에 옮겨보고자 한다.

말깨나 하는 놈 재관소에 가고/일깨나 하는 놈 共同山 가고/  
아이깨나 낱을 년 갈보질 가고/목도깨나 땀 뚫은 일본 가고//  
벗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작로가 되고요/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탈출기」는 독립군에 가입한 나와 ‘포악하고 허위스럽고 요사한 무리(일제)’, ‘허위와 요사와 표독과 게으른 자를 옹호하고 용납하는 이 제도(식민 정책)’ 사이의 갈등과 투쟁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투쟁에 ‘이 시대 민중의 의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가해자인 일제와의 대립에 정당성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큰물진 뒤」 역시 일제와의 대결을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 윤호의 대립항으로 식민 당국과 일본인 감독관, 친일 성향의 이 주사를 설정하여 일관되게 일제와의 대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홍염」은 당시 한국과 간도를 균질한 공간으로 그려내어, 우리 민족으로서의 전형성을 지니는 문서방과 ‘일제를 대리하는 이민족 지주’ 인가와와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문서방의 저항에 ‘위대한 공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여, 일제와의 대결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 작품은 일제와 우리 민족 사이의 화해 불가능한 관계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 구도로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로서 일제의 위력이 부각될수록 우리 민족의 수난과 희생은 극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 작품에는 우리 민족으로서의 전형성을 지닌 인물이 좌절과 실패를 거듭하고 사회구조적 차원의 ‘희생자’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우리 민족이 놓인 삶의 자리가 ‘수탈과 압제로 점철된 식민지적 특수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이 같은 현실 구조가 작품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까닭이다.

---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가고요/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쓸 만한 전답은 신작로가 되고/얼굴 고운 딸년은 신마찌 가고/살림깨나 살 년은 공장에 간다//  
 말깨나 하는 늙은 감옥으로 가고/기운꼴이나 쓰는 늙은 大阪으로 가고/  
 늙고 병든 무지랭이는 北間島로 가버리니//

위 노래는 우리 민족의 수난과 희생의 서사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이 이들 작품에서 살피본 바와 같이 일제의 수탈에 기인한 것임을 ‘일본’, ‘신작로’, ‘유곽’, ‘신마찌’, ‘대판(大阪)’이라는 용어를 통해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 작품과 비슷한 시기에 불렀던, 실증적 성격이 강한 서울 아리랑을 통해 작품에 형상화된 현실이 당시 사회 구조와 상당 부분 합치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민요의 전문은 조동일(2005), 『한국문학통사』 제5권, p.272에서 재인용.

## V. 결론

이제까지 2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 중 김동인·염상섭·현진건·최서해의 작품에 나타난 빈궁 모티프를 골드만의 소설사회학 이론에 따라 분석하고, 당대 사회의 빈궁 문제가 이들 작가의 작품에 변주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대중빈곤과 관련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 작품 사이의 유사성을 골드만의 이론과 넓은 의미의 상호텍스트성 이론에 따라 검토해 보았다. 이 연구의 의도와 직결된 논의는 제3장과 제4장에서 다루어졌고, 제2장은 중심 논의를 위한 도입의 성격을 지닌다.

제2장에서는 빈궁의 서사가 서로 다른 미의식을 추구하는 당시의 작가들에게 폭넓게 수용되어, 이 시기 소설 문단의 지배적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과정을 문학·사상적 배경과 사회·역사적 배경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그 첫 번째 절에서는 문학·사상적 차원에서 당시 소설에 빈궁 모티프가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을 검토해 보았다. 서구의 다양한 사상·사조의 유입, 그 중에서도 ‘사실주의’와 ‘사회주의’ 문학 사상이 빈궁소설의 등장과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해 보았던 것이다.

두 번째 절에서는 빈궁 모티프가 작품에 지배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을 사회·역사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빈궁 모티프가 소설적 담론의 유력한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를 ‘3·1운동’과 ‘민족의 빈궁한 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김동인·염상섭·현진건·최서해의 빈궁 소설을 골드만의 이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들 작품에 나타난 빈궁 모티프를 20년대 대중빈곤과 관련하여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첫 번째 절에서는 김동인의 「감자」와 「시골 황서방」, 「눈보라」를 분석하여 민족적 빈궁이 이들 작품에 암시적 방법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살피고, 거기에 나타난 패배주의적 현실대응방식의 한계와 현실재현적 차원의 성과를 확인해 보았다.

두 번째 절에서는 염상섭의 「만세전」, 「윤전기」, 「조그만 일」에 나타난 빈궁 모티프를 분석하였다. 이들 작품은 무산무식 계급의 삶을 전경화(前景化)하고 있지 않으나, 지식인의 시각으로 대중빈곤의 실상과 원인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당시 사회의 다양한 모순과 질곡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절에서는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과 「사립 정신병원장」, 「고향」에 나타난 빈궁 모티프를 분석하였고, 그것이 주로 낙오계층의 삶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음을 확인해 보았다. 「운수좋은 날」과 「사립 정신병원장」에서 보이던 결정론적 현실 인식의 태도가 「고향」에 이르러 점차 극복되기 시작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민중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인식하여 민족 화합의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 절에서는 「탈출기」와 「큰물진 뒤」, 「홍염」에 나타난 민족적 빈궁의 현실을 검토해 보았다. 빈궁 서사의 중심에 무산무식 계급에 속한 인물을 배치하여 ‘그들의 수난을 정당화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그것과의 자연발생적 투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민중 주체의, 현실 개혁의 문학’으로 나아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이들 작품에 나타난 빈궁 모티프 사이의 유사성을 골드만의 이론과 크리스테바와 켈러, 주네트의 상호텍스트성 이론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거기에 민족 빈궁의 현실이 반영되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불가능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즉 ‘우리 민족의 전형성’을 나타내는 인물과 ‘일제를 대리하는 상징물(식민현실)’ 사이의 대결 구도가 공통적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당시 우리 민족의 삶의 자리가 ‘식민지적 특수성’에 놓여 있던 까닭에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회구조적 차원의 ‘희생자’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임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작가의 개성과 작품의 미학성이라는 문학 자체의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작품 간의 상호관련성을 해명함으로써, 문학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20년대 문학이 이론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문학과 사회를 동형의 구조로 파악하는 반영론 중심의 연구이므로 작품 분석에 있어 구체화되어야 할 여러 측면들이 사소하게 다루어지거나 도외시된 면이 없지 않음은 이

연구가 지닌 분명한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폭 넓지 못한 연구 범위도 이 연구가 지닌 또 다른 한계이며, 여기서 미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보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논저

#### 1) 기본 자료

- 김동인(2006), 최시한 편, 『감자』, 문학과지성사.  
\_\_\_\_\_(2006), 김종년 편, 『김동인 단편 전집』 제1권, 가람기획.  
염상섭(1996), 이형기 편, 『정통한국문학대계』 제3권, 어문각.  
\_\_\_\_\_(2004), 남용 편, 『만세전』, 일신서적.  
\_\_\_\_\_(2006), 김경수 편, 『두 과산』, 문학과지성사.  
최서해(1995), 신동욱 외 편, 『탈출기(외)』, 소담출판사.  
\_\_\_\_\_(2008), 홍기돈 역, 『최서해 작품집』, 지식을만드는지식.  
현진건(2006), 김종년 편, 『현진건 단편 전집』, 가람기획.

#### 2) 논문

- 곽순애(2001), “1920년대 전반기 소설의 현실 인식 방법 연구”, 명지대  
박사학위논문.  
곽효문(2007), “일제강점기 빈곤정책 형성의 재조명”, 한국행정사학지 제21권.  
권진국(2000), “최서해 소설 연구-작품 양상과 작가 의식의 변모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김석봉(1997), “1920년대 전반기 초기 단편소설의 서사론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김성기(1984), “1970년대 한국소설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일고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김수업(1968), “동인 단편 연구(둘째): 「감자」의 기법”, 어문학통권 제18호.  
김춘매(2007), “최서해 소설 연구: 체험의 형상화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 박홍배(1989), “한국 빈궁문학 연구: 1920년대와 1930년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 제9집.
- 변정선(1991), “현진건 소설 연구: 작가의 세계관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 서종택(1976), “궁핍화시대의 현실과 작품변용: 최서해, 김유정의 현실 수용의  
문제”, 어문논집 제17집.
- 신연철(1985), “일제하 한국 빈궁문학에 관한 연구”, 공주교육대학 논문집 제21호.  
\_\_\_\_\_(1992), “한국근대리얼리즘의 전개양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춘호(1973), “한국 빈궁문학의 두 양상”,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유진석(1989), “일제식민지시대 빈민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윤병로(1995), “1920년대 前半의 小說樣相: 새로운 소설미학의 추구하고 경향”,  
동아문화연구 제26집.
- 윤석원(1997), “현진건 소설 연구: 작품에 반영된 사회의식을 중심으로”,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 이강언(1982), “한국 근대소설의 양상과 전개”, 영남어문학 제9집.  
\_\_\_\_\_(1975), “김동인과 리얼리즘 문학의 한계: 作品 「감자」의 分析”,  
영남어문학 제2집.
- 이동길(1998), “김동인의 「감자」에 나타난 불행한 삶과 모순된 인식”,  
배달말 제23호.
- 이병례(1999), “1920년대 일제의 노동정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선(1978), “현대소설과 가난의 리얼리즘: 192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제4권.
- 이주형(1994), “김동인 소설에서의 허무주의적 인간운명관과 인간 경멸·혐오  
의식”, 국어교육연구 제26집.
- 이훈(1987), “최서해 소설론: 가난체험과 가족애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제20집.

- \_\_\_\_(2000), “「만세전」의 근대성에 대한 연구: 주체의 근대적인 의식과, 식민지적 근대성에 대한 반영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45.
- 임동휘(2003), “빈궁소설의 서사적 특징 연구: 최서해, 현진건, 김유정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장병희(1984), “김동인 단편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정덕훈(1982), “최학송 작품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 정안나(1986), “1920년대 소설에 관한 일고찰: 「만세전」, 「화수분」, 「병어리 삼룡이」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조남철(1985), “1920년대 농민문학연구 : 프롤레타리아 농민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통일문제연구소.
- 조남현(1974), “1920년대 한국경향소설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최순열(1985), “염상섭의 <만세전>과 리얼리즘”, 한국문학연구 제8권.
- 허관호(1983), “김동인 소설 一考: 「감자」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4집.
- 현길언(1984), “1920년대 한국소설의 구조: 동인·병허의 단편 구조와 그 사회”, 한국언어문학 제23집.

### 3) 단행본

- 강경애(2006), 허경진 외 주편, 『강경애』,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제8권, 보고서.
- 강동진(1980), 『한국근대민족운동사』, 돌베개.
- \_\_\_\_\_(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 김동인(1980), 김치홍 편, 『김동인평론전집』, 삼영사.
- 김문식 외(1971), 『일제의 경제침탈사』, 민중서관.
- 김육동(2008), 『포스트모더니즘』, 민음사.
- 김윤식(1974), 『한국근대문학의 이해』, 일지사.
- \_\_\_\_\_(1976), 『한국현대문학사』, 일지사.
- \_\_\_\_\_(1987), 『염상섭 연구』, 서울대출판부.
- \_\_\_\_\_(1987), 『김동인 연구』, 민음사.
- \_\_\_\_\_. 정호웅 주편(1987), 『한국리얼리즘소설연구』, 탑출판사.

\_\_\_\_\_ · 김현(2005), 『한국문학사』, 민음사.

\_\_\_\_\_ · 정호웅(2008),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김진송(2004), 『서울에 만스홀을 許하라』, 현실문화연구.

류양선(1994), 『한국 농민문학 연구: 식민지 시대』, 서광학술자료사.

문학사와 비평학회(2001), 『김동인 문학의 재조명』, 새미.

\_\_\_\_\_ (2002), 『최서해 문학의 재조명』, 국학자료원.

백철(1997), 『김동인연구』, 새문사.

서종택 · 정덕진 편(1990), 『한국현대소설연구』, 새문사.

송하춘(1995), 『1920년대 한국소설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신춘호(2004), 『한국 농민소설 연구』, 집문당.

\_\_\_\_\_ (1994), 『최서해-궁핍과의 문학적 싸움』, 건국대학교출판부.

안병직 · 박성수 외(1980), 『한국근대민족운동사』, 돌베개.

윤병로(1991), 『한국 근 · 현대 문학사』, 명문당.

윤홍로(1982), 『한국근대소설연구』, 일조각.

이강연(1983), 『한국근대소설논고』, 형설출판사.

이보영(2001), 『난세의 문학-염상섭론』, 예지각.

이선영 외(1990),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삼화사.

이이화(2003), 『한국사 이야기』 제19권, 한길사.

이재선(1982),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_\_\_\_\_ (1989), 『한국문학주제론』, 서강대학교출판부.

\_\_\_\_\_ · 김동욱(1990), 『한국소설사』, 현대문학.

\_\_\_\_\_ · 조동일(1995), 『한국현대소설작품론』, 문장.

이훈구(1932), 『만주와 조선인』, 평양승실전문학교경제연구실.

임규찬(1998), 『한국근대소설의 이념과 체계』, 태학사.

임종국(1991), 『한국문학의 민중사』, 지리산.

\_\_\_\_\_ (2004), 『밤의 일제 침략사』, 한빛문화사.

장사익 외(1996), 『문예사조』, 새문사.

조남현(2000), 『소설원론』, 고려원.

조동걸(1979), 『일제하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 조동일(2005), 『한국문학통사』 제5권, 지식산업사.
- 조정래(1998), 『한국 근대사와 농민 소설』, 국학자료원.
- 조진기(1989), 『한국근대리얼리즘소설 연구』, 새문사.
- 지수걸(2008), 『한국근대사회와 문화』 III권, 서울대학교출판부.
- 채훈(1976), 『1920년대 한국작가연구』, 일지사.
- 현길연(1988), 『현진건소설연구』, 이우문화사.
- \_\_\_\_\_(1995), 『현진건-식민지 시대와 작가 정신』, 건국대학교출판부.
- \_\_\_\_\_(2000), 『문학과 사랑과 이데올로기-현진건 연구』, 한국문학도서관.
- \_\_\_\_\_(2003), 『소설에서 만나는 한국인의 얼굴-일제강점기』, 태학사.
- 홍이섭 외(1969), 『한국현대사』 제4권, 신구문화사.
- \_\_\_\_\_(1983), 『한국정신사서설』, 연세대학교출판부.

## 2. 국외논저

- L. 콜드만(1982), 조경숙 역,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청하.
- R. 솔즈 · R. 켈로그(2001), 임병권 역, 『서사의 본질』, 예림기획.
- M. H. 아브람스(1997), 최상규 역, 『문학연구사전』, 보성출판사.

<Abstract>\*

Study on the Poverty Aspect Having Been  
Shown in 1920's Novel

Choe Hui-jeong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Mun, Seong-suk

This study analyzes the aspect of 'poverty' which appeared to works of Kim Dong-in, Yeom Sang-sup, Hyun Jin-geon and Choe Seo-hae and reviews accepted status of contemporary poverty matters as a motive to their works, and then leaves a purpose in lightening up correlations between their works.

The study composed of 3 chapters in the main subject, and intended to raise efficiency and comprehensiveness by utilizing pluralistic methods having introduced different ways together at each chapter. The contents having been dealt with this study were same as followings.

In the 2 chapter, this study reviewed the backgrounds of being accepted of the poverty matter positively in the novels of these times by dividing them into cultural, ideological backgrounds and social, historical ones. Also, the study confirmed acceptance of realism and socialism thoughts, and the influences of poor reality and results of 3.1 Independence Movement to forming poverty motives.

In the 3 chapter, the study analyzed status of poverty motives having been appeared to masterpieces of Kim Dong-in, Yeom Sang-seop, Hyun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10.



Jin-geon and Choe Seo-hae, and arranged common characteristics having been shown from each artist's works after generalizing them according to the theory of novel's sociology from Goldman.

This study reviewed the mutual relevance between the works which were objects of the study in the sides of figurative called 'poor ethnic actuality' and 'victim motive' according to novel's sociology theory from Goldman and intertextuality theory in the chapter 4.

In the chapter 5, this study substituted for a conclusion by summarizing contents of the main subject.

